

제9회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교양교육혁신 학술대회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 충남대학교 리더스피릿 연구소
연합 학술대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의 방안들”

발 표 집

2024년 10월 11일
목원대학교 사범대학(U관) 408호

제9회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교양교육혁신 학술대회
: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충남대학교 리더스피릿 연구소 연합 학술대회

< 리더십 함양을 위한 대학교양교육의 방안들 >

2024. 10. 11. (금) 13:00~17:50 목원대학교 사범대학(U관) 408호

주최: 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 | 주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 충남대학교 리더스피릿 연구소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사회
개회	13:00~13:15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송석량(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서영식(충남대학교 리더스피릿 연구소장) 축사: 민정식(목원대학교 스톡스대학장)	이규원 (LIC)
1부	13:15~13:40	[발표 1] “필리포 뒤플레시스-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 : 낭트칙령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충현(한밭대학교)	구진희 (목원대)
	13:40~13:50	발표 1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임재광(대전신학대학교)	
	13:50~14:15	[발표 2] “용기와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 마리퀴리” 발표자: 정영기(호서대학교)	
	14:15~14:25	발표 2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최현철(중앙대학교)	
	14:25~14:50	[발표 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독서교육방안 : 「데미안」, 「쉴더타」를 중심으로” 발표자: 서기자(목원대학교)	
	14:50~15:00	발표 3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송기환(대전대학교)	
휴식	15:00~15:10	휴식	
2부	15:10~15:35	[발표 4] “플라톤과 셰익스피어 : 서구 정치 리더십 담론의 두 기원” 발표자: 서영식(충남대학교)	최혜진 (목원대)
	15:35~15:45	발표 4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김요한(전북대학교)	
	15:45~16:10	[발표 5] “대학교양교육 연구에서의 리더십 개념 적용을 위한 이론적 소고” 발표자: 민웅기(목원대학교)	
	16:10~16:20	발표 5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서정일(목원대학교)	
	16:20~16:45	[발표 6] “막달라 마리아 전승에 나타난 여성리더십과 영성 :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의 관점에서” 발표자: 양정호(장로회신학대학교)	
	16:45~16:55	발표 6 - 토론 및 논평 토론자: 권진구(목원대학교)	
휴식	16:55~17:05	휴식	
종합 토론	17:05~17:35	종합토론	권선희 (목원대)
교육	17:35~17:45	연구윤리교육	
폐회	17:45~17:50	폐회사 송석량(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목 차

-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 낭트칙령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01
(한밭대학교, 김충현)

- “용기와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 마리 퀴리” 21
(호서대학교, 정영기)

-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 방안: 『데미안』, 『싯다르타』를 중심으로” 37
(목원대학교, 서기자)

- “플라톤과 셰익스피어: 서구 정치 리더십 담론의 두 기원” 55
(충남대학교, 서영식)

- “대학교양교육 연구에서의 리더십 개념 적용을 위한 이론적 소고” 83
(목원대학교, 민웅기)

- “막달라 마리아 전승에 나타난 여성리더십과 영성: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의 관점에서” 97
(장로회신학대학교, 양정호)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 : 낭트칙령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김충현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 - 낭트칙령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얼마 전 한국은행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협동력이나 협상력, 설득력과 같은 타인의 감정이나 반응을 이해하는 사회적 기술(혹은 능력)의 일자리 비중이 49%에서 56%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기술이 1단위 높아질 경우 2007~2015년까지 임금이 4.4% 높았으나, 2016~2020년에는 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한국은행에서는 인지적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대체하기 어려운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¹⁾

소통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소통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나, 이에 따라 기업이 소통 교육과 훈련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 간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소통 능력을 가르쳐야 하는가이다. 현대 사회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이 빈번해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단순한 소통 능력이 아닌, 중재적 소통 능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갈등을 해결하며,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중재자 리더십(Linkership)’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소통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중재자 리더십에서 ‘중재자’란 흔히 중간관리자나 중간간부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중재자 리더십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중간간부는 대개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인식되지만, 중재자 리더십에서의 중재자는 그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며, ‘두 개 이상의 다른 요소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²⁾ 즉, 중재자는 리더도 팔로워도 아니면서 그 둘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재자 리더십은 갈등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협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역사 속에서 중재자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준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의 활동

* 본 발표문은 『인문과 예술』 제16호(인문예술학회, 2024. 6.)에 실린 논문을 수정·재구성한 것이다.

1) 오정인, “AI 시대 뭇이 중요?... ‘팀워크·의사소통 잘 할수록 임금 더 높다’”, SBS Biz, 2024.06.10.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5522>(2024년 9월 21일 검색)

2) 신인철, 『링크어십』, pp.132-134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의한 것이다.

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재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중재자 리더십을 함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이하 모르네)는, 역사상 관용칙령으로 널리 알려진 낭트칙령을 탄생시킨 숨은 공로자라 할 수 있다. 그는 낭트칙령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개신교 총회들(이하 총회)에서, 갈등하는 두 세력, 즉 프랑스의 왕 앙리 4세와 프랑스 개신교도들(이하 위그노)을 조정하여 평화(낭트칙령)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다.

16세기 칼뱅의 종교개혁 이래, 프랑스에서는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이 발생했고, 1562년에 처음 시작된 종교전쟁은 결국 1598년 앙리 4세가 위그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인정한 낭트칙령에 의해 종결되었다. 그러니까 모르네가 중재자 역할을 했던 개신교 총회는 전쟁을 끝내고 프랑스를 평화로 이끈 회의였던 것이다.

1593년 앙리 4세는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통해 국내외 반란 세력들의 저항명분을 제거하고 완벽한 프랑스 왕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대신 자신과 함께 싸워주던 위그노 지지자들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에 앙리 4세는 망트(Mantes)에 위그노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593년부터 낭트칙령이 발표되는 1598년까지 일곱 차례 총회들이 소집되었다.³⁾ 5년 동안 지속되는 위그노와의 협상에서, 앙리 4세는 1577년의 푸아티에 칙령(Édit de Poitiers)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푸아티에 칙령의 고등법원 등록을 선언하는 조치로서 위그노들을 만족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위그노들은 앙리 4세와 가톨릭 신성동맹(Sainte Ligue) 사이에 맺어진 많은 조약들에 의해 1577년 칙령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칙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성동맹의 가톨릭 세력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던 앙리 4세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대립 상황 속에서 양측을 중재했던 것은 모르네였다. 모르네는 왕에게 서신을 보내, (신성동맹, 교황청, 에스파냐에 추가하여) 또 다른 전선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그노들에게 새로운 칙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 반대로, 위그노들에게는 ‘온건함’을 유지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요구들’을 포기함으로써 왕에게 양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모르네는 왕과 위그노 간의 충돌을 막고, 대화를 통해 극적인 평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 연구 방법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낭트칙령이 관용칙령으로, 그리고 앙리 4세는 관용을 통해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프랑스를 회복시킨 왕으로 잘 소개되어 있지만, 중재자로서 숨은 공로자 역할을 했던 모르네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는 모르네를 직접 소개하는 연구는 부재한 상황에서, 모르네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2편의 논문이 존재한다. 임승휘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의 정치이론(1572~1584)」⁴⁾에서는, 모르네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반폭

3) 일곱 차례의 개신교 총회들은 다음과 같다. Mantes(1593년 11월 8일-1594년 1월 23일), Sainte-Foy(1594년 7월 18일-1594년 7월 31일), Saumur(1595년 2월 24일-1595년 3월 20일), Loudun(1596년 4월 1일-1596년 10월 18일), Vendôme(1596년 11월 23일-1597년 2월 7일), Saumur(1597년 3월 5일-1597년 5월 2일), Châtellerauld(1597년 6월 16일-1598년 6월 1일)

4) 임승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의 정치이론(1572~1584)」, 『프랑스사연구』 제15호, 한국

군론』의 인민주권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박효근의 「종교개혁 시대 프랑스에서 위그노 여성으로 산다는 것-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경우」⁵⁾는 모르네의 아내인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르네를 언급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모르네의 정치이론과 종교이론에 대한 연구서가 다소 존재하지만,⁶⁾ 낭트칙령의 여정에서 모르네가 보여준 중재자 역할을 다룬 연구서는 단 두 개뿐이다.⁷⁾ 그 중에서 본 발표문은 위그 도씨(Hugues Daussy)의 『위그노들과 왕,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의 정치적 투쟁(1572-1600)』(*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1572-1600)*)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르네라는 낭트칙령의 숨은 공로자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한 중재자들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중재자 리더십의 덕목 ① -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라

중재적 리더십은 대립하는 두 세력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두 세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모르네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왕과 위그노를 모두 설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르네가 왕과 위그노 양측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선, 모르네는 앙리 4세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였다. 그는 1576년부터 나바르의 왕이었던 앙리 4세를 섬겼고, 위그노와 가톨릭 세력이 대치하던 종교전쟁과 프랑스 왕위를 위해 투쟁하던 순간에도 앙리 4세와 함께 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모르네는 앙리 4세와 자유롭게 서신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모르네는 위그노들 사이에서도 깊은 신뢰를 받았다. 그의 개신교에 대한 헌신, 저술 활동을 통해 드러난 개신교 옹호자 역할, 그리고 그의 성품에서 보여지는 공정함과 정직함이 위그노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조언은 위그노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대립하는 두 세력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모르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 위그노로서의 삶

모르네는 1549년 11월 5일 부이(Buhy)의 영주 자크 드 모르네(Jacques de Mornay)와 부리

프랑스사학회, 2006.

- 5) 박효근, 「종교개혁 시대 프랑스에서 위그노 여성으로 산다는 것-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경우」, 『프랑스사연구』 제30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14.
- 6)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만하다. Nicolas Fornerod, “Duplessis-Mornay et l'idée de concile”, *Albineana, Cahiers d'Aubigné*, 18(1), 2006, pp.357-380; James B. Collins,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à l'Etat français: Duplessis-Mornay et la transformation de la citoyenneté en France”, *Albineana, Cahiers d'Aubigné*, 18(1), 2006, pp.325-338; Didier Poton, “Philippe Duplessis-Mornay (1617-1621): entre défense intransigeante des Eglises et soumission raisonnée au roi”, *Albineana, Cahiers d'Aubigné*, 18(1), 2006, pp.481-496; Arthur L. Herman, “Protestant Churches in a Catholic Kingdom: Political Assemblies in the Thought of Philippe Duplessis-Mornay”,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21, No.4, 1990, pp.543-557.
- 7) Nicolas Fornerod, “L'édit de Nantes et le problème de la coexistence confessionnelle dans la pensée de Philippe Duplessis-Mornay”,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Vol.144, 1998, pp.225-252;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1572-1600)*, Genève: Librairie Droz S.A, 2002.

(Bourry)와 바르드(Vardes) 영주의 딸 프랑수아즈 뒤 벡(Françoise du Bec)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사실 모르네의 아버지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의 삼촌 베르탱 드 모르네(Bertin de Mornay)은 사메르(Samer aux bois) 수도원장이자 보베(Beauvais)의 고위성직자로서 일직부터 둘째인 모르네에게 자신의 성직록을 물려주고자 했을 정도로, 모르네는 가톨릭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특히 아버지에 의해 5살부터 한 신부에게 맡겨져 가톨릭 교육을 받았고, 1557년부터는 파리에 있는 리지외 콜레주(Collège de Lisieux)에 입학한 이후 가톨릭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 가톨릭 성무일과에 맞춰 생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 없이 1556년 삼촌이 사망하였고, 이어서 1559년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모르네는 가톨릭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리고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남편의 종교적 엄격함 때문에 비밀리에 개신교에 동조하고 있던 어머니가 1560년 자녀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개종함으로써 그의 종교도 개신교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모르네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개신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성경공부를 함으로써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모르네 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⁸⁾ 이때부터 모르네는 소르본 대학에서 승인한 신약성경 판본을 세심하게 검토했고, “신약 성경에 연옥과 성인들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가톨릭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모르네는 다양한 책들을 참고하면서 더 깊이 있는 성경연구에 몰두했고, 마침내 성찬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모르네는 가톨릭을 멀리하며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게 생활했는데, 모르네 부인은 그 예로서 1562년 파리에서의 도피를 언급하고 있다. 1562년 모르네는 파리에 있는 봉쿠르 콜레주(Collège de Boncourt)에서 수학하고 있었는데, 가톨릭 지도자인 기즈 공작의 군대가 파리 근교의 바시에서 예배를 드리던 위그노들에 대해 학살을 감행하자(Massacre de Wassy, 1562년 3월 1일), 종교개혁에 동참한 모르네에게는 파리가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위험을 인지한 그의 어머니가 집사 구오트랭(Crespin Guaulttrin)을 보내 모르네를 고향으로 데려오게 했으니 말이다. 물론 모르네는 파리에 남아 양심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목숨 건 탈출을 감행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고, 모르네 부인은 남편의 종교적 신념의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단순한 일화를 기록으로 남겼다.

모르네는 약한 체력 때문에 활동가보다는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등 고대 언어와 수사학을 공부한 뒤, 당시 귀족들의 이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유럽 여행을 위해 18살이었던 1568년 초여름 파리를 떠나 독일로 향했다. 일반적으로 귀족들이 여행을 통해 해당국가들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모르네는 이에 더해 유럽의 명망 있는 대학들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 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법학 강의를 수강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책 박람회에 참석했으며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파도바 대학에서 법학 강의를 들었다. 이후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한 모르네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등으로 이어지는 3년 간의 여행을 통해 지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다. 특히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습득하면서 그곳의 중요 인물들과 맺은 유대관계는 이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들린 네덜란드에서 에스파냐의 가톨릭 군주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네덜란드 개신교 세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모르네는, 이것이 가톨릭 군주들이 유럽에서 개신교를 근절하기 위해 계획한 거대한 프로젝트임을 파악하고, 추후 유럽의 세력 균형과 종교 균형을 위해 프랑스 위그노들과 네덜란드 개신교도들이 연대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영국을 짧게 경유한 모르네는, 22세의 나이에 4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1572년 초여름 프랑스

8) Charlotte Duplessis-Mornay,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M^{me} de Witt(éd.), Tome I, Paris: Libraire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France, 1868, p.18.

에 도착했다. 4년 동안의 여행은 모르네를 내면적으로 단단해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사람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종교를 둘러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 프랑스는 3차 종교 전쟁이 끝나고 1570년 8월 8일 체결된 생-제르맹(St. Germain) 평화로 인해 내전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때 모르네는 위그노의 지도자 콜리니 제독(Gaspard de Coligny)을 만났는데, 모르네 부인에 따르면, 위베르 랑게(Hubert Languet)⁹⁾가 “23살의 어린 나이이지만 그의 능력을 보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한다. 당시 콜리니 제독은 국내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국외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을 추구했고, 그 일환으로 프랑스 왕이 네덜란드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의 여행을 통해 그곳의 정치상황을 직접 경험한 모르네에게 관심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모르네는 콜리니 제독 곁에서 위그노들을 위한 그의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1572년 8월 24일 앙리 드 나바르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위그노들에 대한 대량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 이 성바르텔미 축일의 학살(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다. 콜리니의 암살에서 시작된 이 학살에서 콜리니 곁에서 활동했던 모르네는 겨우 목숨을 건졌고, 그 길로 1572년 9월 2일 영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이로써 그의 첫 활동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끝이 났지만, 영국에서의 망명생활은 모르네가 훗날 앙리 드 나바르의 외교관으로 활약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왜냐하면 모르네는 그곳에서 프랜시스 월싱엄(Francis Walsingham)을 통해 엘리자베스 1세의 재상 로드 버리(Lord Burghley)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 페늘롱(La Mothe Fénelon)을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처음 영국에 도착했을 때만해도 프랑스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프랑스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모르네는, 라 누(François de La Noue)의 간청으로¹⁰⁾ 1573년 가을 프랑스로 돌아왔다. 이후 모르네는 5차 종교전쟁이 발생했을 때 80명의 귀족과 5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병력을 이끌고 전쟁에 직접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기도 했지만, 특히 동종교인들의 이익을 펜으로 대변하기 위해 논객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1576년 모르네는 『블루아 삼부회를 위한 평화 건의안』(*Remonstrance aux Etats de Blois*)를 작성했는데, “아무리 최고의 전쟁이라고 해도 평화보다 더 가치가 있지는 않다(Il n'y a telle paix qui ne vaille mieux que la meilleure guerre du monde)”¹¹⁾라고 언급했듯이, 평화를 촉구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위그노들과 가톨릭교도들 간의 공존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모르네는 위그노들이 가톨릭교도들과 같은 기독교인이며 같은 신과 같은 성경을 믿는다는 점과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같은 애국심과 충성심 및 외국에 대한 같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일상에서 개인적으로는 서로 친구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르네가 평화를 강조한 것은 평화 속에서 개신교가 자리 잡고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9) 위베르 랑게는 원래 프랑스의 부르그뉴 사람으로서 위그노였지만, 박해를 피해 독일로 갔고, 모르네를 만났을 때에는 작센 선제후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르네가 프랑크푸르트 책 박람회에 갔을 때 만났는데, 랑게는 모르네에게 여행에 대한 조언을 하고 베네치아 공화국의 프랑스 대사에게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다. Hugues Daussey, *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1572-1600)*, p.52.

10) Charlotte Duplessis-Mornay,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p.74. 철팔이라고 불린 프랑수아 드 라 누에는 1531년에 태어났으며, 앙리 4세의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온건하고 덕망있는 품성으로 위그노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전사로서 이름을 떨쳤는데,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종교전쟁에서 활약했으며, 1591년에 랑발(Lamballe) 공성전에서 사망했다.

11) Duplessis-Mornay, “Remonstrances aux Etats de Blois pour la Paix, sous la personne d'un Catholique romain, l'an 1576”, *Mémoires et Correspondence*, publiés par A.-D. de La Fontenelle de Vaudoré et P.-R. Auguis, Genève: Slakine Reprints, 1824-1825, Tome II, p.43.

모르네의 관심은 진정한 종교인 개신교가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렇듯 개종 후 모르네는 개신교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위그노 진영에서 두터운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2) 왕과 함께 한 시간

다른 한편 모르네는 앙리 4세와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다. 그 관계는 1576년부터 형성된 것으로 모르네는 앙리 4세가 앙리 드 나바르로서 나바르 왕이었던 때부터 가장 힘든 순간과 가장 영광스런 순간들을 함께 하면서 그의 가장 믿을만한 동반자이자 고문으로 앙리 4세 곁을 지켰다.¹²⁾ 모르네에 대한 앙리 4세의 특별한 감정은 2개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앙리 4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와의 이혼 협상과 신성동맹의 마지막 저항자인 메르퀘르 공작(Philippe-Emmanuel de Lorraine, duc de Mercœur)과의 항복 협상을 모르네에게 맡겼던 것이다.

앙리 4세와 모르네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576년의 일이었는데, 당시 앙리는 성바르텔미 축일의 학살 이후 궁정에 잡혀있다가 막 탈출하여 자신의 고문단을 강화하기 위해 몇몇 능력있는 인물들을 추천받았다. 이때 가톨릭교도였던 푸아(Louis de Foix)와 위그노였던 라 누가 동시에 모르네를 추천했다.¹³⁾ 양쪽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기 때문에 앙리는 누구보다도 모르네를 초대하고 싶어 했고,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다. 모르네는 1576년 11월 공식적으로 앙리에게 합류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종교적 공존을 실현할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앙리의 경우, 주변에 위그노들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도들도 있었고, 자신의 귀엔 관구에서 불리외직령이 명한대로 종교적 공존을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에,¹⁴⁾ 모르네는 앙리에게 기대를 걸고 그에게 합류했다.

낭트칙령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르네가 앙리에게 봉사한 기간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1576년 이후 앙리가 위그노 지도자였던 시기, 1584년 이후 앙주 공작의 죽음으로 앙리가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되었던 시기, 그리고 1589년 이후 앙리 3세가 암살되고 앙리가 왕이 되었지만 대관식을 치루지 못한 시기이다. 세 시기동안 앙리를 위해 모르네가 수행했던 주된 역할은 앙리의 적들에 대하여 여론전이자 심리전이라 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propagande)를 형성하는 일이었다.

첫 번째 시기에 모르네는 『나바르의 왕이 무장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명분들에 대한 선언』(*Déclaration des justes causes qui ont contraint le roy de Navarre de prendre les armes*, 1577)을 작성하여, 앙리가 프랑스를 위해 왕을 현혹시키고 왕국을 분열시키는 신성동맹과 싸우기 위해 무장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르네는 먼저 앙리를 “프랑스의 첫 번째 혈통 귀족”(premier du sang et pair de France), 즉 전직 왕의 아들들을 제외하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합법적인 계승자로 묘사한다. 현직 왕의 형제를 제외하고 첫 번째 왕위계승자로 앙리를 위치시킨 것은, 그가 프랑스 왕국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적합한 사람임을, 그래서 왕이 아니라 왕국을 파멸로 이끄는 신성동맹에 대항해 무기를 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에 모르네는 위그노인 앙리의 왕위계승을 합법화하는 프로파간다를 형성했다. 1584년 6월 10일 앙리 3세의 유일한 형제인 앙주 공작이 사망하자 앙리가 왕위계승자가 되었다. 그러

12) 본 장에서는 앙리 4세를, 그가 왕위를 계승했던 1589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앙리로, 이후는 앙리 4세로 표현했다.

13) 구르송 백작인 루이 드 푸아는 1576년 8월 앙리 3세의 명령으로 앙리 드 나바르에게 파견되어 그의 의도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나바르 왕에게 매료된 그는 나바르에게 계속 봉사하기로 했다. Charlotte Duplessis-Mornay,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p.111,

14) “Edit du Roi sur la pacification des troubles de son royaume, contenant le reglement que sa Mageste veut et entend estre gardé pour l’entretenement d’icelle”, André Stegmann(présentés et commentés), *Édits des Guerres de Religion*,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79, pp.97-98.

나 완고한 가톨릭 세력을 대표하는 기즈 공작과 신성동맹은 위그노인 앙리의 왕위계승을 부정하였고, 따라서 앙리 3세로 하여금 1585년 7월 7일 체결된 느무르 조약(traité de Nemours)을 통해 개신교 예배를 금지하고 위그노들에게 개종을 강제하면서 ‘앙리 드 나바르와 앙리 드 콩데는 왕위계승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네는 먼저 신성동맹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들의 목적이 프랑스 왕관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야망을 강조했고,¹⁵⁾ 신성동맹과 기즈 가문이 ‘에스파냐와 결탁한’ 세력들로서 그들의 또다른 진정한 목적이 “에스파냐에게 프랑스를 팔고, 프랑스를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¹⁶⁾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모르네는 살리법을 근거로 앙리의 합법성을 주장했다는데, 살리법에 의하면 프랑스 왕권은 남자에게만 계승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발루아 왕가의 상속자가 없는 만큼, 첫 번째 왕족으로서 앙리가 계승권을 갖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¹⁷⁾

또한 ‘이단의 통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신성동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가톨릭교도들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¹⁸⁾는 성서 내용을 인용하여 앙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교황 식스투스 5세가 앙리의 왕위계승권을 박탈한 교서(1585년 9월 9일)에 대해서는 교황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갈리카니즘(Gallicanisme-프랑스 국가교회주의)¹⁹⁾에 호소했다.

세 번째 시기는 1589년 앙리 3세가 암살되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앙리는 소위 ‘왕관 없는 왕’으로 아직 대관식을 치루지 못한 시기였다. 앙리 3세는 사망 직전 개종을 권유하면서 앙리를 계승자로 지목했지만, 그가 위그노라는 점 때문에 아직 대관식을 치루지 못한 시점이었다. 이 시기 모르네는 ‘앙리 4세가 개신교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의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했다. 모르네는 전쟁에서 승기를 잡음으로써 가톨릭을 제압하기를 원했지만, 가톨릭 측을 지원할 에스파냐의 군대가 프랑스로 진입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모르네는 ‘왕의 개종 전 교육’이라는 방침을 제시하며 가톨릭교도들을 진정시켰고, 시간을 끌어 왕의 개종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위그노들은 앙리 4세가 개종할 것으로 생각하고 불안해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⁰⁾ 반면 왕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가톨릭 세력도 고려해야 하는 앙리 4세로서는 과거 동료였던 위그노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평했다. 양자 사이의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모르네의 몫이었다. 모르네는 한편으로는 위그노들을 향한 왕의 마음을 전달하여 위그노들을 안심시켰고,²¹⁾ 다른 한편으로는 위그노들의 반란을 경고함으로써 왕이

15) “Déclaration du roy de Navarre, de monseigneur le prince de Condé, de M. le duc de Montmorency, etc., sur la paixfaite avec ceulx de la maison de Lorraine, chefs et principaulx auteurs de la Ligue, au préjudice de la maison de France ; dressée par M. Duplessis”(Saint-Paul de Cadejoux, 10 août 1585), Duplessis-Mornay, *Memoires et Correspondence*, Tome III, p.160.

16) “Remonstrance à la France sur la protestation des chefs de la Ligue, faicte l’an 1585”, Duplessis-Mornay, *Ibid.*, p.60.

17) Hubert Méthivier, 이영림 역, 『앙시앵 레짐』, 서울: 탐구당, 1991, pp.93-97.

18) 신약성서, 로마서 13장 1절-2절(개역개정판)

19) 16세기 프랑스 국가교회주의의 주된 두 가지 원리는 교황의 영적 권위는 공의회와 교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만 한다는 것과 모든 세속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완전한 프랑스 왕권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Jonathan Powis, “Gallican Liberties and the Politics of Later Sixteenth-Century France”, *The Historical Journal*, Vol.26, No.3, 1983, p.521.

20) 이는 앙리 4세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주 종교를 바꾸어 왔기 때문이다. 앙리 4세의 잦은 개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충현, 「앙리 4세의 개종 원인에 대한 고찰」,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16집, 한국세계문화학회, 2007, pp.23-56.

개신교를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앙리 4세는 1591년 7월 4일 두 개의 문서를 발표했다. 하나는 가톨릭을 위한 것으로서 생-클루 선언(Déclaration de St-Cloud)²³⁾을 확증하여 가톨릭에 대한 보호와 개종을 위한 자신의 교육을 보증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위그노들을 위한 망트 칙령(Édit de Mantes)으로서, 앙리 3세와 신성동맹의 칙령들을 파기하고 푸아티에 칙령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물론 고등법원들은 망트칙령의 등록을 거부했고, 위그노들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모르네로서는 소득이 없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왕의 그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중재자 리더십의 덕목 ② - 객관성을 유지하라

중재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능력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다. 중재자가 감정에 휘둘리거나, 양측의 요구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흔들린다면 상호불신에 의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 모르네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왕과 위그노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루었다.

본 장에서는 모르네가 어떻게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며 중재자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593년 7월 25일 앙리 4세는 결국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결국 모르네가 마지막까지 지켜내길 원했던 단 한가지가 무너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모르네의 앙리 4세에 대한 충성심이 변화된 것은 아니며, 왕과 위그노들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멈춘 것도 아니다.

1593년 11월 8일 망트에서 왕과 위그노들 사이에 칙령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망트총회는 낭트칙령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향후 5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개최된 총회들을 통해 낭트칙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모르네는 앙리 4세의 요구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 과정에서 왕과 위그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특히 왕은 위그노들에 대한 그의

21) “Lettre de Monsieur Duplessis à MM. des Églises de delà Garonne”(8 octobre 1590), Duplessis-Mornay, *Memoires et Correspondence*, Tome IV, p.489. “왕이 백성들의 안정과 만족을 바라신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 문제와 양심의 평화와 관련된 당신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칙령은 이 왕국의 왕자들과 주요 관리들의 조언과 권위 없이는 작성될 수 없습니다.”

22) “Discours envoyé au roy en mars 1591, sur ce que Sa Majesté retardoit la publication de la déclaration; fait par M. Duplessis”, *Ibid.*, Tome V, pp.40-41. “아이들은 세례없이 죽어야 합니까. 결혼식은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시신은 무덤없이 남겨져야 합니까. 온갖 스캔들, 소송, 비인간성으로 인해 이러한 일은 매일 반복됩니다 [...] 기도하는 것,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파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며 매일 체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관대함으로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며, 요청하기 전에 먼저 허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왕이 종교에 대한 열정을 잃었거나 더 이상 종교적으로 엄격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왕에 대한 존경을 줄일 것입니다.”

23) 이 선언에서 앙리가 약속했던 것은 일곱 가지인데, 처음 세 가지가 가톨릭교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상 그리고 내용상의 어떤 쇄신도 없이 완전하게 프랑스 왕국에서 가톨릭을 유지하고 보존할 것이다. 둘째 6개월 이내에 혹은 가능하면 그 전에, 훌륭하고 합법적이며 자유로운 전국공의회에 의해 교육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결정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셋째, (지금 예배가 행해지는 곳을 제외하고) 가톨릭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없을 것이다. David Potter(ed. and trans.), *The French Wars of Religion: Selected Documents*,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79, p.225.

영향력을 알고 모르네를 적극활용했다.

앙리 4세는 이 기회를 통해 개종 이후에도 자신의 애정이 변함없음을 강조했고 위그노들의 불만사항을 경청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위그노들도 왕이 보여준 ‘진심어린 애정’에 감격해 했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푸아티에 칙령의 회복과 구두로 전달된 목사부양에 대한 약속을 견지하는 왕측의 입장과, 문서화된 분명한 약속을 원하는 위그노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총회는 소득도 없이 1594년 1월 23일 새로운 총회 개최를 약속받고 해산되었다.

이후 총회는 1594년 7월 15일 생트-푸아, 1595년 2월 24일 소뮈르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앙리 4세가 ‘푸아티에 칙령의 회복’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기 때문에 진전은 없었다. 세 번째 회의까지 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자 위그노들은 드디어 불만을 드러내었고, 푸아티에 칙령을 보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새로운 칙령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칙령에는 왕국 전체에서 개신교 예배의 인정, 공적 교부금이나 교회 수입 혹은 십일조에 의한 목사들의 부양, 모든 고등법원에서의 동수법정 수립, 위그노들에 대한 모든 관직의 허용, 충분한 수비대를 가진 모든 안전지대의 유지 등이 포함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앙리 4세가 또 다시 거절하자 위그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1595년 3월 20일 소뮈르총회는 폐회되었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모르네가 했던 중재자 역할을 무엇인가. 그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양자의 단절을 막아서 만족스러운 평화를 얻는 것이었다. 평화만이 왕권강화와 개신교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앙리 4세에게 위그노들을 만족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도, 위그노들의 비타협성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태도와 요구들을 온건하게 만들려는 이중전략을 구사했다. 따라서 그는 왕에게 과거 동종교인들이었던 위그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강한 어조로 요청했다.²⁴⁾ 반면 위그노들에 대해서 모르네는, 유토피아적인 요구들로 단절의 위험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필수적인 것에 만족하는 선에서 양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전쟁을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저는 잘 관리된 용인가능한 평화가 가장 유리한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리가 수립해야 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사의 부양과 우리의 장소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얻기 어려운 여러 가지와, 얻는다고 해도 쓸모없는 것들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²⁵⁾

모르네가 말하는 무용한 것은 고등법원을 통과하기 힘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오랜 기간 왕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치가의 관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지 개신교에만 관심을 두는 위그노들의 관점과는 다른 매우 실용적인 것이었다. 모르네의 이러한 이중전략과 실용주의적 접근은 대립이 극대화되어 결별 직전까지 갔던 1596년 루딩총회에서 그 진면목이 발휘되었다.

루딩총회는 1596년 4월 1일 개최되었지만, 상황은 위그노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595년 9월 17일 앙리 4세는 교황 클레멘스 8세로부터 사면을 받았고, 조건으로 교황이 요구

24) “Lettre de Monsieur Duplessis au roy”(4 avril 1594), Duplessis-Mornay, *Memoires et Correspondence*, Tome VI, p.42. “매우 겸손하게 왕께 청하오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받아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칙령 확인이 어디서나 거부되고 있고, 고등법원 법정들이 종교인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동맹의 사람들이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반면, 자신들은 가장 작은 역할에서도 부당하게 배제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왕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왕의 권위를 온전히 발휘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5) “Lettre de Monsieur Duplessis à Monsieur de Clarend”(27 mars 1595), *Ibid.*, p.248.

한 조항들에 복종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은 위그노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들이었다.²⁶⁾ 게다가 1596년 초에 신성동맹의 지도자들인 마옌 공작(duc de Mayenne)과 에페르농 공작(duc de Épernon)이 항복했고, 역시 왕은 항복조건으로 위그노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승인했다. 예를 들어 마옌이 원하는 지역에서는, 이전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예배가 금지될 것이고 가톨릭교도들에게만 관직이 허용될 것이었다.

불리한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한층 불안해진 루터총회의 위그노 대표들은 다시 한번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새로운 평화칙령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596년 4월 9일 작성된 「시민적 평등을 누릴수 있도록 하는 어떤 평화칙령」을 간청하는 편지와 함께 그르노블 고등법원의 법관(magistat)이자 도피네 지방 대표인 뵈송(Marc Vulson)을 왕에게 파견했다. 당시 왕의 요청으로 루터에 있었던 모르네는 위그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고 최근의 상황들이 그들의 실망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뵈송의 방문이 말썽없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왕을 설득했다.²⁷⁾

그러나 앙리 4세는 마음을 열 상황이 아니었다. 1596년 4월 에스파냐 군대가 칼레를 장악했고, 1595년 11월부터 앙리가 포위공격을 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라 페르(La Fère)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르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전의 제안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산 명령까지 내렸다. 뵈송을 통해 왕의 답변을 접한 위그노들은 왕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1596년 5월 25일부터 긴급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왕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다.²⁸⁾

양측의 극한 대립 속에서 모르네는 중단을 피하고 전쟁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다. 우선은 루터총회 의장인 라 누(Odet de la Noue)에게 편지를 써서 위그노들의 절제를 촉구했다. 모르네는 편지에서 “왕과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²⁹⁾ 왕께 간청하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반대로 경고하며 압력을 가하기도 했는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 각자 흩어지면 다시 모이기 어렵거나 혹은 모여서 전쟁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르네는 협상의 장기화와 결실의 부재로 위그노들이 매우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것으로는 진전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왕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고

26) 교황의 사면 조건은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왕위계승자인 7살의 콩데 군주 앙리 드 부르봉(Henri de Bourbon)을 가톨릭 안에서 양육할 것, 베아른(Béarn)에 가톨릭을 재수립할 것, 트렌트공의회를 공표할 것, 이단에게 성직록을 배제할 것, 가톨릭 성직자들을 존중하고 가톨릭교도들을 호의적으로 대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또한 개인적으로 앙리 4세는 가톨릭 의식들을 준수할 것을 맹세해야 했는데, 매년 네 번 고해 성사와 성찬을 받아야 했으며,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매주 일요일 대미사에 참석해야 했다. 또한 매일 묵주 기도를, 매주 토요일에는 로사리오 기도를 바쳐야 했으며, 왕국의 각 지방과 베아른에 남는 수도원을 세워야 했다. Victor Martin, “La repris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e Saint-Siège en 1595”, *Revue des sciences religieuses*, Tome 1, 1921, p.377.

27) “Lettre de Monsieur Duplessis au roy”(11 mai 1596), Duplessis-Mornay, *Memoires et Correspondence*, Tome VI, p.473.

28) 긴급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개신교 예배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 위그노들이 장악한 지역에서 가톨릭 미사를 회복시키지 말 것, 이전에 허용되었던 지역에서 개신교 예배가 금지된다면 해당 지역의 개신교 위원회는 보복조치로서 개신교가 장악한 지역에서 미사를 금지할 것, 목사들의 부양비는 십일조와 다른 교부금을 통해 해결할 것, 모든 수단을 다해 안전지대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안전지대 수비대 비용을 왕의 재정을 압류하여 해결할 것, 만일 안전지대가 가톨릭 수중으로 떨어진다면 보복으로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빼앗을 것 등이 그것이다. Hugues Daussey, *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1572-1600)*, p.537.

29) “Lettre de Monsieur Duplessis à Monsieur de La Noue”(28 mai 1596), Duplessis-Mornay, *Memoires et Correspondence*, Tome VI, pp.484-485.

앙리 4세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필요 없이 왕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왕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 저는 왕께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혼란이 초래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왕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왕의 고문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톨릭교도이지만 평화에 뜻이 있는 명망있는 사람을 보내어 전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의 불만을 듣게 하십시오. 저는 에메리 씨(M. d'Emery)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적인 것에 불만이 많기 때문이며 그가 평화애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굳어지고 실행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처방책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치지 않으시기를 간청드립니다.”³⁰⁾

모르네의 편지를 받고 심각성을 깨달은 앙리 4세는, 모르네의 조언대로 위그노 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위원들을 파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르네는 왕의 의지를 총회에 전달하는 한편 그들이 긴급조치를 위해 해산하지 않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파견한 비크(Méry de Vic)와 칼리농(Soffrey de Calignon)이 7월 20일에 루딩에 도착함으로써 극적으로 왕과 위그노들 사이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협상 재개라는 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전 없이 루딩총회는 폐회되고 1596년 11월 23일 방돔에서 새로운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때부터는 앙리 4세의 양보로 위그노들이 원했던 새로운 칙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고자했던 위그노들은, 특히 에스파냐 군대와 싸우는 앙리 4세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하려 했고, 그것은 에스파냐가 아미앵을 함락했던 1597년 3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총회는 방돔에서 소뮈르로, 그리고 다시 샤텔로로 옮겨지면서 진행되었다.

1597년 10월 협상의 최종단계로 보여지는 시점에서 85개 조항들 중에서 22개 조항이 여전히 논의 중에 있었는데,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사법영역으로서, 특히 파리 고등법원에 칙령법정을 수립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교착상태에 직면하여 다시 불필요한 과도함으로 인해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본 모르네는, 빨리 문제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왕보다는 위그노들이 양보하도록 설득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께서 이번 여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들었고, 일이 더 길어지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임을 저는 매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동일한 충성과 성실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저를 이용해 주십시오.”³¹⁾

모르네가 이렇게 설득한 이유는 앙리 4세의 고문으로서, 아미앵 재탈환 이후 에스파냐와의 평화가 임박해 있으며, 마지막 신성동맹의 지도자인 메르퀘르도 군사작전이든지 협상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항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생각에 이렇게 되면 어떤 적도 없는 상황에서 아미앵 재탈환 때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위그노들에게 왕이 새 칙령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30) “Lettre de Monsieur Duplessis au roy”(2 juin 1596), *Ibid.*, pp.488-489.

31) “Lettre de Monsieur Duplessis à Messieurs de l'assemblée de Chastellerault”(1 Novembre 1597), *Ibid.*, Tome VII, pp.371-372.

따라서 에스파냐의 조약이 성사되기 전에, 메르케르가 항복하기 전에 협상이 타결되어야만 했다. 드디어 모르네의 말대로 3월 20일 메르케르가 항복을 했다. 위기를 느낀 위그노들은 서둘러 왕과 합의했고, 1598년 4월 13일 공식적으로 낭트칙령을 체결했다.

1598년 5월 2일에는 에스파냐와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모르네의 예상대로 기존의 평화칙령들보다 더 많은 양보를 보장한 낭트칙령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르네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위그노들과 왕에게 적합한 조언함으로써 양자를 중재했다. 이로 인해 위그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칙령을 얻었으며, 왕은 신성동맹의 항복과 에스파냐와의 평화를 이루었으니, 평화를 바탕으로 개신교와 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모르네의 이상은 이렇게 실현되었다.

4. 결론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는 16세기 프랑스 종교전쟁의 와중에 앙리 4세와 위그노 사이를 중재하여 역사상 가장 관용적인 낭트칙령의 발표에 기여했다.

1593년부터 1597년까지 앙리 4세는 낭트칙령 협상을 위해 위그노들에게 개신교 총회를 허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모르네는 한편으로는 개신교 신학자로서 위그노들을 대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앙리 4세의 참사원으로서 왕의 의지를 대표하였다. 자칫 이중 스파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르네는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신뢰 관계와 실용주의적 정치감각을 바탕으로 양자를 중재하며 위기를 돌파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1596년 루딩총회와 1597년 샤텔레총회 기간 앙리 4세와 위그노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단절을 피하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양측을 중재한 것도 모르네였다. 루딩총회 기간에는 위그노들이 새로운 칙령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앙리 4세에게 새로운 칙령을 촉구했고, 샤텔레총회 기간에는 국내외 정치상황이 위그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감지하고 서둘러 칙령에 합의하도록 위그노들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모르네의 노력으로 낭트칙령 협상은 여러 번의 위기에도 단절없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1598년 4월 13일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1562년 시작되어 30년 넘게 지속된 종교전쟁이 종식되었고, 위그노들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평화칙령들보다 더욱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앙리 4세는 저항하는 가톨릭 신성동맹 세력과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를 공격해 온 에스파냐 군대를 물리치면서 국내외적인 평화를 이루었다.

장기간 프랑스를 괴롭혔던 종교적 내전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프랑스인들은 평화기를 맞이하면서 이 업적을 이룬 앙리 4세를 찬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왕과 위그노 사이의 중재를 위해 봉사했던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잊혀진 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논문에서 진행된 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주인공들을 빛나게 해준 숨은 중재자들의 노력을 발굴하는 후속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차 문헌

- Duplessis-Mornay. Memoires et Correspondence, publiés par A.-D. de La Fontenelle de Vaudoré et P.-R. Auguis, Genève: Slakine Reprints, 1824-1825, Tome II-VII.
- Duplessis-Mornay, Charlotte.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M^{me} de Witt(éd.), Tome I, Paris: Libraire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e France, 1868
- Potter, David(ed. and trans.). The French Wars of Religion: Selected Documents,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79.
- Stegmanne, André(présentés et commentés). Édits des Guerres de Religion, Paris: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1979.

2차 문헌

- 김충현, 「앙리 4세의 개종 원인에 대한 고찰」,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16집, 한국세계문화학회, 2007.
- 박효근, 「종교개혁 시대 프랑스에서 위그노 여성으로 산다는 것-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경우」, 『프랑스사연구』 제30호, 2014.
- 신인철, 『링커십』, 서울: 한즈미이어, 2017.
- 임승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의 정치이론(1572~1584)」, 『프랑스사연구』 제15호, 2006.
- Hubert Méthivier, 이영림 역, 『앙시앵 레짐』, 탐구당, 1991.
- Collins, James B.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à l'Etat français: Duplessis-Mornay et la transformation de la citoyenneté en France”, Albineana, Cahiers d'Aubigné, 18(1), 2006.
- Daussy, Hugues. 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1572-1600), Genève: Librairie Droz S.A, 2002.
- Fornerod, Nicolas. “L'édit de Nantes et le problème de la coexistence confessionnelle dans la pensée de Philippe Duplessis-Mornay”,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Vol.144, 1998.
- Fornerod, Nicolas. “Duplessis-Mornay et l'idée de concile”, Albineana, Cahiers d'Aubigné, 18(1), 2006.
- Herman, Arthur L. “Protestant Churches in a Catholic Kingdom: Political Assemblies in the Thought of Philippe Duplessis-Mornay”,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21, No.4, 1990.
- Martin, Victor. “La repris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e Saint-Siège en 1595”, Revue des sciences religieuses, Tome 1, 1921.
- Poton, Didier. “Philippe Duplessis-Mornay (1617-1621): entre défense intransigeante des Eglises et soumission raisonnée au roi”, Albineana, Cahiers d'Aubigné, 18(1), 2006.

Powis, Jonathan. “Gallican Liberties and the Politics of Later Sixteenth-Century France”, *The Historical Journal*, Vol.26, No.3, 1983.

김충현의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에 대한 논평문

임채광 (대전신학대학교, 철학)

갈등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현실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조정, 중재하는 능력은 국가나 사회의 각 조직의 리더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요청되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김충현 교수(이하 발표자)는 서양사 연구자로서 프랑스 역사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원활히 조정하고 해소한 사례를 들어 연구하였다. 근대 초기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당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한 낭트칙령이 1598년 4월 13일에 선포된다. 이 때 대립하는 양측을 중재하여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필리프 뒤플레시스-모르네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이 그러하듯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해관계와 세계관의 차이는 사유체계와 논리를 지배한다. 결국, 칼뱅의 종교개혁을 정치적 반역이라고 생각한 기존의 가톨릭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을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 프랑스어 ‘위그노(Huguenot)’라 부르고 핍박하였다. 이들의 갈등은 프랑스 최초의 종교 전쟁이었던 ‘위그노전쟁’으로 비화한다. 신교와 구교 모두에게 피해가 컸던 이 전쟁은 그 자신도 위그노였던 앙리4세가 가톨릭교도가 되고, 위그노에겐 예배권과 안전을 위한 군사적 조치를 공표하는 ‘낭트칙령’을 통해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역사의 기록에 언급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지만, 발표자에 따르면 앙리4세의 측근이자 위그노였던 모르네의 지혜와 리더십은 “낭트칙령을 탄생시킨 숨은 공로자”(2쪽)였다. 발표자는 모르네의 리더십을 “중재자 리더십”이라 부르고, 이는 단순한 “리더도 팔로워도 아니면서 (이질적인)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갈등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협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십”(1쪽)이라고 주장한다.

모르네를 통해서 드러난 중재자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 경험”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모르네는 구교와 신교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이로서 양측 모두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신학자이자 작가였던 모르네는 프랑스 외에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였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보헤미아 등을 두루 여행하면서 균형 잡힌 식견을 갖게 되었다.(4쪽)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두 종파 모두 평화와 공존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통해 양측이 갖고 있는 혐오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하였다.(6쪽)

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은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 행정 조치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앙리4세와의 특별한 신뢰 관계에 있었다.”(6쪽) 첫 인연을 맺게 된 1576년 이후로부터 20여년 이상 왕을 돕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왕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르네는 한편으로는 위그노들을 향한 왕의 마음을 전달하여 위그노들을 안심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그노들의 반란을 경고함으로써 왕이 개신교를 위해 결단을 내릴”(8쪽) 수 있도록 도왔다.

문화적 이해능력과 함께 중재자 리더십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객관성의 유지”에 있

다. 양측의 극단적 대립의 배후에는 이들 모두 추구하는 근본 가치가 “평화를 얻는 것”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며 “위그노들의 비타협성을 비판”하는 등 즉흥적이거나 감정 또는 편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다.(9쪽) 모르네가 신교와 구교간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그 자신은 위그노였으나 한쪽의 진영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평화의 칙령을” 달성하려는 목표 아래 “이중전략과 실용주의적 접근”을 병행하는 설득의 기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10쪽)

발표자가 강조하듯이 현대사회에서는 소통능력은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어떤 조직에서나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이해 주체들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능한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표문은 이러한 견해 아래 중재자 리더십의 특징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평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적 흐름을 볼 때 낭트칙령은 1685년 10월 루이14세에 의해 선포된 퐁텐블로 칙령으로 인하여 폐지되고 개신교는 다시 가톨릭교회의 탄압을 받게 된다. 물론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또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가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적 사태가 발생한 점은 낭트칙령의 불완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모르네가 90여년 후의 퐁텐블로 칙령을 경험했다고 전제한다면 낭트칙령 당시 그는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양측의 화해를 위해 무엇을 달리했을까?

둘째, 모르네의 중재자 리더십을 우리나라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환경에 적용한다면 한국의 모르네라 부를 만한 인물은 누가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그와 유사한 방식의 중재자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최근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대립 현상이나 기성세대와 이대남의 갈등, 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능한 중재자를 찾는 일은 우리 안에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인물을 찾아 그를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프랑스 신-구교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킨 낭트칙령의 체결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서 탁월한 소통능력을 보유했던 중재자인 모르네가 존재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서 이와 같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지금까지와 다른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방식의 교육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하고자 한다.

용기와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 : 마리 퀴리

호서대학교, 정영기

용기와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 : 마리 퀴리

정영기(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1. 머리말

마리 퀴리(Marie Skłodowska Curie, 1867-1934)는 18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 하에 있었고, 마리는 어린 시절부터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는 애국심을 키웠다.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였던 마리는 바르샤바에서 비밀리에 운영되던 'The Floating University'¹⁾에서 공부했고, 이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Naomi, 1996, p.6).

1891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 입학한 마리는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피에르 퀴리(Pierre Curie)를 만나 연구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를 얻게 된다(Naomi, 1996, p.15). 두 사람은 1895년 결혼했고, 이후 방사능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

마리 퀴리의 가장 큰 업적은 방사능 현상의 발견과 연구이다. 1896년 앙리 베크렐(Henri Becquerel)이 우라늄에서 방출되는 미지의 방사선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마리는 이 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녀는 방사능이 원자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혁명적인 가설을 세웠고, 이는 당시 원자가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기본 입자라는 통념을 뒤집는 것이었다.

마리와 피에르 퀴리 부부는 1898년 7월 폴로늄을, 12월에는 라듐을 발견했다(Naomi, 1996, p.36). 이 발견으로 인해 그들은 1903년 Henri Becquerel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마리 퀴리는 1911년 라듐의 분리에 성공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하며, 최초로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과학자가 되었다.

마리 퀴리의 연구는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방사능의 발견은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의학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암 치료 등 의학 분야에도 크게 기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마리 퀴리는 X선 촬영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여 부상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다(Naomi, 1996, p.62-65). 이는 그녀의 과학적 업적이 실제 인류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마리 퀴리는 여성 과학자로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다. 1911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선거에서 탈락한 사건이나, Paul Langevin과의 스캔들 등은 그녀가 겪은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1) The Floating University는 19세기 말 러시아 지배하의 폴란드에서 운영된 비밀 교육 기관이었다. 이 대학은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업 장소를 자주 바꾸며 운영되었기 때문에 "The Floating University"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폴란드 민족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폴란드 문화와 언어 교육을 금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바르샤바 대학은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 대학은 여성들을 포함한 폴란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 폴란드의 독립과 문화 보존을 위한 애국심을 키웠다.

그녀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과학 연구에 매진했으며, 결국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받았다.

마리 퀴리는 1934년 7월 4일, 방사능 노출로 인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의 업적과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딸 이렌 졸리오 퀴리(Irène Joliot-Curie)와 사위 프레데릭 졸리오 퀴리(Frédéric Joliot-Curie)도 뛰어난 과학자가 되어 1935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마리 퀴리의 삶과 업적은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과학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성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마디로, 마리 퀴리는 20세기 초 과학계에 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과학자였다. 그녀의 방사능 연구는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의학 분야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녀는 여성 과학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함으로써, 과학계의 성 평등에도 기여했다. 마리 퀴리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정신은 현대 과학의 발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과학적 혁신의 선구자로서 리더십

마리 퀴리는 방사능 연구의 선구자로서 과학적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방사능 연구는 1895년 Wilhelm Roentgen의 X선 발견과 1896년 Henri Becquerel의 우라늄 방사선 발견에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Quinn, 1995, p. 33).

1897년, 퀴리는 박사 학위 주제로 우라늄 방사선 연구를 선택했는데, 이는 당시 과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분야였다. 이는 그녀의 혁신적인 사고와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 연구를 위해 퀴리는 남편 피에르 퀴리와 그의 형이 발명한 정밀 전기계를 사용했다. 이 장치로 우라늄 방사선에 의해 공기 중에 생성되는 미세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그녀는 우라늄 화합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퀴리의 연구는 우라늄 방사선이 우라늄 원자의 특성이라는 혁신적인 가설로 이어졌다. 그녀는 "우라늄 화합물의 방사선 방출이 우라늄 원소의 원자적 특성일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는 당시 원자가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기본 입자라는 통념을 뒤집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퀴리는 모든 알려진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토륨 화합물도 우라늄과 유사한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Quinn, 1995, p. 34-35). 이를 통해 방사능이 특정 원소들의 원자적 특성임을 확인했고, "방사능(radioactivity)"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냈다.

퀴리의 연구는 더 나아가 피치블렌드(Pitchblende)²⁾와 샬콜라이트(Chalcolite)³⁾라는 두 가지 우라늄 광석이 순수한 우라늄보다 훨씬 더 방사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이 광석들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방사성 원소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퀴리 부부는 피치블렌드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새로운 화학 분석법을 개발하여 피치블렌드의 다양한 성분들을 분리하고, 방사능 측정을 통해 미지의 방사성 원소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비스무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강한 방사성 물질을 발견하고

2) 우라늄 산화물(UO₂)을 포함한 광물

3) 화학식이 Cu(UO₂)₂(PO₄)₂·12H₂O인 구리 우라늄 광물, 영어로는 Torbernite라고 한다.

이를 "폴로늄"이라 명명했다. 또한 바륨과 유사하지만 강한 방사능을 띠는 또 다른 물질을 발견하고 "라듐"이라 명명했다.

퀴리 부부는 이 새로운 원소들을 분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1톤의 피치블렌드를 처리하는 대규모 작업을 수행했다 (Quinn, 1995, p. 37). 이 과정에서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처리 공정을 개발하기도 했다.

마리 퀴리는 3년 이상의 노력 끝에 0.1g의 순수한 라듐 염화물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과학적 성과였다. 반면 폴로늄은 반감기가 짧아 분리에 실패했다. 퀴리 부부는 1900년 파리에서 열린 첫 국제 물리학 회의에서 라듐이 자발적으로 빛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는 원자 내부의 과정이 방사능 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마리 퀴리의 방사능 연구는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연구는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현대 물리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의학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암 치료 등 의학 분야에도 크게 기여했다.

퀴리의 연구 방법론 또한 혁신적이었다. 그녀는 정밀한 측정과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이론화했다. 또한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처리 공정을 개발하는 등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을 연계시키는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리 퀴리는 자신의 발견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 (Quinn, 1995, p. 39). 이는 과학 지식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과학 연구의 개방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

퀴리의 연구는 곧 라듐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라듐의 의학적 활용이 시작되었고, 이는 새로운 치료법인 방사선 요법(radiotherapy)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는 퀴리의 기초 과학 연구가 실제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마리 퀴리의 방사능 연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열악한 연구 환경과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Quinn, 1995, p. 37-38). 이러한 그녀의 끈기와 열정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리 퀴리는 방사능 연구의 개척자로서 과학적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통찰력과 실험 기술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을 연계시키고, 과학 지식의 공유를 강조하는 등 과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퀴리의 연구는 현대 물리학과 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태도와 열정은 후대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라듐의 발견은 특히 중요했다. 퀴리는 라듐의 원자량을 측정하여 225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바륨의 원자량 137과 크게 달랐으며, 라듐이 실제로 새로운 원소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퀴리의 새로운 원소 발견은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는 원소의 불변성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뒤흔들었다. 퀴리는 "만약 라듐이 변형된다면, 우리는 원자의 불변성 이론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대 화학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둘째, 라듐의 발견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퀴리는 라듐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당시의 물리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결국 Einstein의 질량-에너지 등가성 이론($E=mc^2$)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셋째, 퀴리의 연구는 방사능의 의학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는 라듐의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현대 방사선 치료의 기초가 되었다.

퀴리의 혁신적인 연구 방법론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정밀한 측정과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이론화했다. 특히 그녀가 개발한 방사능 측정 방법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퀴리는 "전기계측법을 이용한 방사능 분석으로 1%의 정확도로 라듐의 1/1000 밀리그램을 계산할 수 있고, 몇 그램의 물질에 희석된 10^{-10} 그램⁴⁾의 라듐의 존재를 검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퀴리는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처리 공정을 개발하기도 했다 (Quinn, 1995, p. 37-38). 이는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을 연계시키는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원료에 톤당 몇 데시그램의 비율로 라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마리 퀴리는 새로운 원소의 발견을 통해 과학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의 연구는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현대 물리학과 화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녀의 연구 방법론과 윤리는 후대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퀴리의 과학적 혁신의 선구자로서의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과학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

3. 성 평등을 위한 선구자적 리더십

1) 남성 중심 과학계에서의 도전과 극복

마리 퀴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남성 중심의 과학계에서 여성 과학자로서 큰 성공을 거둔 선구자적 인물이다. 그녀의 과학적 여정은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로 가득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의 능력과 지적 역량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과학계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퀴리가 직면한 첫 번째 큰 도전은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이었다. 19세기 말 그녀의 조국 폴란드에서는 여성의 대학 교육이 금지되어 있었다(Natasha, 2022, p. 2). 이러한 제도적 장벽은 많은 여성들의 꿈을 좌절시켰지만, 퀴리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24세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다. 당시 소르본 대학 이학부에 등록한 2,000명의 학생 중 여학생은 23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파리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퀴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했다. 그녀는 종종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으며, 때로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이는 당시 여성 과학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퀴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학업 성적을 거두었고, 1893년에 물리학 학위를, 1894년에는 수학 학위를 취득했다(Natasha, 2022, p. 1). 이는 그녀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연구 공간의 확보 또한 큰 과제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대학 실험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이는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퀴리는 결혼 후 남편 피에르 퀴리의 도움으로 파리 산업물리화학학교(ESPCI)⁵⁾의 작은 실험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4) 10^{-10} 그램은 0.0000000001 그램으로, 이는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극소량이다.

5) [산업물리화학학교(ESPCI)]는 École Supérieure de Physique et de Chimie Industrielles de la Ville de Paris의 약자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공학 교육기관이다. 이 학교는 물리학과 화학의 응용을 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로, 1882년에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현재까지도 물리학, 화학, 재료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기관으로 남아 있으며, 퀴리 부부의 연구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로서 유명하다.

다. 이는 당시 여성 과학자들이 독립적인 연구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은 실험실은 퀴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며,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칠 발견을 이루어냈다.

퀴리의 가장 큰 과학적 업적 중 하나는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의 발견이다(Natasha, 2022, p. 7). 이 발견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퀴리의 과학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연구는 방사능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으며, 이는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성차별적 태도에 직면해야 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여성이 이러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과정에서도 퀴리는 성차별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피에르 퀴리와 앙리 베크렐만이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피에르의 항의로 마리도 수상자에 포함되었다. 이는 당시 과학계에서 여성의 공헌이 종종 간과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퀴리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욱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

퀴리는 1906년 남편 피에르의 사망 후 소르본 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 최고 대학에서 최초의 여성 교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그녀는 많은 반대와 편견에 직면해야 했다. 일부 동료 교수들은 여성이 교수직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퀴리는 이러한 편견에 맞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뛰어난 강의와 연구 성과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했으며, 이는 후대 여성 과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1911년 퀴리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역사상 최초로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과학자가 되었다(Natasha, 2022, p. 2). 이는 여성 과학자로서 전례 없는 성취였으며, 과학계에서 여성의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퀴리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선거에서 탈락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이는 당시 과학계에 여전히 존재하던 성차별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퀴리가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퀴리는 X선 진단 기술을 전장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동식 X선 장치를 개발하고 직접 전선에 나가 부상병 치료에 참여했다. 이는 퀴리가 과학적 지식을 실제 인류 복지에 적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마리 퀴리는 남성 중심의 과학계에서 수많은 장벽을 극복하고 최고의 성취를 이루어냈다. 그녀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뛰어난 과학적 능력은 당시 여성 과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퀴리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이끈 혁명적인 여정이었다. 그녀의 업적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2) 여성 과학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영감

마리 퀴리의 업적과 리더십은 후대의 여성 과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여성도 최고 수준의 과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여성들이 과학 분야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퀴리의 삶은 단순히 과학적 업적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상징이 되었다.

퀴리의 과학적 성취는 그 자체로 여성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그녀는 1903년 노벨 물

리학상, 191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며 최초로 노벨상을 두 번 수상한 과학자가 되었다. 이는 여성도 최고 수준의 과학적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퀴리의 성공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을 인정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퀴리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했다. 1914년 파리에 라듐 연구소를 설립하여 많은 여성 과학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당시 여성들이 과학 연구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라듐 연구소는 여성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퀴리는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후배 여성 과학자들을 멘토링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기도 했다.

특히 퀴리의 딸 이렌 졸리오-퀴리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과학자가 되어 193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Natasha, 2022, p. 3). 이는 퀴리가 자신의 딸에게도 과학에 대한 열정을 물려주었음을 보여주며, 여성 과학자의 세대 간 계승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렌의 성공은 여성 과학자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퀴리의 리더십은 과학적 업적뿐만 아니라 그녀의 윤리적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그녀는 라듐 분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Natasha, 2022, p. 39). 이는 과학 지식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을 보여주며, 후대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퀴리의 이러한 태도는 과학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현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퀴리는 또한 국제 지적 협력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과학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192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과학의 발전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인 생각이었으며, 과학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했다. 퀴리의 이러한 노력은 후에 UNESCO의 설립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국제 과학 협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퀴리의 국제적 시각과 협력에 대한 강조는 현대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녀의 선구적인 노력은 과학이 국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는 오늘날 기후 변화, 전염병 대응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과학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 퀴리가 보여준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정신은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마리 퀴리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여성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과학계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아있다. 그녀의 헌신과 성취는 여성들이 과학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현대 과학계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퀴리의 영향력은 단순히 과학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의 성공은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퀴리는 여성도 지적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퀴리는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그녀가 제1차 세계대전 중 X선 진단 기술을 전장에 도입한 것은 과학이 인류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이는 후대 과학자들에게 과학 연구의 실용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마리 퀴리의 삶과 업적은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여성 과학자의 롤모델로서, 과학적 혁신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사회 변화의 촉매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퀴리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인류애의 실천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다.

4. 교육과 멘토링을 통한 리더십

마리 퀴리는 1906년 남편 피에르 퀴리의 사망 이후 소르본 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 최고 대학에서 최초의 여성 교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Quinn, 1995, p. 248). 그녀는 피에르 퀴리의 자리를 이어받아 물리학 강좌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여성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퀴리는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큰 부담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내가 맡은 임무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겠다는 결심이 선다." (Curie, 1938, p. 202). 이는 그녀가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음을 보여준다.

퀴리의 강의는 매우 체계적이고 명확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녀는 복잡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한 학생의 회고에 따르면 "퀴리의 강의는 항상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어려운 주제를 놀라울 정도로 쉽게 설명했다."

퀴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방식과 연구 윤리를 가르치는데 주력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항상 의문을 품고,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녀가 평생 견지했던 과학적 태도를 학생들에게도 심어주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퀴리는 여학생들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그녀는 여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과학에는 성별이 없다"라고 자주 말하며, 여학생들이 과학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했다.

퀴리의 교육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이론 교육과 함께 실험실 실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과학은 책에서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배워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실제 연구 경험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퀴리는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교류도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을 가졌고, 그들의 연구 주제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 제자의 회고에 따르면 "퀴리는 항상 우리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통찰력 있고 유용했다."

퀴리의 교육 활동은 단순히 소르본 대학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1914년 파리에 라뒀 연구소를 설립하여 많은 젊은 과학자들을 양성했다. 이 연구소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세계 각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와 연구를 수행했다.

라뒀 연구소에서 퀴리는 학생들에게 최신 연구 시설과 장비를 제공했다. 그녀는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좋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믿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는 학생들이 최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퀴리는 학생들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존중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연구 주제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도록 격려했다. "과학적 발견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나온다"

는 그녀의 말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퀴리의 교육 철학은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과학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고, 연구 결과의 윤리적 활용에 대해 자주 토론했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퀴리의 교육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지도를 받은 많은 학생들이 후에 뛰어난 과학자가 되었다. 특히 그녀의 딸 이렌 퀴리와 사위 프레데릭 퀴리는 1935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며 퀴리의 교육 유산을 이어갔다.

퀴리의 교육 활동은 그녀의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에게 과학적 정신과 윤리를 심어주었고, 이는 20세기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퀴리의 교육자로서의 리더십은 그녀의 과학적 업적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여성 과학자로서 최초로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훌륭한 교육자로서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을 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국, 마리 퀴리의 소르본 대학에서의 교육 활동은 그녀의 과학적 업적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방식,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지도,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퀴리의 교육 철학과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과학 교육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녀의 교육 유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5.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제 1차 세계대전 중 공헌

1) 이동식 X선 장치 개발 및 운영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마리 퀴리는 파리 라돔 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중요한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조국 프랑스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Arty, 1988, p.1).

퀴리는 X선 기술이 부상당한 군인들의 치료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 군대에는 X선 장비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선 가까이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Arty, 1988, p.2).

이에 퀴리는 이동식 X선 장치를 개발하여 전선으로 가져가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녀는 "부상자들은 최대한 빨리, 즉 전선 근처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퀴리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X선 사진 촬영 기술을 배웠다. 그녀는 유명한 방사선 전문의인 Henri Bécère 박사의 지도 아래 이 기술을 익혔다. 이는 퀴리가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퀴리는 이동식 X선 장치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프랑스 적십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부유한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Arty, 1988, p.2). 이는 퀴리가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조직가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퀴리는 자동차에 필요한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탑재하여 부상당한 군인들이 야전 병원에서 X선 촬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첫 번째 이동식 X선 차량은 1914년 11월에 파리를 떠났다. 이 차량에는 휴대용 X선 기체가 장

작되어 있었고, 차량의 모터로 구동되는 발전기가 필요한 전류를 공급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퀴리와 그녀의 딸 이렌은 첫 번째 방사선 차량, 일명 "petite Curie"를 직접 운전하여 전선으로 갔다. 이는 퀴리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나가 위험을 감수하며 일했음을 보여준다.

이동식 X선 장치는 텐트나 방에 설치되었고, 검은 커튼으로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졌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들것에 실려 와서 X선 검사 테이블에 놓여졌고, 퀴리나 다른 자원봉사 운영자들이 X선 촬영을 했다(Arty, 1988, p.2).

초기에는 많은 외과 의사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이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했다. 그러나 곧 X선 사진의 가치가 분명해졌고, 많은 "petites Curies"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퀴리는 자신의 영향력과 권위를 이용하여 20대의 "petites Curies"를 장비했고, 추가로 200개의 고정 방사선 포스트를 설치했다. 이는 퀴리의 리더십과 조직력을 잘 보여주는 예다.

퀴리의 노력으로 검사를 받은 부상자의 총 수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녀의 발명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퀴리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군사 시스템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야 했다. 당시 프랑스 군대는 의사들이 독립적인 의료 서비스의 일부가 아닌 유일한 주요 군대였다. 프랑스 의료 장교들은 일반 장교들의 직접적인 명령 하에 있었다.

더욱이 의료 용품은 독립적인 의료 공급 서비스가 아닌 군 보급관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또한 외과 의사들은 보통 실제 전장에서 최소 50km 떨어진 곳에 있어, 전반적인 전투 계획 내에서 의료 서비스의 조정된 통합을 방해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크게 방해했다(Arty, 1988, p.2-3).

관료주의도 만연했다. 퀴리가 직접 경험한 바와 같이, 전선으로 여행할 수 있는 허가 요청은 한 관리에서 다른 관리로 전달되었다. 그녀의 요청 중 하나는 결국 전쟁 장관의 책상에 도달했는데, 그녀는 우연히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허가는 주어졌지만, 퀴리가 장관을 설득하여 여성들이 방사선 차량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도록 한 후에야 가능했다. 이는 퀴리가 단순히 과학적 혁신을 이루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까지 이끌어냈음을 보여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마리 퀴리는 30번 이상 전선에 갔다(Arty, 1988, p.3). 이는 그녀의 헌신과 용기를 잘 보여준다. 퀴리의 이동식 X선 장치 개발과 운영은 전시 의료 지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의 노력으로 많은 부상병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그녀의 리더십은 여성들이 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과학 기술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했다.

2) 전시 의료 지원을 통한 사회적 리더십 발휘

마리 퀴리의 전시 의료 지원을 통한 사회적 리더십 발휘는 그녀의 과학적 지식과 조직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정신이 결합된 결과였다. 퀴리는 적절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절히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충분한 방사선 기술자를 확보하는 데도 힘썼다(Arty, 1988, p.3).

1916년 10월, 퀴리는 딸 이렌 퀴리와 전 제자인 Marthe Klein과 함께 파리의 Edith Cavell 병원에서 방사선 기술자를 위한 특별 과정을 시작했다. 이는 퀴리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

지 않고,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총 150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고 X선 기술자가 되었다. 이들은 훈련된 간호사, 하녀, 교육받은 여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퀴리가 설립한 방사선 전초 기지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러한 퀴리의 노력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퀴리는 1921년 출판된 그녀의 책 『방사선학과 전쟁』(La Radiologie et la Guerre)에서 전시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다(Arty, 1988, p.3). 이 책에서 그녀는 전쟁이 어떻게 X선의 진단적 사용에 대한 빠른 인식을 가능하게 했는지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경험을 넘어, 퀴리는 과학을 찬양할 새로운 이유를 찾았다. 이는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퀴리의 전시 의료 지원 활동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병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그녀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종종 부상병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위로했고, 이는 그녀의 리더십이 단순히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인간애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퀴리의 활동은 전시 의료 체계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이동식 X선 장치와 훈련된 기술자들은 전선 근처에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시 의료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퀴리의 활동은 과학 기술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고, 이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퀴리의 리더십은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여성도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여성들이 과학 분야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퀴리는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입증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도전했다.

퀴리의 영향력은 그녀의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퀴리를 자신들의 영감의 원천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을 딴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과 장학금들이 여성들의 과학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리 퀴리의 리더십은 과학계에서의 성 평등을 향한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여성들에게 과학 분야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과학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퀴리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과학계에서 성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6. 마무리: 마리 퀴리 리더십의 현대적 의의와 legacy

마리 퀴리의 리더십은 과학적 업적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통해 현대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리더십의 핵심 요소들과 그 현대적 의의를 살펴보자.

첫째,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혁신

마리 퀴리는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하고 방사능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Bill, 2011, p.8). 그녀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혁신적 사고와 도전 정신은 여전히 중요한 리더십 요소이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윤리성과 공익 추구

퀴리 부부는 라듐 분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했다(Bill, 2011, p.8). 이는 과학 지식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퀴리의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유효한 리더십 모델이 된다.

셋째, 성 평등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소르본 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는 등 남성 중심 과학계에서 여성의 역량을 입증했다(Bill, 2011, p.2). 이를 통해 후대 여성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현대 사회에서 성 평등과 다양성 존중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퀴리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교육과 멘토링의 중요성 강조

소르본 대학에서 교육 활동을 하며 제자 양성에 힘썼고, 자녀 교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품앗이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Bill, 2011, p.2). 현대 리더십에서도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멘토링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 협력 증진

국제 지적 협력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과학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Bill, 2011, p.3). 이는 과학의 발전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퀴리의 이러한 국제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섯째, 사회적 책임감과 헌신

제1차 세계대전 중 이동식 X선 장치를 개발하여 전선의 야전병원에서 직접 치료에 나서는 등 과학 지식을 인류 복지에 활용하고자 노력했다(Bill, 2011, p.3). 이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현대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마리 퀴리의 리더십은 과학적 혁신, 윤리성, 성 평등, 교육의 중요성, 국제 협력, 사회적 책임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녀의 삶과 업적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고 있다. 퀴리가 보여준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인류 복지를 위한 헌신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준다.

마리 퀴리의 유산은 단순히 과학적 업적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과학의 윤리성, 국제 협력의 중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삶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태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Arty R. Coppes-Zantinga, MA, and Max J. Coppes, MD, PhD, "Marie Curie's Contributions to Radiology During World War I", *Medical and Pediatric Oncology* 31, 1998.

Bill Griffith, *Elements of Inspiration*, Chemistry World, 2011.

Curie, E., *Madame Curie: A Biography*. Doubleday, Doran & Company, 1938.

Naomi Pasachoff, *Marie Curie and the Science of Radioac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Elvira Moya de Guerra, "Madame Curie: Scientific Contributions and Impact",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2013.

Natasha Obeid El Jamal and Andreia Guerra, "The Marie Curie Case Through the Cultural History of Science: Discussing Relations Between Women, Science, and Patriarchy in Science Education", *Ensaio: Pesquisa em Educação e Ciências*, Belo Horizonte, 2022.

Quinn, S., *Marie Curie: A Life*, Simon & Schuster, 1995.

「용기와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 마리 퀴리」에 대한 논평문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최현철

1. 리더십으로 본 마리 퀴리의 생애와 업적

정영기 교수(이하 발표자)는 “용기와 헌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 마리 퀴리”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마리 퀴리(Marie Curie)의 인생과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업적 및 과학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여성 과학자로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녀만의 교육철학, 또한, 1차 세계대전에서 그녀가 보여준 사회적 공헌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발표자는 마리 퀴리의 이러한 과학적 업적과 사회적 기여와 헌신을 ‘리더십’이라는 주제어로 정리하고 있다.

발표자가 발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마리 퀴리는 화학과 물리학에서 혁신적이고 선구자적인 리더십을 보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 그녀는 과학계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라늄 방사선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이루었다. 방사능(radioactivity)이 특정 원소의 원자적 특성이라는 가설을 입증했고 라듐이 자발적으로 빛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과학계에 발표했는데, 이것은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학문의 융합적 응용을 불러온 사건들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라듐의 발견으로 기존 화학의 원소에 대한 불변성에 대한 이론의 새로운 변화가 도래했고 질량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물리학적 변화가 있었으며, 방사선 암치료로 인해 화학과 물리학이 의학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리 퀴리는 화학과 물리학의 판도를 뒤집는 선구자적인 여성 과학자다.

또한, 발표자가 주목한 마리 퀴리의 리더십은 학문계에 팽배했던 양성불평등을 극복하고 맞서는 데 있었다. 그녀는 여성의 대학 입학에 불허하는 모국 폴란드에서 그나마 소수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던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 역시 모든 것이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에서도 그녀는 학위를 취득하고 폴로늄과 라듐의 발견을 이루었다. 그 결과 그녀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지만, 그 수상 과정 역시 불평등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1906년 마리 퀴리는 소르본 대학의 최초의 여성교수가 되었다. 또한, 191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며 노벨상을 2회 수상한 최초 과학자가 되면서 남성 과학자와 대등한, 아니 우수한 여성 과학자의 능력을 보여준다. 마리 퀴리의 과학적 성취는 나중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마리 퀴리의 딸 이렌쥬프 아니라 많은 여성 과학자에게 귀감이 되었다. 마리 퀴리는 라듐 분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과학자의 윤리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발표자는 그녀가 여성 과학자의 롤-모델로서, 과학적 혁신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사회 변화의 촉매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발표자가 마리 퀴리에게 주목한 또 다른 리더십은 교육과 1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헌신적 리더십이다. 그녀는 교수로 강의력이 좋았으며 학생들과의 개인적인 교류도 좋았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하며 학생들에게 과학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학자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사회적 책임감을 교육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마리 퀴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이동식 X선 장치를 개발하여 전선으로 가져가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 위험을 감수하며 전시 의료활동을 했다. 이것이 그녀의 인류애를 보여준 헌신적 리더십의 사례다.

결론적으로 마리 퀴리가 보여준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인류를 위한 헌신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십의 전형이라 발표자는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평자의 요약이 발표자의 의도와 발표문의 취지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논평자의 부족한 이해를 보충하며 동시에 논평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2. 몇 가지 질문들

첫 번째 질문은 과학적 발견과 그 사회적 결과가 지니는 딜레마에 관한 것이다. 사실 마리 퀴리의 폴로늄과 라듐의 발견 즉, 방사선과 방사능의 발견은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의학적 적용으로 인류 암 치료에 공헌을 남긴 사건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라늄-238”이 붕괴하면 “라듐-226”이 되고, 이 불안정한 원소인 라듐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기체가 “라돈-222”이다. 잘 알려져 있듯 라듐과 라돈은 인간에게 유해한 발암물질이다. [퀴리 부부가 오랫동안 방사성 물질을 연구하면서 핵물질에 노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두 사람 모두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라듐을 취급했기에 엄청난 열과 방사선에 노출되었으며 마리 퀴리는 라돈 가스를 들이마셨기에 결국 건강악화로 사망했다.] 하지만 발암물질을 치료하는 것이 라돈 기체를 응용한 방사능이다. 또한, 원자력의 발전도 넓게 말하면 마리 퀴리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것 역시 원자폭탄과 원전[피폭]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낳았다. 그리고 순수한 라듐에 대한 특허를 포기한 탓에 너무나 많은 라듐 제품이 생산되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있다. 이렇게 마리 퀴리의 과학적 발견이 가져온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질문은 마리 퀴리의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 의의와 유산에 관한 것이다. 발표문에서 발표자가 정리한 마리 퀴리의 리더십은 너무나 한 과학자의 전기(biography)적인 측면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별한 논쟁의 부분이 발표문에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발표자는 발표문 결론 부분에 “마리 퀴리의 삶과 업적은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고 있고 퀴리가 보여준 끊임없는 탐구 정신과 인류 복지를 위한 헌신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준다.” 고 서술하고 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 직면한 시급한 도전이 무엇이고 그 해결이 마리 퀴리의 어떤 리더십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 나는 마리 퀴리의 일생과 과학적 사회적 공헌을 리더십으로 정리한 궁극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표자에 묻는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
: 『데미안』, 『쉴타르타』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서기자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 방안

– 「데미안」, 「싯다르타」를 중심으로 7)

목차

1. 시작하는 말
2. 대학생 셀프리더십과 독서교육
3. 데미안과 싯다르타를 통해 본 셀프리더십
4. 문학 독서 교육 방안
5. 맺음말

1. 시작하는 말

독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자기 이해와 성찰을 통해 현실과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준다. 독일어의 ‘빌둥(Bildung)’은 교육, 교양, 자기 형성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며, 고대 그리스의 인간 존엄성과 개별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근대 독일에서 빌둥은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간 형성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 성찰을 통한 자율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했다.¹⁾

문학은 이러한 빌둥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인간을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개인의 성찰적 사고를 촉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문학 독서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대학생 시기에 더욱 중요하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자기 주도적 동기부여를 통해 성취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셀프리더십은 대학생의 중요한 자질로, 이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문학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방안을 문학 독서교육에 관한 것이다. 특히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과 『싯다르타』를 분석하여, 이 작품들이 대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 성장을 이루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 내적 갈등과 성찰을 통해 자아를 확립하는 과정을 겪으며, 이는 대학생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셀프리더십을 형성하는 과정과 상응한다.

또한, 문학 독서교육의 한 방법으로 독서치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치료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성찰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과정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셀프리더십을 확립

서기자,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1) 서정일, 「물화를 넘어 인문 정신을 위한 문학 교양의 탐색」,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94호, 2024, 37페이지.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첫째, 대학생 셀프리더십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며, 둘째, 『데미안』과 『싯다르타』의 내적 성찰 과정이 대학생 셀프리더십 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독서치료의 개념과 방법론을 대학생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학 독서교육 방안을 대학 교양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 대학생 셀프리더십과 독서교육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평생에 걸쳐 성장해나가는 과정이다. 이 개념은 단지 현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게 자리 잡은 개념이기도 하다. 셀프리더십은 누구나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개발하고 연마해야만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²⁾ 이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아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내면적 훈련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그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뮐러(Müller)와 로하우스(Lohaus)에 따르면, 셀프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이끌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현대의 평등하고 분산된 조직 구조에서는 위계적 리더십보다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리더십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다.³⁾

웨스터라이히(Oesterreich)와 슈뢰더(Schröder) 또한 현대 조직에서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⁴⁾

만츠(Manz)는 셀프리더십을 개인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때로는 동기 부여되지 않은 과업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⁵⁾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셀프리더십을 통해 개인이 자기 주도성과 동기 부여를 강화하며, 바람직한 행동과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발휘해야 할 행동 패턴으로 원활한 소통, 학업 성취 동기, 진로 준비 행동, 자기효능감 등이 포함된다⁶⁾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은 단순한 자기 관리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면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만츠(Manz)와 심스(Sims)는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며, 자기 통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목표 지향적으로 이끌기 위한 특정한 태도와 기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특히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생들은 진로를 결정

2) 정경호, 혼자 강해지는 힘! 셀프리더십, 리텍 콘텐츠, 서울, 2016, 55페이지.

3) Günter F. Müller, 「Daniela Lohaus, Fragebogen zur Diagnose von Führung zur Selbstführung」, 2021, 4페이지.

4) Mehmet Durnal 1,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Online Learn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urkey」, 2020, 131페이지.

5) Mehmet Durnal 1, 앞의 책 132페이지.

6) Mehmet Durnal 1, 앞의 책 132페이지.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학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은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 동기 부여와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싯다르타』의 주인공들은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를 발견하며, 스스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셀프리더십의 핵심 개념을 체득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문학적 여정을 통해 셀프리더십의 주요 개념인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고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데 강력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증적 데이터보다는 셀프리더십의 개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문학 독서교육이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3. 데미안과 싯다르타를 통해 본 셀프리더십

독일 계몽주의 작가 고쾨트(Johann Christoph Gottsched)는 문학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며, 그들을 선한 인간으로 교육시켜야 한다⁷⁾고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 그 시대 인간교육을 문학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대표적인 소설 장르인 성장소설의 개념에서도 문학의 교육적 측면을 읽을 수 있다. 몰겐슈테른(Karl Morgenstern)은 성장소설의 특징을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서술될 뿐 아니라 독서과정에서 독자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괴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등한시한 예술 자체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인생을 체험함으로써 지향점을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학작품, 특히 주인공이 완숙한 인간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 과정을 그린 성장 서사가 있는 소설은 대학의 문학 독서 교육에서 학생들의 성장에 힘찬 마중물이 되어 그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문학 수업을 시험 대비나 단순한 지식 습득의 도구로만 받아들이며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도 오히려 치유와 성찰의 가치를 일깨우고,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문학 독서교육은 대학생들이 셀프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Manz와 Sims가 강조한 내적 탐구와 자아 성찰의 과정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싯다르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두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견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생들이 자아 성찰과 성장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영감을 제공하며, 독립적인 삶의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⁹⁾과 『싯다르타』¹⁰⁾를 통해 셀프리더십 확립에 있어 내적 탐구와 성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작품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싱클레어와 싯다르타의 여정은 각각 자기 성찰과 자아 실

7) 만프레트 마이(Manfred Ma), 『작품 중심의 독일 문학사』, 임호일 역, 동국대학교 출판 부, 2004, 51쪽.

8) Karl Morgenstern, 「Über das Wesen des Bildungsromans」, In: 『Romantheorie. Dokumentation ihrer Geschichte in Deutschland 1620-1880』, Hrsg. von Eberhard Lammert u.a., in, Berlin 1971, 257페이지.

9)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더 클래식, 2016.

10) 헤르만 헤세, 박광자 역, 『싯다르타』, 북북스, 2013.

현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는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데미안』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부모의 보호 아래 안정된 삶을 살다가, 크로머라는 소년과의 만남을 계기로 어둠의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아버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며 성장해 나간다. 싱클레어의 이러한 여정은 고독과 불안 속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자기 성찰과 자아 발견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게 된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적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싯다르타』의 주인공 싯다르타 역시 명망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적 평온을 찾지 못하고 자아 탐구의 길에 나선다. 그는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택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지혜와 평온에 도달한다. 싯다르타는 성장 과정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핵심 개념인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잘 보여준다.

두 작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와 싯다르타는 모두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여정은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대학생들이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정신적 지침을 제공한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내적 갈등을 겪으며,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기 쉽다. 이때 셀프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인식, 자기 책임, 그리고 자기 조절을 요구하며,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경험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¹¹⁾

따라서, 문학 독서교육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싱클레어와 싯다르타의 여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아 성찰과 내적 탐구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성장과 자아 실현을 위한 전략을 체득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교육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데미안』

『데미안』은 1919년 헤르만 헤세가 발표한 성장소설로, 주인공 싱클레어가 청년기에 겪는 방황과 좌절,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싱클레어는 내면의 충동과 정신적 편력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미성숙한 자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러한 자아 성찰의 과정은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성장 서사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¹²⁾

소설 초반부에서 싱클레어는 모든 것이 안정된 부모의 집에서 평범한 소년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 크로머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동화되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크로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싱클레어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며 그의 내면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싱클레어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던 안정적이고 보호된 세계가 깨지는 경험을 하며, 기존의 질서와 안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발견하려는 여정으로 나아간다.

이 장면은 셀프리더십에서 중요한 내면의 갈등과 그 직면이라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싱

11) www.itb-consulting.de, Dehner Academy.

12) 전영애, 「헤세의 교양소설에 나타난 교양인의 길 - 『페터 카멘친트』, 『데미안』, 『유리알 유희』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 13권 3호, 2020, 270페이지.

클레어는 두 세계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을 통해 자아 성찰을 시작하고, 이는 셀프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기 인식과 성장을 상징한다. 셀프리더십의 개념에서, 내면의 충돌은 피하지 말고 마주함으로써 개인이 더 나은 자아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다음의 인용문은 싱클레어의 내면적 갈등과 자아 인식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분명히 나는 밝고 옳은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내 부모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나의 눈과 귀가 향한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나는 이 금지된 세계 속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까지 했다. 13)

이 인용문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두 세계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나타낸다. 그는 밝고 안정적인 부모의 세계와 어두운 다른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지만, 그 세계에 끌리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의 과정을 반영한다. 셀프리더십에서 자아 성찰은 자신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고 그것을 직면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충돌하는 두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갈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방황한다. 그의 꿈에서 나타나는 다음 장면은 이러한 내면의 불안을 잘 보여준다.

크로머가 칼을 갈아 내 손에 쥐여주고, 우리는 어느 가로수 길의 나무들 뒤에 서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었다....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 그러다 잠이 깨었다. 14)

이 꿈은 싱클레어가 아버지와 크로머라는 외부 권위에 대해 느끼는 억압과 갈등을 반영한다. 아버지는 전통을 상징하며, 이는 싱클레어가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장애물이다. 성장은 기존의 권위와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셀프리더십에서 독립적 자아 형성은 필수적인 단계이다. 싱클레어는 부모와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과정은 성장의 통과의례로 이해될 수 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성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그는 새로운 자아로 나아가기 위해 고통과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

아, 이제야 나는 알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장애가 많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15)

이 인용문은 싱클레어가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혼란을 상징한다. 셀프리더십에서 자기 책임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싱클레어는 여전히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기효능감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크로머라는 외부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아 발견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싱클레어는 이러한 내면적 갈등 속에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탐구하고, 자기 주도적 성찰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점차 자기 성찰의 깊이를 더해 나간다. 데미안은 그에게 성경 속 인물들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하며, 싱클레어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나를 완성하고, 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일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어려움을 겪고

13)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12 페이지.

14)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49 페이지.

15)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51 페이지.

사는 것이다.¹⁶⁾

이 과정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기 답을 스스로 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원칙인 자기 결정과 자기 주도적 성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싱클레어는 아직 완전한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더 나은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그는 이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자기 통제와 자기 책임의 힘을 키워나간다.

데미안과 헤어진 후, 싱클레어는 방황의 길로 접어든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며 퇴학 경고까지 받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마주하게 된다.

내 마음은 비참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근심과 불안이 가득 차 있었다.¹⁷⁾

싱클레어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시도로 인해 자신의 본모습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 상실감은 그가 더 깊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셀프리더십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중요한 성장의 출발점으로, 싱클레어 역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려진 얼굴을 보고 베아트리체가 아닌 자신의 내면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부분은 그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며 자아를 발견하는 중요한 순간을 상징한다.

그림은 나를 것처럼 낯익은 얼굴로 바라보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같이 보였다. [...] 점점 그것이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솟아올랐다. [...] 그것은 나의 내면, 나의 운명, 나의 악마였다.¹⁸⁾

이 장면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점차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아직 완전한 자기 발견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자아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셀프리더십에서 중요한 자기 탐구와 내면 성찰의 과정을 반영하며,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통합하고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후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상징하는 새 그림을 그려 데미안에게 보낸다. 데미안은 답장에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¹⁹⁾

이 메시지는 싱클레어에게 기존의 틀과 한계를 깨고 진정한 자아로 거듭나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이는 셀프리더십에서 중요한 자기 주도적 성장과 자기 책임의 과정을 상징한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넘어서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싱클레어는 다시 데미안을 만나게 된다. 이 만남에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하며, 싱클레어가 이제 스스로 내면에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찾았음을 확인해준다.

넌 네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²⁰⁾

이 인용문은 싱클레어가 더이상 외부의 지침이나 도움 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고 결정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이제 싱클레어는 자기 주도적 결정을 통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독립적

16)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52페이지.

17)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77페이지.

18)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86페이지.

19)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94 페이지.

20)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221페이지.

존재로 성장한 것이다.

이상을 통해 『데미안』을 분석함으로써, 싱클레어의 내적 성찰과 성장 과정이 셀프리더십의 핵심 개념인 자기 성찰, 자기결정, 자기 책임을 통해 어떻게 확립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성장의 과정을 통해 독립적 자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싯다르타

『싯다르타』는 고대 인도를 배경으로 주인공 싯다르타가 자아 탐구와 내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과정을 그린 성장 서사이다.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학자와 현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지만, 외부의 가르침이 그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 고빈다와 함께 사문의 길을 떠난다. 이는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부모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삶을 시작하는 것과 유사하다.

단 하나의 목표, 해탈이 그의 목표였다. 자신을 죽이는 것, 자아를 벗어나는 것, 텅 빈 마음으로 안식을 찾는 것.²¹⁾

이 인용은 싯다르타가 추구하는 해탈의 목표와 자아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싯다르타는 3년 동안 사문들과 함께 수행하지만, 그것이 자아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시 새로운 수행의 길을 나서야 할 때 임을 직시한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결정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잘 보여주며,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싯다르타는 타인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사문 수행의 길에서 나오지만 고빈다는 계속 사문들과 수행의 길을 걷는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고타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간다. 비록 싯다르타는 부처의 해탈 경지를 인정하지만, 그는 고타마에게 귀의하지 않는다. 이는 외부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싯다르타의 믿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탈은 가르침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²²⁾

이후 싯다르타는 홀로 해탈의 여정을 떠난다. 그는 설법에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고, 진정한 깨달음은 스스로의 경험과 내면의 탐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결단하고 탐구하며 새로운 자아로 나아간다.

그는 도시에서 만난 카말라와 사랑과 세속적 성공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속적 삶에 혐오감을 느끼고 다시 내면 탐구의 길로 돌아간다. 강가에 다다른 싯다르타는 그간의 모색이 무의미했음을 깨닫고 자살을 시도하려 한다. 순간 옴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며 그는 깊은 잠에 빠지고, 깨어난 후에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 그는 알게 되었다. 어떠한 스승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웅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²³⁾

이와 같이 싯다르타는 외부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힘을 통해 해탈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는 세속적 성공과 쾌락을 포기하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며

21) 헤르만 헤세, 박광자 역, 『싯다르타』, 북북스, 2013, 13 페이지.

22) 헤르만 헤세, 박광자 역, 『싯다르타』, 북북스, 2013, 54 페이지.

23) 헤르만 헤세, 박광자 역, 『싯다르타』, 북북스, 2013, 171 페이지.

자기 주도적 성장에 한 발 더 다가간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 통제와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과정을 잘 보여주며,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은 내면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데미안』과 『싯다르타』에서 두 주인공은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를 통해 자기 주도적 성장을 이룬다. 이들은 외부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자기 통제를 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강화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학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셀프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문학 독서교육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4. 문학 독서교육 방안

문학 독서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문학작품 속 인물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이기도 하지만, 독자가 만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체로 다른 이의 이야기, 즉 책을 읽으며 자아를 발견하고, 때로는 깊은 감정을 경험하며,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문학 형식이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문학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오게 한 원동력이다. 야콥 그림(Jakob Grimm)은 말속에는 약초보다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²⁴⁾고 말하며, 문학이 인간의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원임을 시사했다. 문학은 이야기 전달에 그치지 않고, 독자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소비하는 수동적 위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의미 생산에 함께 참여할 때 독서는 훨씬 더 생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²⁵⁾ 이것은 단순히 책 읽는 행위를 넘어 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독서치료라 한다.

독서치료는 책, 특히 문학이 치유적 속성을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초기에는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보조적 기능을 담당했다. 그 후 많은 연구와 검증을 통해 최근에는 다양한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발달적 독서치료는 실제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독서를 통하여 가볍게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어 삶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다양한 서사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은 참여자가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작품 속 상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내면의 치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된다.

따라서 독서치료적 방식에 기초한 문학 독서교육은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처럼 개인의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해 좋은 교육 방안이 될 수 있다. 문학이 지닌 치유적 힘을 활용하여,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스스로

24) 르네 웰렉(Rene Wellek/ Austin Warren,) 『문학의 이론』, 송관식, 윤홍노 공역, 한신문화사, 1982, 23 페이지.

25) Gunter Waltmann, Grundzuge von Theorie und Praxis eines produktionsorientierten Literaturunterrichts, in-Handbuch Deutsch, hrsg. v. N. Hopster, Paderborn 1984, 12페이지.

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에서의 문학 수업은 전문 독서치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비록 교수자가 전문적인 치료사 자격은 없을지라도, 문학작품을 매개로 한 발문²⁶⁾, 감정의 발화 및 토론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삶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작품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감정적 해소와 성찰을 경험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문학을 단순한 텍스트 분석 도구가 아닌,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문학 독서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존감 회복, 자아 이해를 통한 인격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트라우마 극복과 상처 치유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수업은 임상적 치료보다는 발달적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치료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문학작품의 치유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고 자아 인식과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자는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발문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문학 속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감정적 해소와 내적 성찰을 경험하도록 이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작품 속 상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내면의 치유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을 활용한 독서치료가 학생들의 자아 성찰과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 만큼, 이제 독서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서치료의 방법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책을 통해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있다. 독서치료는 크게 준비 단계, 자료 선정, 프로그램 실시, 평가 및 후속 조치로 구성된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이 모든 과정에 얹매이며 꼭 지키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준비 단계: 참여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목표로 할 경우, 학생들에게 셀프리더십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자의 셀프리더십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료 선정: 독서치료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도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3) 프로그램 실시: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독서치료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① 낭독: 낭독은 독자가 문학작품 속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낭독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와 정신이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자발적인 치유와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

② 발문: 이 과정은 자기 성찰을 도와주며, 학생들이 문학 속 인물의 경험을 자신의 상황에 투영해볼 수 있게 한다.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인물 사이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감정적 연결을 이루는 동일시가 일어난다.

③ 카타르시스: 동일시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억눌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내적 갈등을 표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이 과정

26) 발문은 참여자를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여 그의 내면세계 속에 치유적 과정을 촉진하려고 하는 물음으로 예, 아니오의 폐쇄적 질문이 아니고 책의 내용 이해나 주제 파악과 같은 물음이 아니다. 참여자의 심리 역동이 일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음으로 이끄는 것을 발문이라 한다.

에서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감정적 정화를 경험하게 된다.

④ 통찰: 교수자는 발문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끈다. 통찰은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⑤ 토론과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생들 간의 토론과 교수자의 촉진이다. 교수자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성찰과 학습이 이루어진다.

⑥ 평가 및 후속 조치: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얻은 통찰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격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얻은 경험을 일상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과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문학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안을 탐구하였다. 문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특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싯다르타』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셀프리더십의 핵심 요소인 자기 성찰과 자기 주도성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작품은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외적 안정을 벗어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의 길을 찾아 자아 완성의 도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셀프리더십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과 발전적 시각을 형성해 가는 데 도움을 준다. 문학 독서교육은 대학생들에게 단순한 학습 이상의 내적 성찰과 자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독서치료적 방식에 근거한 문학 독서교육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 해소와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낭독, 발문, 카타르시스, 통찰 등의 과정은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셀프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문학 독서교육이 대학 교양 수업에서 널리 활용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정일, 「물화를 넘어 인문 정신을 위한 문학 교양의 탐색」,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94호, 2024
- 만프레트 마이(Manfred Ma)i, 『작품 중심의 독일 문학사』, 임호일 역,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4
- 르네 웰렉(Rene Wellek/ Austin Warren,) 『문학의 이론』, 송관식, 윤홍노 공역, 한신문화사, 1982
- 전영애, 「헤세의 교양소설에 나타난 교양인의 길 - 『페터 카멘친트』, 『데미안』, 『유리알 유희』를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 13권 3호, 2020
- 정경호, 혼자 강해지는 힘! 셀프리더십, 리텍 콘텐츠, 서울, 2016
- 헤르만 헤세, 이순화 역, 『데미안』, 더 클래식, 2016
- 헤르만 헤세, 박광자 역, 『싯다르타』, 북북스, 2013
- Günter F. Müller, 「Daniela Lohaus, Fragebogen zur Diagnose von Führung zur Selbstführung」, 2021
- Gunter Waltmann, Grundzuge von Theorie und Praxis eines produktionsorientierten Literaturunterrichts, in- Handbuch Deutsch, hrsg. v. N. Hopster, Paderborn 1984
- Karl Morgenstern, 「Über das Wesen des Bildungsromans」, In: 『Romantheorie. Dokumentation ihrer Geschichte in Deutschland 1620-1880』, Hrsg. von Eberhard Lammert u.a, in , Berlin, 1971
- Mehmet Durnal ı,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Online Learn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urkey」, 202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문학 독서 교육 방안으로 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작품인 데미안과 싯다르타를 중심으로, 문학 독서 교육이 셀프 리더십 함양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셀프 리더십은 필수적인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셀프 리더십의 개념과 대학생에게 있어 그 중요성을 살펴본 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방법을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 데미안과 싯다르타의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내용과 연관성을 밝혀낸다. 그럼으로써 이 두 작품이 어떻게 대학생들의 자기 성찰과 자율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밝히고, 이를 대학의 문학 독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밝힌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이 문학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문학 독서교육은 대학생들이 셀프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유의미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셀프 리더십, 문학 독서 교육, 데미안, 싯다르타, 대학생

■ Abstract

A Literary Reading Education Plan for Enhancing Self-Leadership 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Demian and Siddhartha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literature reading education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elf-leadership, focusing on Hermann Hesse's representative works Demian and Siddhartha as effective tools for strengthening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In modern society, university students are required to set self-directed goals and demonstrate execution abilities, and self-leadership has emerged as an essential competency for achieving these objective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of self-leadership and its importance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n presen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methods through which this can be achieved. Subsequently, it explore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content of self-leadership and the literary analysis of Demian and Siddhartha. By doing so, the study reveals how these two works can lead to self-reflection and autonomous actions in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s how this can be implemented in literature reading courses. This research provides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stablish self-leadership through literary experiences.

In conclusion, literature reading education can serve as a meaningful tool for university students in establishing self-leadership, and the study suggests that i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educational settings.

● Keywords self-leadership, literary reading education, Demian, Siddhartha,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확립을 위한 문학 독서 교육방안」 토론문

송기한(대전대 국문과 교수)

서기자 선생님의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요즈음의 독서는 과거와 달리 내적인 카타르시스 과정을 넘어서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서를 통한 교육과, 문학 치료와 같은 것입니다. 독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인문학이나 문학이 실제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기왕의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기자 선생님의 글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글은 헤세의 대표적인 작품인 「데미안」과 「싯다르타」를 분석하여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실용적인 면들, 가령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는 글입니다. 가령,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청년기에 겪는 방황과 좌절을 벗어나 자신 속에 잠재해있던 내면의 역량이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올라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를 이루어내게 되고, 궁극에는 자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도정에 이르렀다고 이해합니다.

미몽의 상태에 놓인 자아가 어둠을 깨고 선명한 자아로 떠오르는 과정은 『싯다르타』에서도 『데미안』과 같은 도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 논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싯타르타는 고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도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자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뚜렷한 정체성이란 무엇인지를 찾아 미지의 공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이르는 경지, 곧 해탈의 경지를 발견하는 도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 결정과 자기 주도적 성장의 단계들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데미안」을 비롯한 헤세의 일련의 작품들, 아니 헤세가 활동하던 시기는 교양의 시대입니다. 교양시대란 새로운 지식과 이를 토대로 성장하는 존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궁극에는 근대적 인간형으로 자리 잡는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면들은 계몽의 시대에 있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작품의 이해와 이를 토대로 지금 이곳의 존재들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절정에 놓여 있는 대학생의 삶과 비교하여 이들의 셀프리더십을 분석한 것은 무척이나 새로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과 의문점이 있습니다. 셀프리더십을 성장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대학생에 대입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셀프리더십이 필요한 세대가 반드시 대학생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생을 지난 청년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에게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이들에 대한 존재론적 위치라든가 왜 이들이 텍스트의 분석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둘째는 셀프리더십과 자아 성장과의 관계입니다. 리더십이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물망 의 선 두입니다. 자아 성장과 그에 따른 자기 결정, 자기 주도형의 인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 관계의 그물 망 속에서 이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양의 정도나 자아정체성의 확보만으로 리더십이 곧바로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셋째는 독서 교육과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의 개념이란 너무 넓고 크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적 실험이나 그 효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자연과학적인 치료의 세계로 발전하는 것은 정말로 난망한 일입니다. 따라서 『데미안』에서의 주인공이나 『쉴타르 타』의 주인공들의 삶이 교육이라는 현장, 치유라는 임상 의 현장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매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플라톤과 셰익스피어
: 서구 정치 리더십 담론의 두 기원**

충남대학교, 서영식

플라톤과 셰익스피어

- 서구 정치 리더십 담론의 두 기원

서영식(충남대)

1. 들어가는 말

플라톤(Platon, c. 428-348 BC)과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서구 인문학계의 양대 산맥 같은 존재이다. 두 인물의 존재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을 떠올려 보자. 화이트헤드(A.N. Whitehead, 1861-1947)는 『과정과 실재 *Process and reality*』에서 유럽의 철학적 전통은 플라톤 사상에 대한 일련의 각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¹⁾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영웅 숭배론 *On Heroes, Hero-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에서 영국인에게 있어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고 인도보다도 오래 지속될 존재라고 말한 바 있다.²⁾ 또한 앨런 블룸은 『미국 정신의 종말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에서 20세기 들어 급속히 퇴락한 미국 고등교육 교육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두 역사적 인물로 플라톤과 셰익스피어를 소환하였다.³⁾ 나아가 근래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플라톤의 고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100만 개에 달하는 대학 강의에 교재로 채택된 책을 집계한 ‘오픈 실러버스 익스플로러(Open Syllabus Explorer)’에 따르면, <국가>는 7개 아이비리그 대학의 130여 개 강좌에서 채택돼 1위에 올랐다”⁴⁾.

왜 세상은 아직도 플라톤과 셰익스피어에 주목하는 것인가? 주지하듯이 고전(classics)은 전통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먼 낯선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며, 아무도 발 들여 놓지 않은 거친 땅을 개척하여 새로운 길을 열었기에 후대에도 살아남은 책이다. 나아가 고전이란 후대의 독자들에게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제공하는 책으로도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 읽기는 기존의 익숙했던 영역과는 전혀 다른 낯선 영역으로 들어가기이며,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세계 이해의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플라톤과 셰익스피어는 과거에는 서구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리고 21세기에는 세계의 지성인과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고전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군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플라톤과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의 두 역사적인 천재가 인간을 둘러싼 정치 세계에 관

1) “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of the European philosophical tradition is that it consists of a series of footnotes to Plato.”

2) “Consider now, if they asked us, Will you give-up your Indian Empire or your Shakespeare, you English... Officials would answer doubtless in official language; but we, for our part too, should not we be forced to answer: Indian Empire, or no Indian Empire, we cannot do without Shakespeare! Indian Empire will go, at any rate, some day; but this Shakespeare does not go, he lasts forever with us; we cannot give-up our Shakespeare!”

3) 앨런 블룸, 『미국 정신의 종말』, 이원희 역, 범양사, 1989.

4) 『헤럴드 경제』, 2016.2.8.

해 생각한 바를 리더십 스펙트럼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가능한 범위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왜 특별히 리더십 차원에서 플라톤과 셰익스피어를 비교하려 하는가?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는 리더십 스펙트럼을 통해서 볼 때 두 인물이 전개한 정치사상의 특징과 지향점 그리고 한계가 가장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고, 상호 간의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주장에 속할 것이다.

사실 두 인물의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과 세계를 둘러싼 정치 현상에 대한 해석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조금 단순하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서구의 정치사상사는 이 두 인물이 제시한 인간관과 정치술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변형하거나 혹은 보다 치밀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 형이상학(political metaphysics)과 정치적 실용주의(political pragmatism) 간의 대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플라톤과 셰익스피어가 전개한 두 가지 정치 리더십 담론 사이의 차이점과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다음의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두 작가는 자신이 책임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찾아내서 공유하며 함께 도달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진지하면서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간의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개략적으로라도 보여주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플라톤의 철인왕 리더십

2.1 철인왕은 어떤 존재인가?

플라톤은 『국가』 5권(473e-480a)에서 철인왕의 특성과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이상국가의 건설을 위해 철학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함을 주장한 후에⁵⁾, 통치 활동을 하는 철학자가 갖추어야 할 인식론적·윤리적·실천적 차원의 자격조건을 『국가』의 여러 논의 맥락 속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를 요약적으로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철학자는 “지혜(sophia)”를 추구하고 “진리(alētheia)”를 관조하기 좋아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학습과 배움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⁶⁾ 나아가 철학자는 자신의 덕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수호자나 생산자 같은 이상 국가 내부의 다른 시민 계층이 각자의 덕성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헌신과 자질, 즉 나라 전체의 잠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

5) cf. 『국가』, 473d. 플라톤은 다른 곳에서도 철학자가 통치를 맡아야 하는 당위성을 반복해서 언급하였다. cf. 『국가』 편, 499b; 『편지들』(일곱째 편지), 326a. 주지하듯이 철학자의 정치참여에 관한 플라톤의 주장은 서구 정치사상사의 전개 과정에서 큰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독창적인 사상가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칸트와 포퍼가 비판한 바 있다. “국왕이 철학자와 같이 사색하고 철학자가 국왕이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또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자유로운 이성의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왕이나 국왕 같은 사람들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철학자 집단을 소멸시키거나 침묵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통치를 올바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철학자 집단은 본질적으로 선동이나 집단적 결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논란한다고 해서 선전자들로서의 혐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I. 칸트, 『영구평화론 - 하나의 철학적 기획-』, 이한구 옮김, 서광사, 2008, p.59. 또한 다음을 참고. K.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I』, 이한구 역, 민음사, 2006.

6) “모든 배움을 선뜻 맛보려 하고 배우는 일에 반기며 접근하고 또한 만족해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국가』, 475c.

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모를 지녀야 한다.⁷⁾

두 번째, 철학자는 내면의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절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철학자가 통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 세월 동안 육체와 정신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 나아가 오랜 기간의 교육과 검증과정을 거쳐 국가를 수호하는 철인왕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공인된 사람에게는 가족구성과 재산소유가 금지되며, 공동식사를 포함한 일종의 합숙생활만이 허용되는 등 보통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즐거움을 대부분 포기해야 한다.⁸⁾ 왜 그런가? 아마도 플라톤은 통치계층이 일상에서 개인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억제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함으로써, 가족이나 사유재산의 소유보다 훨씬 더 큰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을 사유화하거나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치계층의 개인적인 욕망의 억제는 그들에게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의 절제가 가능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일상의 훈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통치에 참여하는 철학자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동시에⁹⁾, 시민들의 지도자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구성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최상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철인통치자가 폴리스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 논쟁¹⁰⁾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배의 비유’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 6권 초반부(488a ff.)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따르면, 배는 국가(polis)를, 배의 주인인 선주는 민중(dēmos)을, 조타술(kybernēsis)은 나라의 경영을, 참된 키잡이(선장)내지 조타술에 능한 사람은 철학적 소양이 있는 통치자를, 그리고 항해기술도 없으면서 선주를 미혹에 빠트리거나 특정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선원들은 당대의 현실정치인들과 민중선동가들(demagōgoi)을 암시한다. 이 비유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은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플라톤의 관점에서 철학자가 키잡이 즉 통치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았는지 간략히 검토해 보자. “키잡이가 참으로 배를 지휘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되려면, 한 해(年)와 계절들, 하늘과 별들, 바람들, 그리고 그 기술에 합당한 온갖 것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게 그에게 있어 필연적인 것이네. 그래서, 남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키를 어떻게 조종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조타술을 습득해야 하네 (...)”¹¹⁾ 이 인용구절에서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키

7) 철인통치자에게 요구되는 헌신적인 자세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국가』편 503a f.

다른 한편, 궁극적으로 철학자는 플라톤이 존재와 인식 그리고 진리의 가능 근거로 상정한 “좋은 이데아(idea tou agathou)”의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좋은 이데아는 철학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식대상이다. 이 개념의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필자의 다른 글 참고. 서영식, 「좋은 이데아의 특성과 그에 대한 인식 -태양과 선분의 비유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71(2005), pp.135-154.

8) 이러한 논의는 『국가』편 5권에 등장하는 이른바 세 차례의 파도 중 두 번째 파도(457c-466d)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9) 플라톤은 철인왕의 통치자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편 후반부의 상당부분은 이를 위한 변증법 훈련을 비롯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로 채워진다. 플라톤의 교육이념 및 내용에 대한 소개로는 다음을 참고. W. Jaeger, *PAIDEIA, Die Formung des griechischen Menschen*, dritter Band, Berlin, 1955, pp.1-104.

10)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다수의 고전연구자들은 그의 비판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나 민중 자체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의 정치적 입장을 예컨대 K. 포퍼가 주장하듯이 독재적 전체주의의 원조로 단순히 평가절하할 수도 없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관계상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이에 관한 근래의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 손병석, 「플라톤과 민주주의」, 『범한철학』, 78(2015), pp.39-69; B.M. Fissell, “Plato’s Theory of Democratic Decline”, *Polis* 28-2(2011), pp.216-234; T. Samaras, *Plato on Democracy*, Peter Lang Publishing, 2002.

11) 『국가』, 488e ff.

잡이가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노를 빨리 젓거나 배의 방향을 바꾸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항해 전반에 필요한 폭넓은 이해와 기술 그리고 경험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플라톤이 보기에 적어도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제대로 갖춘 키잡이라면, 그는 자신의 기술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기술의 대상인 배 자체와 배 안의 동료들을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런 키잡이 및 통솔자는 키잡이에게 편익이 되는 걸 미리 생각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이며 통솔을 받는 자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고 지시하기”¹²⁾ 마련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밖의 어떤 다스림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다스리는 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 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지시하는데”¹³⁾, 근본적으로 “모든 다스림은, 그것이 다스림인 한은, (...) 다름 아닌 다스림을 받는 쪽 그리고 돌봄을 받는 쪽을 위한 최선의 것을 생각”¹⁴⁾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철인왕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그가 내적으로는 지성과 절제의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을 거의 완벽하게 컨트롤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430e)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 철인왕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의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깨닫고 이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조직의 잠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2.2 철인왕과 국가정책

이상적인 나라의 근본틀을 구상하는 정치철학 저술인 『국가』 편에서는, 인간은 덕을 배우고 익히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입장을 넘어서, 이러한 삶이 현실화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윤리적인 삶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철인왕 같은 통치자가 현실 속에서 명확한 국가운영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본분에 충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플라톤 연구자들은 『국가』에서 철인왕이 되기 위한 자격이나 조건 혹은 교육과정은 상세하게 묘사되었으나, 정작 철인왕이 실제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왔다.¹⁵⁾ 그러나 이 작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플라톤이 “이상적인 나라”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한 것으로 유추할만한 국정의 원칙이나 정책적 사유의 단초들이 여러 지점에서 등장한다.

2.2.1 경제정의 실현과 정경분리 원칙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를 운영하고 수호하는 통치자 그룹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오직 이들 수호자들만이 나라를 잘 경영하고 행복하게 하는 계기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421a) 따라서 통치자 집단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임명할 경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

12) 『국가』, 342e ff.

13) Ibid.

14) 『국가』, 345d f.

15) 필자의 관찰에 따르면, 철인왕의 통치 방향이나 정책내용을 다룬 논의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향은, 과연 이들이 나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주목할 점은 저자가 이 문맥에서 한 나라의 행복과 안정의 현실적인 토대로 일종의 경제정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플라톤은 국가의 타락과 분열의 일차적인 원인을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나친 부와 빈곤 현상에서 찾았다. 개인의 과도한 부는 “사치와 게으름 및 변혁을 초래”하는 반면에, 지나친 빈곤은 “변혁에 더하여 노예근성과 기량의 떨어뜨림을 초래”(422a)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부와 빈곤이 공존하는 나라는 더 이상 “한 나라(mia polis)”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과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따라서 언제라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나라”에 다름 아니다. 이에 통치자들은 “나라가 충분하고 하나인 것이도록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수호해야”(423c)하는데, 그 방법은 현실에서 빈부의 격차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것이되, 특히 통치자 그룹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빈곤 속에서 불신과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2.2.2 능력 존중 사회구현

플라톤은 이른바 ‘영혼 삼분설’(434d-445b)을 근거로 인간을 태생적으로 세 가지 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나아가 이 세 계층은 각각에 적합한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자세(“절제”)가 바로 이상국가의 토대이자 출발점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플라톤이 영혼의 성향에 따라 신분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를 지향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플라톤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안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가 사람들이 출신성분과 성별에 따라 차별받았던 당시의 관습을 일정부분 극복하고, 개인 각자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

이상국가 프로젝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직업에 따른 계층의 구분이 불가피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여하에 따라 신분질서의 변동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플라톤의 묘사에 따르면, 이상국가의 모든 시민은 완전히 양육된 채로 같은 어머니인 대지에서 태어났다. 이상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 바, 신은 통치자의 부류는 황금, 보조자는 은, 농부나 장인은 쇠와 청동을 섞어 만들었다. 그렇지만 출신성분이 좋더라도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정된 직업과 다른 일에 종사하도록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직업의 단순한 세습은 명확히 부정되는데, 이 원칙을 무시할 경우에는 아무리 이상국가라도 쇠퇴와 몰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cf. 415a-c) 나아가 플라톤은 자신이 구상한 철인 통치자 교육의 요체에 관한 대화 상대자들의 비판과 회의를 반박하는 한 대목에서(세 가지 파도의 첫 번째 논의), 여자도 통치에 필요한 수련과 교육과정을 거쳐 능력을 갖추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통치그룹에 합류할 수 있으며, 이 원칙은 여타의 모든 직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cf. 454de, 540c)

플라톤이 보기에 인간 사이의 우위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오직 학습이나 암기와 연관된 지적인 능력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을 뿐이다. 머리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장발인 사람이거나 대머리인 사람 모두 기술만 있으면 똑같이 제화공 노릇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의술을 익혔다면 남자건 여자건 모두 의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cf. 454c-455e) 결국 한 인간의 역할을 정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별과 관계없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여부이며, 이것은 다시 적절하게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내면의 욕구나 육체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2.2.3 전쟁수행과 국가수호

플라톤의 정치사상은 전쟁을 논하지 않고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가 활동했던 기원전 5세기경은 전투가 삶 속에서 일상화되었던 전쟁의 시대였으며, 평화의 시기는 곧 다가올 다음 전쟁을 위한 휴지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전쟁을 인류의 삶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을 앞세우기 보다는, 전쟁과 살육은 가능한 한 피하되 이웃나라나 외부세력의 침입 혹은 국가전복 세력의 발흥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국토방위의 핵심주체인 ‘수호자(phylax)’들을 제대로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플라톤에 따르면 국토방위와 전투임무수행에 종사하는 수호자계층 이외에도, 이상국가의 국정운영그룹인 철인왕들은 기본적으로 전사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고의 전쟁수행능력’은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과 더불어 이상국가의 철인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이라는 것이다.(cf. 543a) 즉 전쟁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철학적 자질과 더불어 국가운영의 필수조건인 바, 철인 통치자 후보들은 양성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년간 전문적인 수준의 철학교육(변증술적 논변)을 받은 후에, 반드시 오랜 기간 동안 전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나아가 전투현장에서 직접 지휘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cf. 539e) 이에 철인 통치자 교육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은 전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배양과 연관되어 있다. 통치계층 양성과정 초기단계부터 (376c-412b) ‘시가’(mousikē)교육과 더불어 강조된 ‘체육’(gymnasium)교육은 전투상황에서 요구되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플라톤이 최고수준의 정신능력이 요구되며 감각적인 현상 배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것’(진리와 존재)을 인식하는 지적 도구로 평가했던 기하학 역시, 현실에서는 전투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술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cf. 525c ff., 526d, 527b ff.)

2.2.4 법의 지배와 덕의 지배

플라톤은 이미 초기작품인 『변론』과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 및 죽음과의 연관 속에 법과 제도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으며, 특히 『국가』에서는 개인의 덕성함양과 법에 대한 인식 및 준법적 태도가 상호 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논의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법의 본질은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지하는 강압적인 태도에 있지 않다. 법률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생각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덕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내면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이상국가 안에서 시민의 바람직하고 덕스러운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와 복종을 전제로 한다. 이상국가는 법 없이도 유지되는 천상의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 대부분의 동의하에 제정된 훌륭한 법률체계가 철인 통치그룹에 의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된 예에 해당되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저자 플라톤은 인간의 윤리적 타락은 일차적으로 법에 대한 존중 즉 준법정신의 상실과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완벽한 인적 자원이 갖추어진 이상국가가 수립되더라도, 통치자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합리적인 전통과 이성에 기초한 실정법은 현실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상국가의 통치자는 한 번 제정된 법률은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을 고의로 어기거나 법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의 발생과 동일한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에서는 철인통치자가 법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국법수호는 의심의 여지없이 철인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간주되는 바, “아름다운 것들과 올바른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과 관련되는 이 세상의 관습을 정해야만 될 필요가 있을 때는, (...) 이미 제정된 것들은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일”(484d)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이다. 결국 『국가』에서 전개된 법의 지배 담론은, 통치자의 역량과 헌신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덕성함양과 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나아가 그가 법치의 차원에서 현실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될 것이다.

2.3 현대 리더십 관점에서 본 철인왕 담론의 의의와 한계

철인왕 담론은 완벽한 국가 통치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쉽지만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지는 않다. 20세기 후반에 소개된 한 가지 흥미로운 리더십 담론을 매개로 철인왕 프로젝트의 성격을 음미해 보자.

리더십을 현대적 학문체계로 새롭게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번스(James McGregor Burns, 1918-2014)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다양한 리더들의 행동 경우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개념을 통해 분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¹⁶⁾ 주지하듯이 거래적 리더십은 한 조직의 리더와 나머지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교환관계’(exchanging relation)로 상정한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세밀히 파악하면서 그들이 기대 수준의 열정과 성과를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¹⁷⁾을 제공하고, 역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수준에 비례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번스에 따르면 단기적인 성과와 조직의 안정에 만족하고 보상 차원의 동기유발을 지향하는 거래적 리더십과 달리,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조직의 장기 목표 즉 미래에 대한 공유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소통을 추구한다. 즉 변혁을 지향하는 리더는 구성원 각자가 내면의 변화 의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거래적 리더와 달리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과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수평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하며, 나아가 상호 간에 감정이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차원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리더는 구성원이 물질적 욕구충족만이 아닌 정신적 충만감에서 살아있는 기쁨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이익 중심적 사고에서 비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번스의 리더십 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특성과 지향점, 대상과 효과 등 여러 면에서 대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번스에 따르면 리더가 구성원과의 정서적 유대와 일체감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경우에, 나아가 리더가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도록 자극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플라톤의 철인왕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 한국사회에 등장하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번스가 제시한 ‘변혁적 리더’의 핵심 특성들을 상

16) 번스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주로 현실 정치인들을 분석과 예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다음의 저술들에서 자신의 입장을 포괄적인 설명하고 있다. J.M. 번스, 『제임스 M. 번스의 리더십 강의』, 한국리더십연구회 역, 생각의나무, 2000, 3-4부(원저는 *Leadership*, 1978); J.M. 번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조중번 역, 지식의날개, 2006, 5부(원저는 *Transforming Leadership: The Pursuit of Happiness*, 2003).

17) 번스는 이것을 “조건적 보상”(contingent reward)으로 표현하였다.

당부분 소유한 정치인으로서 대중의 열광을 한 몸에 받을 것이다. 반면에 ‘거래적 리더’는 철인통치자의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 어떤 경우에도 멀리하고 본으로 삼지 말아할 저속하고 타락한 부패 정치인의 표본에 근접할 것이다.¹⁸⁾ 그러나 우리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역사 현실 속에서 과연 위의 두 리더십 이론은 상호 모순적이며, 따라서 두 개념에 내포된 특성들이 한 명의 리더 안에서 병존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까? 또한 번스가 주장하듯이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현실 속의 지도자는 공동체의 변화나 발전이나 비전제시와는 원칙적으로 거리가 먼 존재인가?

번스의 변혁적 리더십 담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바스(Bernard Morris Bass, 1925-2007)에 따르면, 앞의 두 리더십 개념은 번스의 주장과 달리 한 차원의 양 극단에서 존재하는 상호 모순적 개념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은 각자 명백히 독립적인 개념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에서는 거래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을 보완할 수 있다.¹⁹⁾ 또한 나이(Joseph S. Nye, Jr., 1937~)에 따르면 우리가 번스의 이론을 좇아 쉽게 단정하는 것과 달리, 세상의 모든 거래적 리더가 단지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되는 ‘하드파워’ 자원에 의존하며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현상유지에만 만족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다수의 성공한 변혁적 리더들은 자신의 조직이나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또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녔으면서도,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흔히 거래적 리더십으로 편휘되는 수단과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다.²⁰⁾

우리가 플라톤이 제시한 철인왕 담론이 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플라톤이 제시한 철인통치자의 외적인 자격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른바 ‘이상국가’에서 추진한 다양한 국가정책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그의 국정운영 담론은 현대인의 시각에서도 별로 흠잡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국가운영 프로젝트 안에는 현실 세계에서 통치자나 정치인이 자신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사실상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메넥세노스』의 논의를 잠시 살펴보자.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정치지도자로 손꼽히는 페리클레스(BC 495-429)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행한 전몰자 추도 연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주지하듯이 펠로폰네소스의 연설은 고대 세계에서 정치인들이 행한 무수한 연설 중에서도 대중에게 가장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서구의 역사에서 정치연설의 중요한 모범으로 평가되었다.²¹⁾ 그런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연설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 세대 앞서 활동했던 현실정치인 페리클레스의 아테네 제국주의와 대중 민주주의 정치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플라톤의 관점에서 볼 때 페리클레스의 “제국주의는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덕목들

18) 아마도 거래적 리더와 리더십은 『국가』 8-9권(543a-576c)의 이른바 ‘나쁜 정체들의 네 유형과 이것을 닮은 사람들의 성향’에 등장하는 ‘명예정체’와 ‘과두정체’ 및 이 정체를 닮은 사람들과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19) 번스가 주로 정치지도자들을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전개했다면, 바스는 변혁적 리더십을 기업경영과 조직운영에 적용하여 논의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다. 주지하듯이 바스는 변혁적 리더의 구성요소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이상적 상상력(idealized influence); ②영감적 동기부여(inspirational motivation); ③개별적 배려(individualized consideration); ④지적 자극(intellectual stimulation). cf. B.M. Bass,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N.Y. Free Press, 1985, ch.2-3.

20) 나이는 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정치상황과 사회질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거래적인 수단을 자주 사용한 인물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n 1882-1945)를 들고 있다. 조지프 나이, 『미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사회의 창조』, 인간사랑, 2015, p. 24 ff.

21) 예를 들어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의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 1863.11.19)은 페리클레스의 연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고 덕의 실천의 조건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전통적인 지지자들에 대한 믿음의 일부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²²⁾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플라톤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현실 세계 특히 정치의 영역은 엄밀한 ‘지식’(epistēmē)이 아니라 ‘의견’(doxa)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극복한 완벽한 도덕주의자나 최고 수준의 지식으로 무장한 정치이론가보다는,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시의적절하게 조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 성공한 통치자의 반열에 들어설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실제로 그와 같은 자질을 갖춘 리더가 공적인 ‘이익’(utilitas) 즉 ‘공공성’(publicness)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음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지속해서 증명하고 있다.²³⁾

3. 셰익스피어의 리더십 리얼리즘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내포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고대나 중세의 문학작품과 달리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인물이 “천상의 신적인 존재나 무오류의 전설적 영웅이 아니며, 비록 일반인보다는 훨씬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성격상으로나 인격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²⁴⁾는 점이다. 특히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권력투쟁을 묘사한 작품들을 일별해 보면, 대개 주인공인 “리더들이 어떤 방법으로 궁극의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명확하게 승리를 쟁취했던 인물들이 왜 실패와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인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성공한 리더 위주의 기존 문학 담론과는 분명 차별화된 리더십론”²⁵⁾이 전개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등장하는 리더들은 예를 들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전능한 존재처럼 행세하거나(『리처드 3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차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환상에 빠지거나(『맥베스』), 공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권력을 순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익 추구에 이용하거나(『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권력 주위를 맴도는 인물들의 감언이설과 이간질에 속아서 이용당하고 결국 몰락하는(『리어왕』) 등 자기 자신과 주변 관리에 실패하면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²⁶⁾. 따라서 독자들은 “한때 정상에 우뚝 섰으나 반복된 실수나 판단 착오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영웅 혹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리더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정치권력의 속성과 관련해서 더 큰 교훈”²⁷⁾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의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에 주목하고 이를 매개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심층적으로 해부하는 셰익스피어의 서술 경향과 대척점에 놓인 작품이 몇 편 존재한다. 즉 작가가 리더의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닌 정치 현실을 직시하고

22) 플라톤(2011), p.44. (역자의 작품해설)

23)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옥타비아누스(Gaius Julius Caesar Octavianus, BC63-AD14)를 서양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옥타비아누스의 정치활동 및 공공리더십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서영식,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사상과 거래적 변형리더십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수용과 연계하여-」, 『동서철학연구』, 101(2019), pp.309-337.

24) 서영식,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맥베스』와 리더의 조건」, 『범한철학』, 111(2023), p.7 f.

25) 서영식(2023), p.7.

26) 서영식(2023), p.23.

27) 서영식(2023), p.24 f.

대처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외적인 작품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들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구상한 리더십 담론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는 셰익스피어가 랭커스터 가문(House of Lancaster)의 창업 과정을 묘사한 까닭에 이른바 ‘랭커스터 4부작’(Lancaster Tetralogy) 내지 ‘헨리아드’(The Henriad)로 일컬어진 일련의 역사극의 대미를 장식하는 『헨리 5세』이다.²⁸⁾ 이 작품의 주인공인 헨리 5세(Henry V, 1386-1422)는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가 “영국의 별”(This star of England)로 칭송한 인물이다.²⁹⁾ 주지하듯이 그는 백년전쟁(1337-1453)의 한 장면인 아쟁쿠르 전투(Agincourt, 1415.10.25)에서 병력과 자원의 심각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둠으로써 영웅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역사에 새겨져 있다.

또 다른 작품군은 일련의 로마극(Roman plays)에 속하며, 로마 공화정 말기의 내란을 배경으로 한 『줄리어스 시저』와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들의 표면상의 주인공인 카이사르나 브루투스나 안토니우스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극 가운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옥타비아누스를 주목한다. 왜 그런가? 여타의 표면상의 주인공들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정치적 이상이나 탁월한 능력이나 고결한 애국심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비극적인 방식으로 죽음에 이른다. 반해, 셰익스피어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옥타비아누스를 정계 입문 당시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장기간 지속된 정치투쟁을 인내와 끈기로 견뎌내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그는 백여 년간 이어졌던 로마 공화정의 내란을 끝내고 최후의 정치적 승자가 되었다. 나아가 그는 집권 이후 40여 년간 이어진 로마인들의 거의 자발적인 복종에 기반해서 로마를 당시 유일무이한 세계 제국으로 성장시켰으며, 또한 이백여 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Pax Romana)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³⁰⁾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인물 묘사에는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헨리 5세와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셰익스피어 보여주고자 했던 리더십의 방향에 관해 음미해 볼 것이다.

3.1 현실주의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묘사된 헨리 5세와 옥타비아누스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정치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그것은 우선 철저한 ‘마키아벨리스트’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정치사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평생 집필활동을 이어갔지

28) ‘랭커스터 4부작’을 구성하는 작품은 『리처드 2세』, 『헨리 4세 I』, 『헨리 4세 II』, 『헨리 5세』인데, 헨리 볼링브룩(Henry Bolingbroke, 1366-1413)이 자신의 재산을 몰수하려 한 사촌이자 왕인 리처드 2세를 폐위시키고 헨리 4세에 등극하고, 이후 아들 헨리 왕자가 헨리 5세로 왕위를 이어받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헨리 4세가 랭커스터 가문 출신으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왕으로 등극하였기에 랭커스터 4부작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29) 『헨리 5세』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표현이다.

30)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리더로서의 진면목은 십여 년간 이어진 정치투쟁에서 보여준 주도면밀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책략가의 모습에서보다는, 절대권력을 차지한 이후 40여 년 동안 수행한 최고통치자로서의 다양한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서영식,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사상과 거래적 변혁리더십 -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수용과 연계하여-」, 『동서철학연구』, 101(2021), pp.317-333.

만, 그가 동시대의 독서 대중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사상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이름을 남긴 것은 무엇보다 『군주론』 덕분이다. 그리고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부정적인 표현 역시 일차적으로는 정치공학(political engineering)³¹⁾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성향의 인물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3.1.1 헨리 5세

정치지도자가 온전히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몇몇 정치 사상서에 등장하는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서고금의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각자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신뢰와 의심 그리고 충성과 반역을 손바닥 뒤집듯 시전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나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세상사가 대개 그렇지만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자신 이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수많은 정치희곡(political power play)에서는 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플롯이 전개되고 있으며, 『헨리 5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외형상 잉글랜드의 군주이며 최고 권력자인 헨리 5세를 둘러싼 정치판의 실제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하였다. 국가를 지탱하는 주요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교회와 귀족과 평민은 외견상으로는 충성을 맹세하고 있으나 이들은 한순간에 지도자를 배신할 수 있는 성향과 잠재력을 지닌 세력이었다. 또한 이들이 적극적인 반란이나 배신행위는 자제하더라도, 대부분의 판단과 행동은 사실상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극 중에 묘사된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자.

극의 시작(1막 1-2장)과 더불어 등장하는 영국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캔터베리(Canterbury) 대주교와 일리(Ely)의 주교)은 헨리 5세가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와의 전쟁 계획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압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이들은 왕이 민심 회복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 법안, 즉 교회의 영지 중 일부를 수용하여 노약자 보호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폐기하도록 설득하여 교회의 재산을 최대한 보존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교회의 엄청난 재산축적으로 인한 민중의 반감을 애국적 신앙심을 내세워 무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쟁 정국에서 국론의 분열을 막는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교회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이른바 ‘살리크 계승법’(Salic law of succession)을 소환하여 프랑스와의 전쟁 개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럴듯한 연설을 장황하게 시연하고 더불어 왕의 전쟁 비용 분담 요구에도 흔쾌히 동의한다.³²⁾ 이러한 교회의 속마음을 간파한 헨리 5세 역시 전쟁의 대의명분을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떠넘기기를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잠재적인 위협³³⁾을 구실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부담을 공언한 전쟁 비용보다 더 큰 액수의 재물을 국가에 헌납할 것을 거리낌 없이 요구한다.

교회와 더불어 정치권력의 양대 축인 귀족 세력도 겉과 속이 다르기는 마찬가지이다. 귀족 세력의 본심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헨리 5세가 프랑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일부 귀족들이 적국과 내통하여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실이 들통나는 2막 2장

31)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 권모술수에 기반한 행동 방식

32) cf. 『헨리 5세』, 1.2.33-221

33) 이 장면은 현실적으로 영국이 아직 통일되지 않고 대립과 분열 상태에 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헨리 5세의 왕권이 스코틀랜드 같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음, 그리고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나온다. 케임브리지 백작 리처드, 마샴의 헨리 스크루프 경, 토머스 그레이 경 세 사람이 반역자들인데, 헨리 5세의 입장에서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와 가장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음모를 미리 간파한 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 모의자들의 죄과를 폭로함과 동시에 이들이 자신의 반역에 대해 어떠한 자비도 베풀 수 없는 상황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무자비하게 처형해 버린다.

이처럼 작품 전체를 통틀어 진심으로 헨리 5세 편에 서는 개인이나 정치세력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 상황은 그가 권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마키아벨리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자극해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헨리 5세가 당시 영국과 프랑스 양국간의 국력이나 국제정세로 볼 때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훨씬 높은 전쟁을 도박처럼 선택한 이 유이기도 하다.³⁴⁾

이미 왕자 시절부터 다양한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고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처세에 능했던 헨리 5세는 자신의 통치 능력을 극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극 중에서 헨리 5세는 살리크 법에 명시된 프랑스 왕위 계승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쟁을 개시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볼 때 그에게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 확보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전쟁의 승리와 국민의 환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전쟁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는 달리, 동서를 막론하고 근대 이전의 세계에서 전쟁 개시는 국가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의 증거였다. 또한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은 아무리 피해가 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헨리 5세는 오랫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지리상 가장 근접해 있는 프랑스에 일부러 무리하게 여러 공작령(公爵領)의 인도를 요구하여 상대국 정부를 자극하면서도 사소한 구실로 전쟁 발생의 원인을 프랑스 루이 황태자(Louis the Dauphin)에게 전가하는 잔꾀를 부린다.³⁵⁾

3.1.2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주로 안토니우스와 정치적·군사적으로 대결을 벌인다. 그런데 그는 전작인 『줄리어스 시저』에서와 달리 더 이상 정치 초보자가 아니고 따라서 안토니우스의 의지와 판단에 끌려다녀야 하는 처지도 아니다. 즉 그는 당시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세계의 절반 혹은 삼분의 일을 지배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옥타비아누스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인물의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스트의 모습과 닮아있다. 예컨대 그는 이집트에서 향락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안토니우스를 로마로 소환하고, 그가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내 풀비아(Fulvia, BC 83-40)와 동생 루키우스 안토니우스(Lucius Antonius, BC 80-?)가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문제 삼은 후, 향후 자신과의 정치적 유대관

34) 이미 그의 아버지 헨리 4세는 비교적 일찍 찾아온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왕관을 물려줘야 하지만 별로 믿음이 가지 않던 말쑥꾸러기 장남 헨리 왕자에게 내부가 혼란스러울 때는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히 애쓰지 말고, 오히려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외부에서 적을 찾으라고 조언하였다. 헨리 5세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아들이었지만, 이 유언만큼은 가슴 깊이 새기고 확실히 실천하고자 한 것 같다. cf. 『헨리 4세 2부』, 4.5.213-15

35) cf. 『헨리 5세』, 1.2.245-299

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하나뿐인 누이 옥타비아(Octavia, BC 69-11)와 결혼할 것을 측근 아그리파를 통해 제안한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혼인 제안 당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연인관계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또한 그는 친누이 옥타비아가 자신과 유사하게 “신앙심이 깊고, 차갑고, 말이 없는 성격”(2.6.153)이기에 쾌락주의자인 안토니우스와는 기질상 잘 맞지 않을 것이고³⁶⁾, 따라서 “사랑보다는 정략적”(2.6.149)인 이유로 행해진 이번 “업무상 결혼”(2.6.162)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옥타비아누스는 혼인 약속과 거의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즐거움”을 찾아 “이집트로의 귀환”(2.4.44)을 준비하는 안토니우스에게 누이를 보내야 하는 현실 상황으로 인해 괴로워 한다. 그러나 서글픈 감정도 잠시뿐이고, 그는 결국 옥타비아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적의 손아귀에 넘긴다.³⁷⁾

이 밖에도 그가 주변 사람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옥타비아누스는 극의 종반부에서 직전까지 바다 한가운데서 전투(악티움 해전)를 벌였던 숙적 안토니우스가 마침내 자살을 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적당히 표정을 관리하면서 비통해하는 모습을 선보인다.³⁸⁾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줄리어스 시저』 종반부에서 브루투스의 죽음 앞에서 벌인 퍼포먼스를 떠올리게 한다. 즉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애도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목하의 비극적인 상황이 반드시 후세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예감하고는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행적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처신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장면은 바로 뒤에 등장한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자살을 확인한 직후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가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로마에로의 귀환길에 그녀가 동행할 것을 종용한다. 클레오파트라를 전리품 삼아 로마 개선식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에 이집트 여왕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클레오파트라는 대화 직후 몰래 자결을 선택한다. 잠시 후 그녀의 죽음을 확인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자결 소식을 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가 왕족으로서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했다고 추켜세우고는 두 사람의 장례식을 (자신이 경멸하던 이집트의 예법에 따라) 성대하게 거행하고 함께 묻어줄 것을 명령한다. 그는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명예와 로마 민중의 구경거리 제공을 위해 한 나라의 여왕을 그녀가 지닌 위엄과 인격은 무시한 채 한갓 전리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는 전리품이 갑자기 죽어버리자 다시 역사적인 기록과 주변의 평가를 염두에 둔 지극히 의식적이며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³⁹⁾

이처럼 옥타비아누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냉혹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일련의 행보는 적어도 당시의 정치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극단적으로 비윤리적인 일탈행위와는 거리를 두었다. 또한 그의 마키아벨리스트적 행동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 획득과 더불어 로마의 국익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권이나 민중들 사이에서 큰 거부감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36)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기질상 안토니우스와 맞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하였다. “난 저자가 말한 내용을 크게 싫어하지 않아, 그러나 말하는 태도는 싫다. 행동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친구로 남을 것 같지는 않구나.”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2.2.133 ff.

37) cf.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3.2.29-82

38) cf.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5.1.46-59

39) cf.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5.2.400-436

3.2 역사의식

정치지도자의 역사의식이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한이 단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 성취되었고 따라서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일종의 사적 ‘소유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한시적으로 부여한 ‘위임 권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이다. 나아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형성된 정치적 권한을 바탕으로 언젠가 자신이 지위에서 물러나더라도 후임자가 더 발전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태도와도 연결된다. 비록 헨리 5세와 옥타비아누스 두 사람은 정치활동 내내 권력의 쟁취와 유지를 위해 지독한 현실주의자의 행보를 이어왔지만, 이들은 동시에 정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역사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3.2.1 헨리 5세

『헨리 5세』에서 주인공의 리더스피릿(leaderspirit)이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장엄하게 묘사된 장면으로는 아쟁쿠르 전투 당일 아침에 행한 연설(4.3.20-67)을 꼽을 수 있다. 흔히 ‘성 크리스핀 축일의 연설’(St. Crispin’s Day speech)로 지칭되곤 하는 전투 개시 전 독려 연설에서 헨리 5세는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온통 쏟아부으며 휘하 장병들의 영혼 속에 애국심과 전우애와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날의 연설을 최후의 일전을 눈앞에 둔 한 영국군 총사령관이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보인 즉흥적 퍼포먼스 정도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헨리 5세의 연설은 가깝게는 전투 전날 지친 몸을 이끌고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밤새도록 병사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전쟁과 국가에 관한 그들의 속마음을 파악한 후, 왕이 홀로 감당해야 할 고독과 책임감을 절감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길러 올린 자기인식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⁰⁾ 나아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되돌아보면 그가 왕자 시절부터 오랜 세월을 민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갖추게 된 지도자로서의 자신감, 즉 자신이 책임진 백성들의 언어와 의식과 생활 방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그들과 가치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자기 확신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부하들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의 언어를 기대했던 헨리 5세가 밤을 지새우며 세 명의 병사⁴¹⁾와 나누는 토론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화는 군왕으로서는 단번에 수궁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우나 기층민들의 본심(죽음에 대한 공포와 전쟁의 명분에 대한 회의와 왕을 포함한 지배층에 대한 불신)을 확실히 보여주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특히 병사 윌리엄즈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⁴²⁾ 만약 국왕의 결정에 따라 개시된 전쟁의 명분이 옳지 않다면, 자신의 의지

40) “헨리 5세 : (...) 왕의 이름 앞에 늘어놓는 거창한 존칭, 왕이 앉는 왕좌도, 이 세상의 높은 암벽을 때리는 밀물 같은 화려한 걸치레도, 아니, 이 모두를 모아 놓은 매우 호화로운 예식, 이 모두를 모아 군주의 침상에 늘어놓아도 미천한 노예와 같이 깊은 잠에 빠질 수는 없음을 알고 있다. (...) 의식을 제외하고는 낮엔 힘들여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곤히 잠을 자는 그런 미천한 자들이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이득을 누리지 않는가. 나라의 평화를 누리는 노예는 그것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그 둔한 머리로는 왕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단잠을 자는 시간에도 얼마나 밤을 새워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헨리 5세』, 4.1.250-272)

41) 존 베이츠(John Bates), 알렉산더 코오트(Alexander Court), 마이클 윌리엄즈(Michael Williams)

42) “윌리엄즈 : (...) 전장에서 죽는 사람치고 기독교도답게 죽는 자는 별로 없을 텐데, 서로의 피를 흘리는 게 일인 전쟁터에서 누가 자비심을 베풀 수 있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들을 전쟁터로 끌어낸 왕한테 불명예가 되는 셈이지. (...)” (『헨리 5세』, 4.1.142-145)

와 상관없이 오직 명령 때문에 전투에 참여한 병사가 잔혹한 살육을 자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저주를 오직 혼자서 감당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이런 병사가 정황상 제대로 회개도 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국왕은 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⁴³⁾ 그런데 밤새 울려 퍼진 비판의 목소리는 역설적으로 왕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시 숙고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헨리 5세는 불신으로 채워진 민중들의 속마음이나 기회주의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모름지기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과에 대해 무한히 책임지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리더라면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팔로워들과 흔쾌히 나눌 줄 알아야 함을 토론 과정에서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본래 정치의 영역에서 리더가 누리는 모든 명예와 권력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무수한 팔로워들의 절대복종과 희생 위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투 당일 장병들 앞에서 행한 왕의 연설에는 무엇보다 이 사실에 대한 통찰이 반영되어 있다.

3.2.2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향해 행한 비판의 핵심은 그가 로마가 자신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본분을 망각한 채 방탕하게 생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안토니우스가 “남시하고, 마시고 흥청망청 밤의 등불을 낭비하고 있으며, (...) 모든 사람들이 가진 온갖 잘못의 본보기가 되어가고” 있는바, 그의 “경솔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⁴⁴⁾ 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구체적으로는 안토니우스의 비협조 때문에 로마의 적으로 선포된 폼페이우스파의 지속적인 성장과 군사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점점 더 상실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과거에 안토니우스가 한때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으로서 최상의 인내심을 갖고 국가를 위해 활약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안토니우스가 상실한 전통적인 로마의 가치(충성, 명예, 용기, 인내 etc.)를 자신이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다. 자신만큼은 권력은 유구한 전통과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따라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아들로 알려진 카이사리온(Caesarion, BC 47-30) 및 두 사람 사이의 자식들에게 동방의 주요 국가들을 나누어주는 의식을 행한 일을 거론하면서, 그것은 배신자가 내뱉은 “로마에 대한 모욕”⁴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치의 역사성과 연속성에 관한 옥타비아누스의 통찰은 본분을 망각한 안토니우스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장기간의 권력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사실상 절대권력을 행사하게 된 상황 이후에도 지속된다. 예컨대 그는 “집권 초반기에도 여전히 원로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공화주의자 그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거 카이사르와 직접적으로 대립했던 공화파 인물들, 예컨대 폼페이우스, 술라, 키케로 등을 추앙하는 정치성 행사를 묵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의 후손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입증되면 주저 없이 고위직에 등용하는 등 개방적인

43) 윌리엄즈의 입장 자체는 비교적 논리를 갖추고 있으며 수긍할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상 정규교육이나 철학적 성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기층민 출신의 병사가 사후 영혼의 책임 문제와 같이 종교적이며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는 것은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헨리 5세』에 등장하는 기층민 출신의 왕의 옛 친구들이 표현하는 언어나 의식 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44)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1.4.1 ff

45)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3.6.1 ff.

태도를 취했다.”⁴⁶⁾ 이처럼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권력에 내포된 역사적 성격을 통찰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업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관용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과 더불어 역사 속의 존재인 로마 시민들의 인화와 단결에 힘썼다.

3.3 공유 비전

특정 조직이나 사회를 이끄는 리더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리더의 스킬이나 테크닉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헌신적인 자세이다. 특히 리더라면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태도와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정신’(leaderspirit)이란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필요로 하는바, 즉 조직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공유비전으로 형상화한 후 다시 구성원과 더불어 성취할 수 있는 실천적 자세와 역량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1769-1821)이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말한 까닭이기도 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리더십 연구자 중 한 사람인 맥스웰(John C. Maxwell)이 “리더란 길을 알고 길을 걸으며 길을 보여주는 사람”⁴⁷⁾이라고 규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한 후 함께 도달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다.

3.3.1 헨리 5세

아쟁쿠르 전투 직전에 행한 헨리 5세의 연설은 임파워먼트 리더십(empowerment leadership)이 현장에서 구현된 하나의 모범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원정 이래 병사들의 사기가 가장 떨어진 상태에서 리더이자 총사령관인 헨리 5세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부하들을 “가죽 끈에 매인 사냥개”(3.1.32)로 되돌려 놓아서 목전의 프랑스군을 향해 두려움 없이 질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왕은 무엇보다도 장병들이 적당히 긴장한 가운데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싸움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그는 병사들에게 막연한 애국심이나 국가와 가족들을 위한 희생의 숭고함 같이 진부한 표현을 늘어놓는 대신에,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면 영국군 용사는 모두 “나의 형제”(my brother)이자 “전우”(band of brothers)로서 획득한 이익을 분배적 정의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나아가 신분의 상승⁴⁸⁾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였다.⁴⁹⁾

이처럼 파격적인 연설 내용은 헨리 5세가 오랜 세월 민중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서히 의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전투 개시 직전 병사들과의 야간 토론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제는 왕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더 이상 타고난 신분적 특권만을 내세움으로써 존엄과

46) 서영식(2021), pp.320 ff.

47) “A leader is one who knows the way, goes the way, and shows the way.” 맥스웰이 강조한 리더의 특성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 존 맥스웰, 『리더의 조건』, 전형철 역, 비즈니스북스, 2012; 존 맥스웰, 『리더십 불변의 법칙』, 홍성화 역, 비즈니스북스, 2010.

48) “This day shall gentle his condition.” (『헨리 5세』, 4.3.63)

49) 그런데 헨리 5세의 발언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는 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에 오직 귀족들의 생사 여부만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전사자들과 관련해서는 “그밖에 훌륭한 가문 출신은 없다”(none else of name)고 말함으로써 아직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계급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cf. 『헨리 5세』, 4.8.101-113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였음, 즉 과거와 달리 오직 개인의 능력과 업적 그리고 고귀한 행동을 통해서만 각자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한 것이다.⁵⁰⁾ 또한 헨리 5세의 연설은 그가 민중으로 구성된 병사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즉 영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바로 분배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에 있음을 깨닫고 이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순발력과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3.2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적 비전이자 공적은 무엇보다 로마와 로마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그는 안토니우스와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이렇게 단언하였다. “세계 평화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오늘이 성공적이라면, 세 귀통이의 세상이 자유롭게 올리브 나뭇가지를 쓰게 될 것이다.”⁵¹⁾ 이러한 모습은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개인적인 감정에 몰두하는 안토니우스와 큰 대조를 이룬다.⁵²⁾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 사회에서 평화의 시기란 끊임없이 발발하는 전쟁 사이의 휴지기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은 인간의 삶에 늘 동반되는 현상이었다. 이에 고대의 다양한 문헌 자료 속에서 전쟁은 질병이나 죽음과 마찬가지로 삶의 여정에서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conditio humana)으로 여겨져 왔다.⁵³⁾ 따라서 현대와 달리 고대인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현실에서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 속의 이상향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에 대해 언급하고 또한 이것을 현실에서 어느 정도 구현한 것은 하나의 정치적 기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끄는 동시대의 팔로워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절치부심한 리더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4. 나오는 말

20세기 중후반 미국 데탕트 외교의 주역이자 국제정치학자로 명성을 쌓았던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1923-2023)는 마지막 저서 『리더십』에서 정치지도자에게는 무엇보다 “역사의식과 비극에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⁵⁵⁾ 그의 발언은 플라톤과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정치 리더십의 지향점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톤과 셰익스피어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정치를 해석하는 방식

50) 이 점은 저자 셰익스피어가 정치권력의 속성과 전개 방식을 묘사한 거의 모든 비극과 역사극에서도 반복적으로 암시되고 있으며, 르네상스의 세례를 받은 그의 작품들이 지닌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51)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4.6.5 ff.

52) cf.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4막 13-15장

53) 고대 그리스 사회의 다양한 문헌자료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소개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 N. Spiegel, *War and peace in classical Greek literature*, Jerusalem : Mount Scopus Publ, 1990, pp.45-97.

54) 흔히 로마의 평화로 일컬어지는 옥타비아누스의 평화 정책 덕분에 향후 이백여 년의 시간 동안 지중해 유역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거의 발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은 적어도 고대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긍정 평가에 반해 역사적 관점에서 파스 로마나의 현실과 한계를 지적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 차전환, 「파스 로마나: 평화의 선전」, 『사총』, 88(2016), pp.121-146.

55) 헨리 엘프리드 키신저, 『리더십』, 서종민 역, 민음사, 2023, p.521.

은 외견상으로 볼 때 조화나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결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렇지만 두 작가 모두 자신이 책임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찾아내서 공유하며 함께 도달하기 위해 숄선수범하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와 리더십을 둘러싼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어쩌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플라톤은 한마디로 진리 정치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정치활동은 철학자의 지식이 아니라 다중의 의견에 기반해서 그리고 본질이 아닌 현상의 영역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플라톤의 정치적 이념은 권력을 획득한 사람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또한 그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통찰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철인왕 리더십 담론은 현실 세계의 정치인들에게 그들이 비록 완벽히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지향해야 할 사유와 행위의 가치 기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 과거에 먼 바닷길에 들어선 선원들이 항해 중에 하염없이 바라보던 북극성처럼.

셰익스피어는 정치 세계의 현실을 가식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정치에 임하는 인간의 심리를 대단히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큰 재미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영역의 리더는 지나치게 도덕적 이상주의에 몰입하거나 주관적인 감정에 함몰됨으로써 현실의 목표를 망각하는 상황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지도자라면 반드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팔로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그가 제시한 정치희곡의 담론은 수백 년이 흐른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는 정치적 인간의 모습을 지나치게 탐욕적으로 묘사한다거나 냉소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는 대개의 작품에서 자신이 염두에 둔 정치적 이상을 명확히 제시할 법한 순간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인상을 준다.

플라톤과 셰익스피어는 리더가 익혀야 할 외형적인 기술(leadership)을 넘어, 리더가 지향하고 갖추어야 할 정신세계(leaderspirit)를 인문학 차원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흥미롭게 묘사한 인물군에 속한다. 특히 두 작가는 정치의 영역에서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리더십은 결코 혈통을 통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거나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고난의 경험 다시 말해서 ‘리더십 자기 수업’(leadership self-lesson)을 바탕으로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함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⁵⁶⁾ 그렇지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와 리더십에 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좀 더 설득력 있고 새로운 리더십 담론의 출현은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어쨌든 약 25세기 전에 지중해 일대를 방랑하며 고뇌하고 사색했던 플라톤과 르네상스라는 문화적 세례를 받으며 대영제국의 출범기에 활동했던 셰익스피어가 제시한 리더의 자격과 실천궁행에 관한 담론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정치 지도자상 정립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같다.

56) 리더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참고문헌

- 플라톤, 『국가·정체』, 박종현 역, 서광사, 2005.
- 플라톤, 『메넥세노스』, 이정호 역, 이제이북스, 2011.
- 윌리엄 셰익스피어, 『헨리 5세』, 최경희 역, 동인, 2020.
- 윌리엄 셰익스피어, 『헨리 4세 1부』, 임도현 역, 동인, 2015.
- 윌리엄 셰익스피어, 『헨리 4세 2부』, 권오숙 역, 동인, 2016.
- 윌리엄 셰익스피어, 『줄리어스 시저』, 김성환 역, 동인, 2019.
-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송원문 역, 동인, 2016.
- 서영식, 『플라톤철학의 실천이성담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서영식,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사상과 거래적 변혁리더십 - 키케로의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수용과 연계하여-」, 『동서철학연구』, 101(2021), pp.309-337.
- 서영식, 『리더와 리더스피릿』,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서영식,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본 『맥베스』와 리더의 조건」, 『범한철학』, 111(2023), pp.5-28.
- 서영식, 「‘영국의 별’ 헨리 5세의 자기인식과 리더스피릿 -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를 중심으로」, 미발표 원고
- 서영식, 「셰익스피어 로마극의 숨은 주인공 옥타비아누스」, 미발표 원고
- 키신저, 헨리 엘프리드, 『리더십』, 서종민 역, 민음사, 2023.

「플라톤과 셰익스피어_서구 정치 리더십 담론의 두 기원」에 대한 논평문

김요한 (전북대학교 철학과)

1. 이 논문에서 서영식 교수(이하 논자)는 서구 정치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플라톤과 셰익스피어의 리더십 이론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일까? 그 이유는 논자에 따르면 서구 정치 사상사는 이 두 인물이 제시한 인간관과 정치술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 형이상학과 정치적 실용주의 대결이라고 간주된다(p.2). 하지만 이 두 정치적 리더십 담론은 그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논자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 두 리더십 담론은 무슨 차이와 공통점을 갖는 것일까?

2. 논자는 제1부에서 『국가』 5권(473e-480a)에서 제시된 플라톤의 철인왕 리더십을 분석한다. 플라톤은 이상 국가 건설을 위해서 철학자가 국가경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철학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는 첫째,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관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내면의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철학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면서 공익을 지향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플라톤은 이를 철학자가 키잡이가 되는 “배의 비유”(metaphora navis)를 통해서 설명한다. 키잡이(κυβερνήτης)가 항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두루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철인왕은 전문성과 도덕성 모두의 측면에서 큰 크림을 그려야만 한다 (p.4).

3. 한편 플라톤은 철인왕의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제도적 토대가 되는 국정 원칙들 몇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 나라의 행복과 안정의 토대로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그는 국가의 타락과 분열의 원인은 지나친 부와 빈곤 현상에 있다고 생각했다(422a). 이에 통치자는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423c). 두 번째는 능력 존중 사회의 구현이다. 이상국가의 모든 시민은 어머니 대지(γᾷα)의 자식들로 직업에 따른 계층 구분은 불가피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서로 평등한 능력을 갖는다(454d). 세 번째는 전쟁 수행을 통한 국가수호 가능성이다. 기원전 5세기 경 그리스 사회에서 전쟁(πολεμός)은 일상적 생활이었다. 이와 관련해 플라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방위의 주체인 수호자(φύλαξ)를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는 훌륭한 법률체계의 구축이다. 플라톤은 법이 본질이 강압적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덕과 연결시킴으로서 내면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p.6) 따라서 국법 수호는 억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과 올바른 것들과 좋은 것들과 관련된 관습”(καλῶν τε περὶ καὶ δικαίων καὶ ἀγαθῶν, 484d)의 보존이었다.

4. 논자는 제2부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들에 내포된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다. 논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성

공한 리더 위주의 기존 문학 담론과 차별화된 리더십론”은 전개하고 있다(p.9). 하지만 논자는 이 글에서 일반적 경향과는 차별화된 『헨리 5세』의 주인공인 헨리 5세와 『줄리어스 시저』와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국가』에 등장하는 옥타비아누스에 주목한다. 논자가 관찰한 헨리 5세와 옥타비아누스의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에 바탕으로 마키아벨리적이라는 점이다(p.11). 현실 정치영역에서 지도자는 자신 이외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헨리 5세의 경우에는 교회, 귀족, 평민을 어떻게 다뤄야할지의 문제에서,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서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p.13).

5. 헨리 5세와 옥타비아누스의 리더십의 두 번째 특징은 역사의식의 공유이다. 논자에 따르면 이 둘은 정치활동중에는 권력의 쟁취와 유지를 위해서 철저한 마키아벨리식 현실주의를 보여주었지만, 철학적으로는 강한 책임감과 역사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p.14). 헨리 5세는 아쟁쿠르 전투 당일 아침에 행한 연설(4.3.20-67)에서 왕으로서 국가와 국민과 관련된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보여준다. 또한 옥타비아누스도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국가』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타락한 정치인으로 안토니우스를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로마의 가치(충성, 명예, 용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선포한다(p.15). 이런 방식으로 두 지도자들은 모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정치의 역사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보여준다.

6. 마지막으로 헨리 5세와 옥타비아누스의 리더십이 가진 특징은 비전의 공유이다(p.16). 리더는 “구성원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필요한 하는바, 즉 조직과 사회가 추구해야할 시대정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공유비전으로 형상화한 후 다시 구성원과 더불어 성취할 수 있는 실천적 자세와 역량”을 갖춰야만 한다(p.16). 헨리 5세는 프랑스 원정에서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에게 전투를 승리하면 모두가 “나의 형제”이자 전우로서 획득한 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며 신분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병사들에게 영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 분배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와 로마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희망”을 보여준다(p.17). 그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로마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있다.

7. 논자의 수려한 글을 읽으면서 플라톤과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또 다시 많은 성찰을 배울 수 있었다. 두 위인들에 대한 논자의 날카로운 텍스트 분석과 다양한 리더십 이론의 해석이 이 글에서 보석처럼 돋보였다. 논자의 해석과 관련해서 논평자는 다음 몇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플라톤 정치철학 이론이 아직도 21세기 다원주의 사회에서 유효한가? 플라톤 정치철학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되는 칼 포퍼(Karl Popper)는 그의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논자는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포퍼는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국가가 전체주의적이며, 자유로운 사회의 적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주의 비판: 포퍼는 플라톤의 철학이 역사주의(historicism)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역사주의는 역사에 필연적 법칙이 있어 인간이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그의 정치철학은 역사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적론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포퍼는 이를 위험하다고 본다. 특히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 통치자는 이러한 역사적 법칙을 알고 있는 엘리트 집단으로서, 그들이 국가를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2) 철인왕 개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의 통치자는 지혜로운 철학자 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퍼는 이 철인왕 개념이 반민주적이며, 엘리트주의에 기반을 둔 위험한 사상이라고 비판한다. 철학자 왕은 선과 진리를 알고 있다고 가정되지만, 포퍼는 이러한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3) 계층 사회 옹호: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엄격한 계층 사회를 제시하는데, 이는 통치자, 군인, 노동자로 나뉘는 고정된 신분제를 강조한다. 포퍼는 이러한 계층 제도가 사람들의 사회적 이동성과 자유를 억압하며,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그는 개방된 사회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4) 전체주의적 경향: 포퍼는 플라톤의 철학이 전체주의적 경향을 띤다고 본다. 플라톤은 개인보다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국가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퍼는 이러한 철학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적 통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8.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Henry V)는 영국 역사극 중에서도 특히 왕의 리더십과 정치적 전략이 중심 주제가 되는 작품이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를 비범한 영웅이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그리지만, 이 인물의 리더십은 다층적이며 복잡한 방식으로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헨리의 리더십은 이상적인 군주상과 권력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듯 보이지만, 이를 더 면밀히 분석하면 도덕적 타협, 선전, 정치적 계산이 결합된 모습이 드러난다. 과연 헨리 5세의 리더십이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1) 전쟁과 선전의 리더십: 헨리 5세의 리더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의 전쟁에 대한 접근이다. 헨리는 즉위하자마자 프랑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히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볼 수 있다. 헨리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끌어내려 한다. 그러나 전쟁의 정당성은 도덕적으로 모호하다. 프랑스를 침략하는 이유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헨리의 고문인 캔터베리 대주교는 헨리의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논리를 제공하지만, 이는 신학적이거나 도덕적 관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헨리는 전쟁을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군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또한 헨리는 선전을 통해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는 생크루아 전투 전날 밤의 장면이다. 헨리는 군사들에게 강렬한 연설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신과 군대 사이의 동지애를 강조한다. 그의 연설은 전장에서의 영광과 명예를 강조하며,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싸우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연설은 리더십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를 비판적으로 보면 헨리는 전쟁의 위험과 고통을 감추고, 전쟁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미화함으로써 병사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2) 권력과 도덕성의 충돌: 헨리의 리더십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권력과 도덕성의 충돌이다. 헨리는 왕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도덕적 딜레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헨리는 자신이 왕좌에 오르기 전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특히 팔스타프)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한다. 이는 군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인간적인 관계와 도덕적 의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팔스타프는 헨리에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헨리에 의해 버림받는다. 이는 헨리가 인간적인 유대를 냉정하게 끊어버릴 만큼 권력 중심적인 인물

임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 공주 캐서린과의 결혼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헨리는 프랑스와의 평화를 위해 캐서린과 결혼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의 결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동맹을 위한 도구적 결혼이다. 헨리는 자신의 권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결혼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 감정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3) 병사들과의 관계_ 위선적 리더십: 헨리 5세는 전투 중 병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로 그려진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 병사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돌아본다. 이는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 장면 역시 위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헨리는 전투가 끝난 뒤 승리한 영웅으로서 병사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지만, 그가 병사들에게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또한 헨리는 병사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한 병사가 전쟁 중 자신의 죽음이 왕의 책임이라고 말할 때, 헨리는 왕의 결정은 신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며, 전쟁에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한다. 그는 전쟁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며, 자신이 군주로서 내려야 할 도덕적 책임을 부인한다. 이로 인해 헨리의 리더십은 권력자다운 면모와 동시에 책임 회피의 문제를 드러낸다.

4) 폭력과 권력의 정당화: 헨리의 리더십은 폭력과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 가장 명백한 예는 하프뢰르 성 포위 전투에서 나타난다. 헨리는 성을 항복시키기 위해 프랑스 시민들을 위협하며, 항복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학살과 약탈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그의 냉혹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폭력과 위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강조한다. 헨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잔혹한 수단도 정당화하며, 이는 그의 리더십이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또한 전투가 끝난 후, 헨리는 항복한 프랑스 군사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결정이다. 헨리는 승리한 후에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수단을 서슴지 않으며, 이는 그의 리더십이 인간적인 도덕성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에 나타난 헨리 5세의 리더십은 여러 측면에서 찬양받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분석하면 도덕적 타협과 권력의 남용이 드러난다. 헨리는 군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 정당성과 인간적인 의리를 희생한다. 전쟁을 정당화하고 선전으로 병사들을 선동하며, 폭력과 위협을 사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의 리더십은 전체주의적이고 위선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헨리 5세는 셰익스피어가 그린 군주의 이상이면서도, 동시에 군주의 권력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는 인물, 즉 리더십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9.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는 로마 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권력과 리더십을 탐구한 작품들이다. 이 두 작품에서 옥타비우스 시저(Octavius Caesar)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며, 그의 리더십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특히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옥타비우스는 주요한 정치적 경쟁자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와의 대립을 통해 그의 리더십이 부각된다. 옥타비우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지도자로 그려지지만, 그 리더십은 여러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의 리더십은 정치적 계산, 냉혹함, 권력 지향성 등을 바탕으로 하며, 이 리더십 역시 도덕적 타협과 인간적인 요소의 결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1) 정치적 계산과 냉정한 리더십: 옥타비우스 시저의 리더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적 계산이다. 그는 매우 전략적이고, 감정적이기보다는 실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줄리어스 시저』에서 시저의 암살 이후 로마는 혼란에 빠지고, 옥타비우스는 이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 그는 시저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암살범들에 맞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가 감정적인 복수심이 아닌, 철저히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리더임을 보여준다. 특히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그의 정치적 계산은 극에 달한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삼두정치 체제에서 옥타비우스는 끝내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로 자리 잡는다. 안토니가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에서 감정에 휘둘리며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반면, 옥타비우스는 냉정하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의 이러한 냉혹함은 때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비판적이다. 옥타비우스는 권력을 위해 인간적인 감정과 의리를 배제하며, 이러한 성격은 그를 비인간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지도자로 부각시킨다.

2) 권력의 추구와 도덕적 타협: 옥타비우스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권력 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권력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도덕적 타협을 서슴치 않으며, 이는 그의 리더십이 냉혹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옥타비우스는 삼두정치를 통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권력을 나눠 가졌지만, 그는 이 권력 분배를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로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동맹 관계에 있던 레피두스를 제거하고, 결국 안토니우스와 전쟁에서 승리해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옥타비우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기만과 조작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그의 가장 큰 도덕적 타협 중 하나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비극적 운명을 다루는 방식이다. 옥타비우스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이용하고 그들의 몰락을 조장하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정치적 승리를 위해 인간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기 전, 옥타비우스는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이는 그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연민을 배제하고, 권력과 지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삼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옥타비우스의 권력 추구는 로마 제국의 확장과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냉혹하게 경쟁자를 제거하고, 동맹조차도 쉽게 배반하며, 이로 인해 그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3) 인간적 감정의 결여: 옥타비우스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효율성과 권력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감정적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휘둘리고, 결국 이로 인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옥타비우스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한 판단을 유지한다. 이러한 감정의 억제는 그가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로 인해 인간적인 면모가 결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옥타비우스는 안토니의 자살 소식을 듣고도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안토니와는 한때 정치적 동맹이었고, 서로 동지로서의 관계를 공유했지만, 옥타비우스는 안토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애도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옥타비우스가 권력 앞에서 인간적인 유대를 무시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간적인 감정은 그에게 불필요한 약점일 뿐이다. 또한 옥타비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전혀 감정적인 연민을 보이지 않는다.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한 후에도, 그는 그녀의 죽음을 단순히 정치적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권력과 승리의 상징으로 삼으려 한다. 이는

그가 정치적 성공을 위해 인간적인 정서를 완전히 배제하는 리더임을 드러낸다. 또한 옥타비우스는 리더로서 자신의 공공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을 로마 시민들에게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면서, 혼란과 내전을 종식시키는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그는 철저히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며, 로마 시민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리더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위선적인 모습이다. 옥타비우스는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정치적 음모를 꾸민다. 예를 들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옥타비우스는 마치 자신이 로마 제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절대적인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경쟁자인 안토니를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무력화하며, 최종적으로 로마 제국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는 그의 리더십이 이중적이며, 비인간적이며,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정치적 욕망을 혼합하는 괴물적인 리더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대학교양교육 연구에서의 리더십 개념 적용을 위한 이론적 소고

목원대학교, 민웅기

대학교양교육 연구에서의 리더십 개념 적용을 위한 이론적 소고

목원대학교, 민웅기

1. 서론

대학교육과 관련한 각 학문 분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리더십(leadership)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리더십은 사회 내 존재하는 특정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과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개별적인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과업의 지시를 통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의 지지와 복종을 이끄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김운호, 2019; 민웅기, 2023; 이학희, 2019; 한형서 2021). 현대사회에서 이 리더십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본격적인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각 개인이 추구하는 이해관계(interests)에 대한 조정과 협의 과정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갖 추고 있어야 할 주요 역량이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하게 되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범주의 조직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조직의 목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리더(leader)의 역할은 중요하다. 조직 내 리더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전 제시는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동기를 일지시키고,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 수행 과정이 요구된다. 결국 이 같은 환경적 특징으로 인해 리더십의 기본 개념이 내재화되는 과정과 리더의 사회적 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커졌 으며, 한 개인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 사회화 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하는 주요한 교육 콘텐츠가 되었다.

이제 리더십 관련 연구 성과를 통해 익숙한 학술 용어로 자리 잡은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팀 리더십, 셀프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등의 개념들은 오랜 연구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범주화되어 현재는 교육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그 각각의 개념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연계되어 리더십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성공적인 리더의 자질을 강조하는 특성이론, 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의 효율적 행위에 대해 정리한 행동이론, 리더십이 작용하는 환경적 요소를 중시하는 상황이론, 조직구성원의 혁신 및 몰입 행동의 본질을 분석하는 변혁추구이론, 조직구성원의 리더십 함양과 관련한 교육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육성이론 등의 내용이 학계에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대학교육 분야에서도 이 리더십 연구는 다수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교양교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 분야 연구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리더십 역량의 함양과 관련한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구체적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성격, 지능, 효능감, 적응력, 몰입, 문제해결

능력 변수 등의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분석한 논문(김경아, 2016; 김대규, 2009; 김미경, 2010),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이행 효과를 실험군과 대조군, 또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한 집단별로 구분하여 이를 비교한 연구(김지영 외, 2015; 이지나, 2020; 조철현, 2014), 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사전·사후 검정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강용관 외, 2017; 김은경 외, 2014; 박소연, 2012; 박은민·박미량, 2015; 박희현, 2011; 신은정·박영숙, 2015), 리더십과 연계한 교과목 수강 대학생들의 리더십 역량을 국적 변수를 중심으로 비교한 연구(이인선·나은영, 2016), 리더십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의식 변화와 그 영향 정도를 질적연구를 통해 해석한 연구(김혜숙, 2022; 김희정·주은선, 2021), 각 리더십을 구성하는 주요 측정 척도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척도를 설문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 연구(노윤신·정철영, 2014; 이기용, 2018) 등이 있다. 또한 위 연구 범주와 겹치기는 하지만 연구대상이 중심이 된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자 리더십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박상규, 2019; 석부길, 2019; 이한나·진민정, 2024; 진민정, 2022)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수정·이석열, 2017; 김은주, 2004; 김진희·정재삼, 2015; 박지영, 2024; 손주영, 2022; 이경선·서제홍, 2005; 이난, 2005; 이승렬·형구암, 2023; 이정희 외, 2015; 이진희, 2018; 장조균·김연, 2024)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 외에도 특정 리더십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목 개발을 위해 기술된 연구도 있다(정연재, 2019).

상술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국내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의 리더십 관련 연구는 학습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사회심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찰하면서 이를 주요 변수로 두고, 리더십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 질적연구를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하거나, 취약점을 보완하기도 하고, 새로운 학습콘텐츠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 교육적 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해왔다.

이 같은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 흐름에 더하여 본고에서는 이들 분석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대학교양교육 연구에서 리더십 개념을 어떤 이론적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와 리더십 교육의 가치 간 연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적층된 다양한 리더십 관련 선행연구가 추구하는 인문학적·사회과학적 가치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학교양교육에서의 리더십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관계성에 기반한 시민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임을 기술하고자 한다.

2. 탈근대사회에서 대학교양교육 콘텐츠로서의 리더십의 의미

탈근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에서의 교양교과 학습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문화 체계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 뚜렷해지고 있는 진리 체계의 중심성 탈피 경향은 대학교양교육의 가치를 사람들이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사회를 지배한 근대성 문화는 인간 개인의 이성에 바탕을 둔 합리성의 가치를 지향한다. 산업사회 시기는 사회의 총체적 진보 과정을 인정하면서 실재와 모사, 진실과 허위 등 이원론적 문화에 기반한 객관주의적 지식체계를 신뢰했다(Farmer, 1995; Giddens, 1990, 1991; Ritzer, 2000). 이와 달리 탈근대성의 문화적 특징은 인간의 의식, 사회환경 변화 등에 내재

한 이질성과 차이성을 강조하며, 이항대립적 지식 구조를 부정한다.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사회환경적 조건의 파편화되고, 비정형적인 불연속적 문화적 특징에 주목하며, 그 가운데 존재하는 진리의 우연적이며, 다원적인 상대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화 과정을 인정한다(Baudrillard, 1981; Farmer, 1995; Harvey, 1989).

따라서 이 같은 탈근대사회에서의 대학교양교육 체계는 유연화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다원적 수준의 진리 체계와 이를 학습하는 복합 정체성을 지닌 인간의 사고방식 및 행위 양식에 기반한 학습 과정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수자는 교육 시 교양지식 전달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과 의식, 문화적 지식을 함양하는 전통적인 기초학문 분과의 지식체계 간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의 수준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Robertson, 1992). 그리고 분화된 지식체계가 선택적 친화력을 지닌 상태로 문화적 친밀성을 유지하면서 지식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연구도 주목해야 한다(Castells, 1996).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생존하고 활동하기 위해 한 개인이 함양하고 있어야 할 주요 역량 중 하나는 리더로서 지녀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복잡한 환경, 상황 속에서 대학교양교육을 위한 학습콘텐츠로서의 리더십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세계적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사회구성원들은 외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위험(risk)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Beck, 1992; Lash & Urry, 1996; Urry, 1995).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안전은 개인화된 선택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조직의 리더에 의해 행해지는 선택을 통해 그 안정성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실존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조직구성원으로서 집단적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지닌 그 복합적인 정체성(multiple identity)에 기반한 삶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Beck & Beck-Gernsheim, 2002; Giddens, 1991).

현대사회와 같은 다차원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에서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통해 묶여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 목표를 기능적으로 수행하고, 갈등 관계를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담화적 커뮤니케이션(discursive communication)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abermas, 1979). 그 상반되는 인간 개인의 가치를 매개하면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조직 리더의 사회적 위상 역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기 전 실질적인 공적 성격을 지닌 마지막 사회화 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리더십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물론 리더십을 바라보는 각각의 학문 분과가 추구하는 리더십 교육의 목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 교육체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는 이 같은 각각 다른 리더십 범주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출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이론적 관점에서의 리더십 연구와 대학교양교육으로의 적용성

리더십 연구 영역의 외연 확장을 위해 각 학문 분과에서는 주로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리더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대부분 리더 및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속한 조직 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한 여러 학문 분과에서 해당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로 조직이 주요 분석 단위로 적용되어 학술 연구가 진행된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등의 학문 분과에서는 이미 이론적, 실용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행되었다. 지금까지 진행

된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의 리더십 연구는 학습 조직을 구성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리더십 교육 콘텐츠를 둘러싼 인식, 해당 변수 간 관계, 교육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는 연구 내용으로 그 논의가 시도되었다.

이 같은 리더십은 인간 간 관계, 인간과 사회 간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론적 관점에서 리더십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리더십 이론의 근원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해 깊이 살펴보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는 현대사회학이론의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리더십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현대사회학이론은 매우 오랜 기간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관련 이론들을 범주화하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구조기능주의 이론(structural functionalism theory)’이 있는데, 이 이론은 어떤 한 사회의 인간 존재의 이유가 그 사회의 기능 유지와 존속에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분석 단위를 인간 개인으로 두기보다는 한 사회가 질서 지워지는 원리를 분석하면서 거시적 측면에서 집합적 수준의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이 있는데, 이 이론은 거시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사회의 본질을 인정하고, 그 구성원들 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 추구 행위와 이로 인한 경쟁적, 대립적 관계가 사회를 이루는 본질이라고 논한다. 셋째,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미시적 관계에 주목하고 그들의 주관적 해석 과정과 공유된 의미의 관계성을 사회 질서의 본질로 파악한다. 넷째,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윤 추구 동기와 이로 인한 보상 체계 간 관계가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 속성이라고 논한다(조나단 터너, 2001; 조지 리처, 2006).

전술한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이론은 거시이론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은 미시이론으로 분류된다. 또한 구조기능주의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 본성을 규범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관념론적으로 분류하며, 갈등이론과 교환이론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상에 대해 합리적 행동을 시도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그 관계성을 유물론적 관점으로 규정한다(Alexander, 1987; Ritzer, 2017; Turner, 2012).

이 현대사회학이론의 네 가지 기본 개념축은 리더십 관련 강좌가 대학교양교육 영역에서 왜 개설되고 있고, 그 강좌 학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에 관한 학습 목표 설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실질적 논의를 위해 먼저 조직론적 관점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연구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있지만, 각 학문 분과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리더십 이론을 정리하면,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추구이론, 육성이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특성이론은 성공적인 리더의 주요 자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성, 성실성, 호감성, 적응성, 지적 탐구성의 특징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말한다. 둘째, 행동이론은 리더가 행하는 효과적인 행동 유형을 분석하여 리더십을 연구하며, 셋째, 상황이론은 효율적인 리더십을 둘러싼 환경적 상황 요소를 분석하는 이론 범주이다. 넷째, 변혁추구이론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몰입,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서적 측면의 리더십을 고찰하며, 다섯째, 육성이론은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종훈·박경아, 2001; 신구범, 2013; 한형서, 2021; Yukl, 2006).

다른 한편 조금 더 광범위한 차원의 조직구성원 특성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한 리더십 이론으로 경로-목표 이론(path-goal theory)이 있다. 이 이론에서 주목하는 점은 조직 내 관계 개념에 기반한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방식이다. 즉 올바른 리더의 행동은 조직구성원의 목표와 목표

달성 경로를 분명히 하여 그들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그 성취를 위한 효과적이며 빠른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그리고 이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리더의 행동 유형, 조직구성원들의 특성, 과업환경 간 관계 속에서 리더십 유형은 지시적 리더십(directive leadership), 후원적 리더십(supportive leadership), 참여적 리더십(participative leadership), 성취지향적 리더십(achievement-oriented leadership)의 범주로 나뉘게 된다(House, 1971, 1977).

한편 경로-목표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리더와 조직구성원 간 관계성을 주요 분석 내용으로 고찰한 이론으로 리더-멤버 교환이론(leader-member exchange theory)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자신과 리더와의 관계를 다르게 지각하기 때문에 조직 내 구성원 수만큼의 서로 다른 리더-멤버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각각의 관계 형성이 개인 및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논한다. 일찍이 이 이론을 제시한 디네쉬와 리덴(R. M. Dienesch & R. C. Liden)은 리더와 멤버 간 교환관계는 상호작용 단계, 리더의 시험 단계, 멤버의 반응·귀인 단계, 리더의 반응·귀인 단계로 구성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Dienesch & Liden, 1986). 즉 리더십은 자체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멤버의 상호작용적 교환관계를 통해 형성됨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양교육 체계 내에서 리더십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상술한 다양한 이론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육과정을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학생들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효용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대사회학이론의 네 가지 범주는 대학에서 실현되고 있는 리더십 학습콘텐츠에 내재한 사회화 과정의 본원적 가치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개괄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격적인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인간에게 부여됨에 따라서 인간은 과거 산업사회에서보다 더 다양한 조직에 소속되어 복합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리더십 교육은 그러한 사회의 하위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구조기능주의 이론적 관점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조직 내, 조직 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의 성립으로 인한 갈등을 관리, 조율, 해결해야 할 사회구성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 내 교양교육 과정에서 실현되는 리더십 교육은 결국 이러한 상이한 갈등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인재상을 사회화시킨다는 점에서 갈등이론적 관점으로 사회의 본질을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갈등론적 관점은 리더십 연구 및 교육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게 다루게 되는 권력, 권위, 복종 등에 관한 개념 학습과도 연결된다.

앞선 구조기능주의 이론적 관점과 갈등이론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교양교육 체계에서의 리더십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의 의미 공유를 통한 리더십 탐구와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리더십에 내재한 관계성 고찰은 미시적 측면에서 사회 질서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리더십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조직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질서를 유지하거나 개발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의사전달 중 발신자의 발언 내용이 수신자에게 본래 의미의 왜곡 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피드백 역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메시지의 부호화와 해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조직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한 내용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학습할 때 직접적인 이론 적용이 나타나는 지점인 것이다.

다른 한편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이 효과성을 띠기 위해서는 조직 내 리더의 권력 및 권위 체계가 일반적인 조직구성원들에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조직구성원이기 이전에 개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리더가 조직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명령체계에 순응, 복종함에 상응하여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예전보다 높은 지위로의 승진일 수도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행동의 자유도를 높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반대로 권력관계에서의 불복종은 그 당사자에게 손해,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강제적 측면의 리더십이 수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리더는 그러한 개별 인간이 지닌 본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직이 원활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가 바로 교환이론적 관점의 리더십 실천 행동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과학 내 기초학문 분과로서 연구되고 있는 현대사회학이론의 내용에는 대학교양교육 내 리더십 연구와 학습을 추동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숨어 있다. 여기에 기존에 진행된 리더십 관련 주요 이론이 연계되어 여러 선행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이론 중 특성이론, 행동이론, 변혁추구이론 등은 사회심리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관점의 현대사회학이론과 연계되어 있으며, 상황이론과 육성이론 등은 이보다 거시적 관점의 이론적 맥락과 그 의미 구조가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리더십 교육은 학습자가 사회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기본 소양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대학교양교육 체계의 주요 교육목표이기도 한 인본주의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성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간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학습되는 개념이다. 즉 관계성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의 시민들 스스로가 함양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 목적을 지닌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리더십 학습을 위해서는 인간의 본원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포함된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리더와 사회구성원의 목표 추구 행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윤리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윤리를 준수하는 리더십 개념은 여러 리더십 관련 연구 분야에서 이미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삶에서 내재화해야 할 사회 윤리의 학습은 대학교양교육의 중요한 교육목표이다. 이는 곧 윤리와 관계된 리더십 학습이 대학교양교육 과정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주제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리더십의 다양한 하위 개념들이 대학 내 여러 교육강좌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채로운 유형으로 연구, 학습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양교육을 구성하는 주요 교육콘텐츠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이론에서 추구하는 이론적 맥락이 내재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구성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거시 및 미시 이론적 관점,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에 입각한 리더십 관련 연구들은 여러 학문 분과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각각의 이론을 지탱하는 현대사회학의 기본 이론

범주인 구조기능주의 이론, 갈등이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바라보는 논의들은 리더십 이론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심층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까지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리더십 관련 연구는 주로 학습자가 인간으로서 함양해야 할 소양을 사회심리학적 변수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교육 효과와 연계하는 설명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계량연구에 의한 변인 간 관계 및 차이 검정이 많이 시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구성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한 리더십 교육의 효과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역시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도 이와 같은 연구 진행 맥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는 대학교양교육 영역의 연구와 결합하여 더 심층적인 학술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리더십 연구의 근간이 되는 리더십의 본질, 가치에 관한 이론적 성찰 과정이 다소 간과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연구 및 학습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각 학문 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학습콘텐츠 개발의 본원적 의미를 관통하는 이론적 흐름을 탐색적 수준에서 정리해보고자 했다. 사회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적 시민성을 기반으로 갖추어야 하는 리더의 기본 소양에 관한 교육은 항상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 성과물은 대학교양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식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다. 탐색적 수준에서 진행된 본 연구가 대학교양교육 학습 과정에 필요한 시민교육을 위한 리더십 이론의 성찰 과정에 기능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가수정·이석열, 「대학생의 개인특성, 통합성과 셀프리더십의 관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권 9호, 2017, 863-873쪽.
- 강용관·임유신·강원석·임현명,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육사 리더생도 양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권 2호, 2017, 113-143쪽.
- 김경아,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리더 초청 교양교과목의 운영 및 효과성: ‘리더십특강’ 수업이 대학생의 셀프에피커시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0권 1호, 2016, 11-40쪽.
- 김대규, 「『리더십』 교과운영의 학업성취도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경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권 3호, 2009, 99-130쪽.
- 김미경, 「인재육성을 위한 리더십교육의 효과 분석」, 『교육실천연구』 9권 1호, 2010, 207-226쪽.
- 김운호, 『리더십의 이해』, 형설출판사, 2019.
- 김은경·박삼열·박윤희·차봉준, 「대학생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을 통한 리더십 역량 증진의 효과성 연구: S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423-432쪽.
- 김은주, 「학습자의 리더십 성향, 커뮤니케이션 성향 및 관계유지행동이 협동학습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8권 3호, 2004, 303-327쪽.
- 김지영·김명아·이숙정·김은정,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권 1호, 2015, 575-586쪽.
- 김진희·정재삼, 「대학생 대상 프로젝트 기반학습에서 팀 리더십, 팀 프로세스, 팀 효과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공학연구』 31권 4호, 2015, 909-948쪽.
- 김혜숙, 「여성주의 리더십 교육에 참여한 여대생에 관한 성찰적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12호, 2022, 841-863쪽.
- 김희정·주은선, 「여대생들의 한국여성리더십 교육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11권 3호, 2021, 111-144쪽.
- 노운신·정철영, 「대학생의 리더십 구인 도출 및 진단도구의 개발」, 『농업교육과인적자원개발』 46권 3호, 2014, 125-157쪽.
- 민용기, 『리더십과 상호작용』, 기문사, 2023.
- 박상규, 「대학 교양체육 참여 학생이 인식하는 교수의 리더십행동유형, 수업만족, 지속적 참여의 구조관계」,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3권 1호, 2019, 1-16쪽.
- 박소연, 「대학 교양기초교육으로서의 리더십 교육 가능성 탐색: A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권 2호, 2012, 105-126쪽.
- 박은민·박미량, 「대학 신입생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6호, 2015, 565-574쪽.
- 박종훈·박경아, 「리더십과 followership간의 적합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효과: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비교」, 『인사관리연구』 24집 2권, 2001, 87-115쪽.
- 박지영, 「대학생 리더 역량과 공감능력이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권 6호, 2024, 606-614쪽.
- 박희현,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인간발달연구』 18권 2호, 2011, 1-20쪽.
- 석부길, 「전공 교수의 서번트 리더십과 대학생들의 창의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구조관계」,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3권 3호, 2019, 132-142쪽.

- 손주영, 「대학생의 리더십코드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권 3호, 2022, 2609-2622쪽.
- 신구범,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2013.
- 신은정·박영숙,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리더십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권 7호, 2015, 4595-4603쪽.
- 이경선·서제홍, 「기독교대학생의 리더십, 신뢰,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7권 1호, 2005, 59-83쪽.
- 이기용, 「인성교육 관점에서 대학생의 리더십 진단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12호, 2018, 219-239쪽.
- 이난, 「대학생의 리더십 집단활동이 리더십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6권 2호, 2005, 387-399쪽.
- 이승렬·형구암, 「전문대학 체육계열 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21권 4호, 2023, 677-686쪽.
- 이인선·나은영, 「베트남과 한국 대학생의 리더십 역량 비교」, 『인문학논총』 41집, 2016, 29-51쪽.
- 이정화·유형숙·이수분, 「한일 관광관련 학과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비교연구」, 『일본근대학연구』 47집, 2015, 323-338쪽.
- 이지나, 「리닝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팀기반 협업수업의 리더십 교육 효과 분석」, 『특수·영재교육저널』 7권 2호, 2020, 63-77쪽.
- 이진희, 「간호대학생의 관리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변화」,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5권 1호, 2018, 122-130쪽.
- 이학희, 『기업경영 리더십: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리더의 사고와 행동』, 청람, 2019.
- 이하나·진민정,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들의 구직효능감, 구직강도와의 관계: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지』 22권 1호, 2024, 203-219쪽.
- 장조군·김연, 「대학 우수 선수의 운동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관리 전략」, 『한국스포츠학회지』 22권 2호, 2024, 801-812쪽.
- 정연재, 「성찰성과 연대성의 회복을 위한 <윤리적 리더십> 교과목 개발 연구」, 『교육문화연구』 25권 3호, 2019, 613-635쪽.
- 조나단 터너, 정태환 외 공역, 『현대 사회학이론』, 나남출판, 2001.
- 조지 리처 저, 한국이론사회학회 외 공역, 『현대 사회학 이론과 그 고전적 뿌리』 박영사, 2006.
- 조철현, 「기독교 대학에서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K대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 논총』 37호, 2014, 261-293쪽.
- 진민정, 「항공서비스학과 교수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진흥연구』 10권 특별호, 2022, 89-111쪽.
- 한형서, 『리더십의 이해』, 비앤엠북스, 2021.
- Alexander, Jeffrey Charles. Twenty Lectures: Sociological Theory since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Baudrillard, Jean.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St. Louis, MO: Telos Press, 1981.
- Beck, Ulrich.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1992.

- Beck, Ulrich & Beck-Gernsheim, Elisabeth.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2002.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 1996.
- Dienesch, Richard M. & Liden, Robert C. "Leader-member exchange model of leadership: A critique and further develop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no. 3 (1986), pp.618-634.
- Farmer, David John.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uscaloosa,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5.
- Giddens, Anthony.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1990.
- Giddens, Anthony.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1.
- Habermas, Jürgen.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Trans.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79.
- 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Oxford: Basil Blackwell, 1989.
- House, Robert J. "A path goal theory of leader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6, no. 3 (1971), pp.321-339.
- House, Robert J. "A 1976 theory of charismatic leadership", In *Leadership: The Cutting Edge*, Eds. James G. Hunt & Lars L. Larson,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7, pp.189-207.
- Lash, Scott & Urry, John.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London: Sage, 1996.
- Ritzer, George.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2000.
- Ritzer, George. *Introduction to Sociology*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7.
- Robertson, Roland.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2.
- Turner, Jonathan H.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2012.
- Urry, John. *Consuming Places*, London: Routledge, 1995.
- Yukl, Gary A., *Leadership in Organizations* (6th ed.), Prentice Hall, 2006.

「대학교양교육 연구에서의 리더십 개념 적용을 위한 이론적 소고」에 대한 논평문

목원대학교, 서정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구적 영향력, 지구온난화 현상, 지구촌 국제관계의 갈등적 상황 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학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대 교양교육의 이념인 자율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자아 성찰 문제는 지금도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자의식 형성은 궁극적으로 인문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의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 과거와 달리 더욱 많은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반(反)인본주의적 가치의 퇴행적 질서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시대적 수요라는 명제는 결국 교육이 물화(物化)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대학교육에 내재한 근본적 가치에 대한 물인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해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이 추구하는 이념, 철학, 사상 등 인문주의에 바탕을 둔 학술적 본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대학교양교육 연구에서의 리더십 개념 적용을 위한 이론적 소고』 연구 발표문은 현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과 관련한 근본적인 이론적 맥락을 세부적으로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께서 그간 대학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리더십 연구의 주제별, 연구 대상별 이론적 범주를 개괄적으로 정리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물들이 현재 리더십 연구에 어떤 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후속 연구로서는 어떤 대안적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까지 추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그간 특수한 연구 대상과 연구 주제 선정을 통해 꾸준하게 진행된 분석 결과물을 하나의 이론적 맥락 속에 묶어서 성찰할 수 있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논평자로서의 견해를 간단히 제시하면, 이 연구 발표문이 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리하신 이론적 흐름이 후속 연구에서 어떤 인문학적 가치를 통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의 리더십 개념에 내재한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성찰적 논의가 부연 설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도출된 본원적인 배경, 목적 등이 현재 리더십 관련 연구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대학교양교육 콘텐츠로서의 기능적 측면 역시 추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탐색적 연구로서의 이 연구 발표문은 추후 추가 기술을 통해 관련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더십은 대학교양교육 분야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대변하는 학술 개념이기도 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발표문에서

제시한 인간과 사회 간 관계에 기반한 이론적 맥락에 순수 인문학적 관점의 철학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 논문 형태로 구조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발표문은 여러 하위 학문 분과에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관련 연구와 대학교양교육의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의미 있는 글입니다. 앞으로도 대학교양 교육 연구 과정에서 리더십을 주제로 현 교육체계가 지향해야 할 이론적 맥락이 학술적으로 꾸준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어 전승에 나타난
여성리더십과 영성
: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의 관점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양정호

막달라 마리아 전승에 나타난 여성리더십과 영성 :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의 관점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 양정호

1. 서론

성서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 가운데 ‘마리아’는 가장 흔한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기 예수를 출산한 어머니가 마리아였고(마 1:16),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던 여성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마 27:56)가 있었다.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마 27:61) 있었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다(28:1-10). 복음서에 의하면,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성들이 적어도 4명 이상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마리아들 가운데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죽음의 증인인 동시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한다.

막달라 마리아 만큼 중요한 여성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1-12장에 등장한다.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의 주인공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복음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학자가 있다.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 신학적 재건』¹⁾에서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Elisabeth Schüssler Fiorenza)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²⁾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중요한 행위로 칭찬받은 여인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다.³⁾ 피오렌자는 여성의 역할이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음서에서 그녀의 이름이 생략된 것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복잡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과 그들의 공헌이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⁴⁾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두 주요 마리아, 즉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두 인물이 동일

1)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김애경 역,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 신학적 재건』 (서울: 종로서적, 1986).

2) 마가복음 14:9

3)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1984), xv.

4) 조진경,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신학』 23 (1995. 9), 55-74.

인물이라고 할 때 막달라 마리아의 리더십과 영성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과 전승에서는 두 사람이 구별되는 것처럼 보인기도 하지만, 종종 혼동되기도 하고 어떤 전승과 연구에서는 동일 인물로 여기기도 한다.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역사적 사실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전승에 나타나는 여성 리더십과 여성적 영성을 다니엘 골먼(Daniel Goleman)의 감성지능(EQ)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감성지능의 5가지 요소인 자기인식, 자기 제어, 동기, 공감, 사회적 기술 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베드로 시몬의 이미지와 비교하며, 세 번째 부분에서는 초기 나그함마디 문서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분석할 것이다.

2.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주장

1) 그레고리오 대교황

성경에 등장하는 두 주요 마리아, 즉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은 반대의 주장에 비해서 지지층이 두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동일한 인물이라는 주장 및 성경해석은 크게 두 사람의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각각의 주장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기에 각 주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주장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591년에 행한 복음서 설교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복음서 설교집』 CPL 1711의 33번째 설교이다. 라틴어 원문은 그레고리오의 설교 33번, 복음서 설교집 제2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Patrologia Latina* vol.76, col. 1239A (『라틴 교부 전집』 76권 1239A열)에 실려 있다. 영어 번역은 데이비드 허스트가 편역한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40편의 복음서 설교』에 포함되어 있다.⁵⁾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설교에서 교황은 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께 다가가 그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레고리오 1세가 이 설교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를 동일시하고 마리아를 창녀로 언급한 이유에 대해 현대 학자들은 그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혼동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특히 제인 샤퍼버그(Jane Schaberg)는 교황 그레고리오의 성서해석을 비판하면서 마리아의 부정적인 변모를 설명하기 위해 “창녀화(harlotization)”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창녀화”는 강력한 여성 지도자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⁶⁾ 과연 그레고리 대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창녀화 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설교 일부를 살펴보자.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여인(요한복음 11:2 참조)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그 마리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마가

5) Pope Gregory, *Forthy Gospel Homilies*, Cistercian Studies 123, trans. by David Hurst (Kalamazoo, MI: Cistercian Publication, 1990), 268-299.

6) Jane Schaberg, *The Resurrection of Mary Magdalene: Legends, Apocrypha, and the Christian Testament* (New York: Continuum, 2004), 9.

복음 16:9 참조). 이 일곱 귀신이란 모든 악덕의 총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곱 날이면 모든 시간을 포괄하기에 충분하므로, 일곱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총체성을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모든 악덕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일곱 귀신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욕되게 한 오점들을 보고,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비의 근원에 와서 씻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수치심이 너무나 컸기에 밖으로는 부끄러워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다.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 그녀가 치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그녀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통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형제 여러분, 이 여인이 전에는 금지된 행위에 빠져 자신의 육체에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 향유를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녀가 부끄럽게 자신에게 허락했던 것을, 이제 그녀는 찬사받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녀는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갈망했지만, 이제는 참회로 그것들을 억제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꾸미기 위해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은 교만한 말을 내뱉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며 구세주의 발자취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가진 모든 매력적인 것들이 이제는 희생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많은 덕으로 바꾸어, 죄 중에 하나님을 경멸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참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다로 대표되는 우리의 죄 많은 영혼 각각에 대해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시니라" (렘 3: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끄러운 여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분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무질서한 행동 이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제안하신 바로 그 비유를 뛰어넘으십니다. 음행에 빠진 여인은 결코 다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음행에 빠진 영혼을 되찾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선하심의 과도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상적인 과정에 반하여 그것을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신이 비난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불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품으려 하시는지 보십시오.

교황은 33번 설교 서두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비교하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로 불리는 여인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그 마리아라고 말한다. 이는 그레고리 대교황 개인의 성경 해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라는 직책이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한 인물이며 그녀가 창녀 또는 음행의 죄를 지었다는 이미지가 중세 시대에 널리 퍼졌다. 이러한 이미지는 현대에도 지속되어 가톨릭 신자인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⁷⁾에 반영되었다. 이 영화에서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았던 모니카 벨루치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을 뻔한 여인과 동일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리오 대교황은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동일 인물로 보았고, 이로 인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 또는 음행의 죄를 지은 여인으로 여기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다.

7) Mel Gibson, *The Passion of Christ* (Icon Productions, 2004).

1) 엘리자베스 슈레이더(Elizabeth Schrader)

이유와 관점은 각각 다르지만, 이 여성 신학자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역설적이게도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실제로는 동일 인물이라는 연구결과에 기반한다.⁸⁾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또한, 베다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과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들은 엘리자베스 슈레이더의 요한복음 11장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녀는 요한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인 파피루스 66번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을 분석하면서, 마리아가 두 번 등장하는 것과 마르다로 이름이 수정된 흔적을 근거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 인물이었음을 주장한다.

슈레이더는 뉴욕의 제너럴 신학교(The General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piscopal Church)에서 석사 과정 중, 파피루스 66의 디지털 버전⁹⁾을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리스어로 11장 1절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사는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Now a certain man was ill, Lazarus of Bethany, the village of Mary and his sister Mary).

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역개정 및 NRSV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Now a certain man was ill, Lazarus of Bethany, the village of Mary and her sister Martha).

파피루스 66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마리아를 두 번 언급하고 있다. 슈레이더는 파피루스 66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Maria의 ι 가 모두 θ 테타(theta)로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마리아(Mαρία)의 이름은 마르다(Mάρθα)로 수정되어 있고, 단수 동사가 복수 동사로 바뀌어 있으며, 대명사도 수정되어 있었다. 단수 명사 '자매(αδελφή)'는 복수 명사 '자매들(αδελφές)'로 수정되어 있었다. 현재 성경과 달리, 파피루스 66에서는 나사로의 여동생을 언급할 때 마리아가 두 번 등장하며, 마르다 대신 마리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스어 스펠링에서 '마리아'의 'I'가 'θ'로 수정된 것을 발견한 슈레이더는 사본을 연구하면서 수정 사항을 찾아내고, 누군가가 요한복음의 사본을 수정해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슈레이더는 이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 요청을 받았다. 그녀의 논문은 2017년 *Harvard Theological Review*¹⁰⁾에 실렸고,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슈레이더는 다른 사본에서도 마리아가 마르다로 수정

8)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 인물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현혜원,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인물인가?," <https://www.umnews.org/ko/news/mary-the-tower-or-mary-magdalene>, [게시 2023. 3. 31.]. 이글에서 현혜원은 엘리자베스 슈레이더의 주장과 다이애나 버틀러 배스의 주장을 소개한다.

9) 파피루스 66번에 대한 소개와 디지털 사본은 다음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ent Nongbri, "The Limits of Palaeographic Dating of Literary Papyri: Some Observations on the Date and Provenance of P. Bodmer II (P66)," *Museum Helveticum* 71-1 (2014), 1-35. 이 논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e-periodica.ch/digbib/view?pid=mhl-001:2014:71::139#5>

10) Elizabeth Schrader, "Was Martha of Bethany Added to the Fourth Gospel in the Second Century?"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0-3 (July 2017), 360-92.

된 흔적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총 280개의 그리스어 사본 중 5개당 1개에서 마르다의 이름 수정이 확인되었고, 오래된 라틴어 사본에서도 유사한 수정이 발견되었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과 관련되어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마르다를 모두 마리아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위로하러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한 사람이며, 부활이요 생명이라 는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¹¹⁾는 고백한 여성이 되기 때문이다.

마르다의 고백으로 기록된 “이르되 주여 그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¹²⁾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¹³⁾과 더불어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복음서가 침묵하고 있다. 이 고백과 유사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시몬의 경우, “너는 베드로다,”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천국열쇠를 주겠다”는 칭찬을 들었던 반면에, 마르다의 고백은 주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서론에서 언급한 피오렌자의 문제제기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인 막달라 출신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마을 이름은 1세기 당시에는 막달라가 아니었고,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명성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역사가 요세푸스(A.D. 37-100년경)는 “타리체”(Taricheae)라고 했는데 “절인 물고기”라는 뜻이다.¹⁴⁾ 신약학자인 데니스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어 Μαγδαληνή(막달라)는 히브리어 단어 מגדל(마그달), 즉 '탑'에서 유래하며, 아람어 별칭 ܡܚܕܠܐ(마그달라) 또는 ܡܚܕܠܐ (마그달리아), 즉 '막달라'에서 파생되었다. 막달라는 '탑의 도시'였으며, 고대 구조물의 기초가 오늘날에도 보인다.”¹⁵⁾ 엘리자베스 슈레이더 또한 '막달라'가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탑, 타워'를 의미하는 타이틀이라고 주장한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만약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은 사람이라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도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엄청난 칭찬이, “주여 그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한 여성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상호 보완적이며, 초기 기독교 문서의 해석을 통해 여성 인물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는 성경 해석학과 여성 신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성경 인물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특히 슈레이더의 연구는 성서 텍스트 원본 분석을 통해 초기 기독교의 여성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11) 요한복음 11장 27절

12) 요한복음 11장 27절

13) 마태복음 16장 16절

14) 정병준, “정병준의 교회사 교실: 67 막달라 -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https://blog.naver.com/jbjoon63/221108534779> [게시 2017. 9.30].

15) 막달라가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탑, 타워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이미 데니스 맥도날드(Dennis MacDonald)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The word Μαγδαληνή comes from the Hebrew word מגדל, “tower,” and the derivative Aramaic epithet ܡܚܕܠܐ or ܡܚܕܠܐ, “of Magdala.” Magdala was “Towertown,” and the foundations of the ancient structure are visible today.

3. 복음서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베다니의 마르다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주장을 소개함으로써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3차례(27:56, 27:61, 28:1), 마가복음에 4차례(15:40, 15:47, 16:1, 16:9), 누가복음에 2차례(8:2, 24:10), 그리고 요한복음에 3차례(19:25, 20:1, 20:18)가 총 12차례 언급된다. 각각의 이야기는 십자가 죽음의 증인(마태복음 27:56; 27:61, 마가복음 15:40; 15:47, 요한복음 19:25), 부활의 증인(마태복음 28:1, 마가복음 16:9, 누가복음 24:10, 요한복음 20:1; 20:18), 예수님의 사역 후원(마가복음 16:1),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한 언급에(누가복음 8:2)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핵심 목격자이자 후원자로 강조한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는데, 이는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처형 현장에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막달라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해 무덤으로 가져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또한 그녀는 부활의 소식을 남성 사도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누가복음은 그녀가 과거에 일곱 귀신에 시달리다 예수님에 의해 치유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그 사건 이후 그녀가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과 헌신은 마리아를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요한복음은 그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인물로 설명한다. 각 복음서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지만,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주요 증인으로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이 중대한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정리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증언과 헌신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과 복음 전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마리아가 단순한 제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짐작케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사도'의 자격 요건은 사도행전 1장 21-22절에서 명확히 언급되고 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¹⁶⁾

이 성경 구절은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그와 동행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

16) 사도행전 1:21-22

람”이라는 조건은 빠져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남성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¹⁷⁾

복음서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베드로 시몬과 비교함으로써 막달라 마리아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 형성을 엿볼 수 있어서 아래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베드로 시몬과 막달라 마리아 비교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인물이라는 전제)

1	이름	시몬	마리아	차이
2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27)	살아계신 vs. 세상에 오시는
3	고백 후 얻은 별칭	베드로 (반석)	막달라 (망대, 탑)	기초 vs. 건축물
4	그리스도 에 대한 고백의 표현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16:15-1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3)	질문에 대한 대답의말로 vs.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동으로
5	표현의 의미	질문에 모범답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되게 함	인정 vs. 만들
6	칭찬으로 얻은 약속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6:18-19)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가복음 14:9)	교회 vs. 복음 천국열쇠 vs. 기억

17) 요한복음 19:25-27

7	십자가 사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서 현장에 없었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마태복음 26:74)	현장에 있었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마가복음 15:40-41)	부인 vs. 증인
8	부활 사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믿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11)	천사의 말을 믿고 제자들에게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9)	믿음 없음 vs. 믿음 부활의 증인 vs.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마리아의 행적을 통해 그녀의 리더십과 영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이라는 핵심 개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마리아의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현대 리더십 이론의 선구자인 다니엘 골먼(Daniel Goleman)에 따르면, 탁월한 리더의 핵심 덕목 중 하나는 감성지능이다. 골먼은 감성지능을 다섯 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자기인식, 자기 제어, 동기부여,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술이다. 이 중에서도 자기인식은 모든 감성지능의 기초가 되는 요소로 간주된다.¹⁸⁾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복잡한 개념이다. 이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상태가 자신의 행동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기인식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평가, 그리고 깊이 있는 자기 이해를 수반한다. 자기 인식이 뛰어난 개인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리더십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편, 정체성(identity)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어떤 집단이나 개념과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본질적 가치, 신념, 목표,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정의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정체성은 동사 'identify'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신을 누구와 혹은 무엇과 동일시하는지, 그리고 그 동일시를 통해 어떤 의미를 찾는지의 문제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덕성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기독교 영성의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한다. 마리아가 보여준 깊은 공감 능력과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는 감성의 신학과 학문적 영성이라는 복합적인 틀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감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

18) 감성지능의 이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Daniel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2005), 33-45 페이지를 참조.

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덕성의 실천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삶의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덕성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을 추구하며 도덕적 탁월성을 체화하는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윤리적 선택을 넘어서는 깊은 영성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덕성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제시한 로버트 M. 아담스(Robert Merrihew Adams)는 그의 저서 『덕성의 이론』에서 덕성을 “최고의 선이라는 이상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도덕적, 영적 탁월성을 구현하는 것”¹⁹⁾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덕성이 단순한 도덕적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적 성장과 영적 발전의 과정임을 시사한다. 한편, 감성과 삶의 방식의 연관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 로버트 C. 솔로몬(Robert C. Solomon)은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살아간다”²⁰⁾고 주장하며, 감성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녀의 감성적 반응과 영적 성숙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마리아의 신학적 개념과 영적 실천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메타피직스(metaphysics)” 또는 종교철학적 접근법을 넘어서, 감성과 영성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메타이모션(meta-emotion)”의 관점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존 M. 고트만(John M. Gottma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연구에서 그 이론적 기반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가족 내에서의 감정 소통 방식과 그것이 개인의 정서적, 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²¹⁾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리아의 영적 성장과 리더십 발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녀의 감정적 경험과 영적 실천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리아의 그리스도와와의 동일시 개념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표현을 넘어서, 덕성과 감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총체적 삶의 경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마리아의 행동에 나타난 정체성, 자기 인식, 그리고 영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그녀의 리더십과 영적 성숙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마리아와 베드로의 대조적인 예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소속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 중 누가 더 그리스도인다운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는 깊은 신학적,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가치관, 신념 체계, 삶의 경험,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베드로와 마리아의 행적을 비교 분석해보면, 각 상황에서 누가 더 성숙한 판단을 내렸는지, 누가 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개인 간의 비교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정체성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19) Robert Merrihew Adams, A Theory of Virtue: Excellence in Being for the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1.

20) Robert C. Solomon, True to Our Feeling: What Our Emotions Are Really Telling 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0.

21) John M. Gottman, Lynn Fainsilber Katz, and Carole Hoove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no. 3 (1996): 243-68; John M. Gottman, Lynn Fainsilber Katz, and Carole Hooven,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7), 3-8.

베드로와 마리아의 구체적인 역할 행동을 비교해 보자.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앞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통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며 깊이 공감했다. 이는 다니엘 골먼이 주장하는 감성지능의 5가지 요소 중 하나인 "공감(Empathy)"—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마리아의 이러한 "동일시"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했음을 드러낸다. 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고 그의 고통을 외면하며, 심지어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의 역할을 확인하려는 "동기"에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되게 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정체성과 자기인식은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 마리아가 보여준 역할 행동은 자기희생적이며 타인을 세워주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베드로와 마리아 중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훌륭한 리더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4. 외경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가 동일인물이라는 전제로 복음서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구성해 보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복음서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양재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전직 매춘부의 이미지였고, 이런 현상은 중세시대부터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그녀는 성적으로 무척 매력 있는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녀의 성적 매력은 종종 사람들이 경계해야 하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때로 주님의 은혜로 이런 성적인 방탕함에서 벗어나 내핍 생활을 하며 평생토록 회개하는 여인으로 그려진다. 물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타락의 딱지는 결코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나쁘게 그려지면 전직 매춘부요, 좋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죄악을 회개하는 모델로 그려진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녀는 성적으로 문란한 요부의 이미지는 끝까지 간직한다.²²⁾

정경으로 분류된 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중요한 인물이다. 그녀는 십자가의 증인이자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남성 제자들에 비해 그녀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레고리오 대교황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전해져 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녀의 모습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정경 외의 초기 기독교 문서들, 즉 외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정경 복음서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묘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외경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외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경은 초대 기독교의 다양한 모습과 당시의 종교·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로, 주로 2-3세기에 걸쳐 기록되었다. 이 문서들은 당시 기독교의 다양한 사상

22) 양재훈, 「창녀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4): Apostola Apostolorum, 외경의 막달라 마리아」, 『기독교사상』 49-10, (2005. 10), 216쪽.

과 실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예를 들어, “집회서”와 같은 대표적인 외경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오리게네스 같은 영향력 있는 교부들의 저작에도 인용되어 있어, 초기 기독교 사상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경이 초기 기독교 문헌으로서 지니는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경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대 이집트어인 콥트어로 기록된 문서들로, 이들은 현재 나그함마디 문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나그함마디 문서 중에는 마리아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마리아 복음서는 2세기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발견된 사본은 총 세 개이다. 이 중 하나는 5세기경의 콥트어 판본이고, 나머지 두 개는 3세기경에 제작된 그리스어 판본이다. 원래 19페이지로 구성되었던 마리아 복음서는 안타깝게도 첫 1-6페이지와 중간의 11-14페이지 등 총 아홉 페이지가 유실되어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일곱 번째 페이지의 내용을 통해 유실된 앞부분에는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 간의 대화가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9-10페이지와 17-19페이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²³⁾

이제 나그함마디 문서에 포함된 마리아 복음서에 묘사된 마리아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경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해하고, 그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슬퍼했다. 그들은 크게 울며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인자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분도 아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아끼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그들 모두에게 인사하고 형제들에게 말했다. “울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유부단하지 마세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온전히 함께하며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돌렸고, 그들은 [구주]의 말씀을 토론하기 시작했다.²⁴⁾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자매여, 우리는 구주께서 당신을 다른 여자들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구주의 말씀 중 당신이 기억하는 것, 당신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고 듣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마리아가 대답하여 말했다. “여러분에게 숨겨진 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환상 속에서 주님을 보았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환상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으니 복이 있도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내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환상을 보는 자가 〈영혼을 통해〉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을 통해 보는 것입니까?’ 구주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영혼으로도 영으로도 보지 않고, 둘 사이에 있는 마음으로 보나니’”

23) 위의 글, 220.

24) “The Gospel of Mary,” ed. by Douglas M. Parrot, tran. by George W. MarRae and R. McL. Wilson, in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ed. by James M. Robin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0), pp. 525-526.

위 인용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떠나신 후의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베드로와 마리아 사이의 중요한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지시에 대한 남성 제자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 사이의 뚜렷한 대조이다.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난 후 두려움에 휩싸이고 동요하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마리아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며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리아의 이러한 격려의 말 이후,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리더십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기 전과 후의 상황 변화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명한 리더십 전문가인 존 C. 맥스웰(John C. Maxwell)이 그의 저서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2.0"에서 "리더십은 영향력"²⁵⁾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마리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감정지능의 5가지 핵심 요소 중 특히 '자기 제어'와 '사회적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분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며 보호해 주셨다"는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하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그녀의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만든 것이다.

마리아는 이러한 강력한 '자기 제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력 있는 말로 제자들을 격려했다: "울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온전히 함께하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말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더불어, 이 인용문에서 감정지능의 5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마리아가 보여준 뛰어난 '사회적 기술'이다. 사회적 기술이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묘사된 부분은 마리아의 탁월한 사회적 기술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다.

25) John C. Maxwell,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2.0 (Nashville: HarperCollins, 2018), pp. 9-18.

5. 결론

이 연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전통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재고하고, 그녀의 여성적 리더십과 영성의 깊이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의 마르다가 동일인물이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리아의 리더십이 가진 특징을 다니엘 골먼이 제시한 감성지능의 주요 요소—자기 인식, 자기 제어, 동기 부여, 공감 능력, 사회적 기술—에 비추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마리아는 이러한 요소들을 탁월하게 구현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과 함께, 타인의 감정 상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겸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리아의 리더십과 영성의 깊이는 베드로와의 대조적인 비교, 그리고 나그 함마디 문서에 포함된 마리아 복음서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십자가의 고통에 깊이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극도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과 그의 깊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강인한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리아가 보여준 리더십 스타일은 현대의 리더십 이론 중 로버트 그린리프가 제시한 '서번트 리더십' 개념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이 리더십 모델은 타인을 섬기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데 주안점을 둔다. 마리아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제자들의 내면에 자리잡은 두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영적, 정서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이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마리아의 이러한 리더십은 단순히 개인적 자질의 차원을 넘어, 전체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범을 통해, 제자들은 점차 자신들을 짓누르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다. 이는 진정한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변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 복음서에 묘사된 마리아의 모습은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녀의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감정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포용적이고 섬김의 자세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오늘날의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마리아의 리더십 사례는 현대 사회의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 참고문헌

- 양재훈. 「창녀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4): Apostola Apostolorum, 외경의 막달라 마리아」, 『기독교사상』 49-10, 2005. 10, 216-231쪽.
- 조진경. 「피오렌자의 성서 해석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신학』 23, 1995. 9, 55-74쪽.
- 정병준. 「정병준의 교회사 교실: 67 막달라 -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 <https://blog.naver.com/jbjoon63/221108534779>, [게시 2017. 9.30].
- Adams, Robert Merrihew. *A Theory of Virtue: Excellence in Being for the G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Fiorenza, Elisabeth Schüssler.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1984.
- Goleman, Daniel.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2005.
- Gottman, John M., Lynn Fainsilber Katz, and Carole Hoove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no. 3 (1996), pp. 243-268
- Gottman, John M., Lynn Fainsilber Katz, and Carole Hooven.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7.
- Maxwell, John C.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2.0*. Nashville: HarperCollins, 2018.
- Nongbri, Brent. "The Limits of Palaeographic Dating of Literary Papyri: Some Observations on the Date and Provenance of P. Bodmer II (P66)," *Museum Helveticum* 71-1, 2014, pp. 1-35.
- Pope Gregory. *Forthy Gospel Homilies*. Kalamazoo, MI: Cistercian Publication, 1990.
- Robins, James M. ed. "The Gospel of Mary,"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0, pp. 523-527.
- Schaberg, Jane. *The Resurrection of Mary Magdalene: Legends, Apocrypha, and the Christian Testament*. New York: Continuum, 2004.
- Schrader, Elizabeth. "Was Martha of Bethany Added to the Fourth Gospel in the Second Century?"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0-3, July 2017, pp. 360-92.
- Solomon, Robert C. *True to Our Feeling: What Our Emotions Are Really Telling 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Gibson, Mel. *The Passion of Christ*. Icon Productions, 2004.

양정호 박사의 “마리아 전승에 나타난 여성리더십과 영성”에 대한 논평

권진구(목원대학교)

daniel1978@mokwon.ac.kr

양정호 박사의 논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막달라 마리아 전승이 전하는 여성리더십과 영성을 감성지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문의 첫 장은 두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에 관한 문헌적 연구를 수행한다. 두 번째 장은 복음서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와 마리아를 비교 분석해 마리아의 감성지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한다. 세 번째 장은 마리아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마리아의 감성지능을 분석한다.

논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본문 첫 장은 그레고리오 교황의 설교 내용으로 시작된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으로 상당한 학식을 갖추었고 고위 공직의 경험도 있으며 수도승 출신으로는 최초로 교황이 된 인물이다. 그레고리오 교황의 설교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같은 인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다. 논문은 비록 그레고리오 교황이 그의 설교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정적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논문은 두 번째로 엘리자베스 슈레이더의 연구를 다룬다. 슈레이더는 파피루스 사본 66번에 수록된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마르다로 수정된 흔적을 찾았다. 이후 다른 여러 사본에서도 비슷한 수정을 발견하게 된다. 슈레이더의 연구는 다양한 사본에서 발견되는 수정이 의미하는 바를 논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본다.

본문의 두 번째 장은 복음서의 기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12차례 언급되고 십자가와 부활 등 중요한 장면이 포함된다. 논문은 남성 제자들과 비교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이나 부활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도적 위상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를 자세히 비교하고 있다. 표에 따르면 신앙고백, 고백 후 받은 별칭, 고백의 표현,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등에서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의 언행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논문은 이러한 차이가 막달라 마리아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 보여준다고 서술한다.

본문의 마지막 장은 마리아 복음서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녀의 리더십과 자기 제어,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마리아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승천 후 모인 제자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고 동기

를 부여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준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음을 돌려 말씀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논문은 이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영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제어와 사회적 기술이라고 분석한다.

결론에서 논문은 지금까지 논의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연구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 논문은 마리아의 리더십은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마리아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모델이며 통찰과 영감을 준다고 적고 있다.

양정호 박사의 논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여성리더십을 조명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논문의 가치와 의미를 논할 수 있다. 먼저 논문이 서술하고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기록과 초기 교회의 전승이 전하는 것처럼 사도와 기독교인 중에서 중요한 인물임에도 성별이나 과거사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주목받거나 영향력이 간과되어왔다. 본 논문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고전적 해석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를 지지하는 적절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사회의 일각에서 여전히 여성리더십에 보수적 견해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성경과 교회 역사 속 여성리더십의 모델을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신학의 임무라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역할을 지속하는 연결 고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논문은 리더십과 감성지능을 연결해 다차원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리더십을 분석해 내면서 성경 속 리더십을 학문적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될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의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논문의 완성도와 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며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논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고 그레고리오 교황과 슈레이더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슈레이더가 예로 들고 있듯이 그레고리오 교황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터툴리안이나 크리스소스톰의 예 등 여러 예를 통해 가설을 전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문은 정교회나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을 논하거나 전달하지는 않는다. 논문의 전제를 명확히 밝혔다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보고 있지 않은 신학적 입장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논문의 객관성을 높여주리라 생각한다.

둘째, 논문의 제목에 영성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문이 영성을 다룰 것이라 기대하게 하지만 영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필자가 영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EQ를 통한 분석이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하는 것이 논문의 전개와 일관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마리아 복음이 전하는 베드로와 마리아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대화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이 없다. 이 대화를 빼더라도 논문의 논지나 전개에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이 대화가 논문의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대화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마리아 복음서를 통해 막달라 마리아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지만 한 장면만으로 마리아의 리더십, 자기 제어, 사회적 기술을 모두 설명하는 것보다 논문 이전 장의 내용이나 마리아 복음서

의 다른 내용 또는 여러 다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의 리더십의 예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논문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논문은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교하며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훌륭한 리더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제자이자 사도적 위상을 갖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인이자 지도자로서 훌륭한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의 리더십은 그만의 특징과 개성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두 인물을 비교해 누가 더 나은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성리더십을 공정하게 논하고자 하는 논문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에게 베드로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학문적 이유가 있는지 묻고자 한다.

MEMO

MEMO